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6월 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57호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조계종 미래세대위 오는 8월 30일 출범

준비위, 청년문제 의견 수렴
"청년 일자리·주거 관심 필요"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미래세대위원회가 오는 8월 30일 공식 출범한다.

백년대계본부 미래세대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심산)는 7월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8월 30일 오후 7시 조계사 마당서 '미래세대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키로 결의했다.

이날 미래세대를 위한 불교인 헌장이 발표되며, 다양한 청년단체를 초청해 공양을 대접하고 문화공연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미래세대위원회는 스님과 재가자, 외부인사를 각각 7인씩 배정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스님위원은 준비위원을 중심으로, 재가자위원은 준비위원과 추천인사로 구성키로 했다. 외부인사는 간담회 참석자와 추가 추천을 받아 선별한다.

또한 백년대계본부 미래세대준비위원회는 공식 출범을 앞두고 활동방향 정립을 위해 청년문제 의견을 수렴했다. 전체회의 이후 '미래세대에게 불교의 역할을 묻다'라는 주제로 이어진 청년단체 간담회에서 단체 관계자들은 일자리와 주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불교계 관심을 호소했다.

김희성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청년정책이 사회적으로 마련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도 형식과 제도만 복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문제는 더 이상 청년만의 것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서 적극적인 토론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책에서 배제된 대상과 새로운 수단을 포함한 포괄적 주거복지로 정책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임대인과 세입자, 부모세대와 청년세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봉암 주지 선엽 스님과 이채은 대불련 간사는 불교계가 미래세대의 삶을 이해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선엽 스님은 "불교가 미래세대인 20~30대의 삶과 분리돼 있다. 특히 소통의 부재로 인해 미래세대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포교단체 재정인식 '無'… 후원 특성화 필요

조계종 포교원, 포교단체 재정 건전화 워크샵

7개 단체 재정 사전 진단
후원금 10% 넘는 곳 2곳
사실상 후원 체계 없어

동문 등 모집방안 제시
"단체 성격 비슷한 곳
공동모연 협업도 필요"

조계종 포교단체의 안정적인 포교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가 시도되는 가운데 후원 조직 체계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포교원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포교단체 재정 건전화 워크샵을 개최했다. 어린이 · 청소년 · 국제포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교단체는 20여 곳에 달한다. 이날 워크샵에는 조계종 포교원을 비롯해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상담개발원 등 10개 단체 임원 및 실무자 31명이 참여했다. 워크샵에서는 7개 단체가 재정 자료를 사전에 제출,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의 진단을 받았다.

사전 제출된 7개 단체의 재정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수입 중 기부금과 후원금 비중이 10%를 넘는 곳은 대한불교청년회(43.7%)와 동련(37.6%) 등 2곳에 불과했다. 포교사단(9.5%), 불교여성개발원(6.3%), 파라미타(4.8%), 국제포교사회(3.7%), 불교상담개발원(2.8%) 등은 사실상 기부 후원 모연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다. 또 대부분의 단체에 후원회가 없었다.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도 1명으로 이마저도 운영, 후원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맡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을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곳도 전무했다. 반면 종단 보조금이나 회비 의존도가 후원 모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춘 소장은 "종단보조가 평균 20% 수준으로 종단 포교단체 특성 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반적인 재정 크기가 너무 작다는 것"이라며 "포교 재원 확보에서 회비나 종단 보조금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기부나 후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교단체에서는 왜 기부 후원 조직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포교단체들은 태생부터 재원 마련보단 포교 실천 쪽에 조직 방향이 맞춰져 있다"며 "사회서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의 조건이 있어 공동모금 형태를 띄고 있다. 불교계는 아직 복지분야서만 이런 기부모연 개념이 들어온 상태다. 다양한 포교 실천을 위해서는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춘 소장은 "돈을 모으는 모금이 아닌 인연을 모으고, 선연을 쌓게 하는 모연 개념으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며 "개신교계는 교회와 길거리에서 후원 모금을 위한 전문영상과 전문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워크샵에서는 △대불련, 연세대 '블루나비' 및 이화여대 '선배라면' 등 동문 모연 벤치마킹 △국제포교사회, 국제포교사 직접 후원 △파라미타, 학부모후원회 및 파라미타동문회 구성 등 각 단체 특성에 맞는 후원조직 구성방안이 제시됐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통해 모연활동에 나서고 있는 중앙신도회 장성원 팀장은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단체 실무자들은 기부자에게 단체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후원자는 단순히 재원을 제공하는 ATM기가 아니며 후원이 중단되더라도 단체 사업과 포교에 함께 노력하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부 후원 모연에서 각 포교단체가 중복된 영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후원 활성화를 하다보면 포교사단과 교정교화 전법단, 파라미타와 동련 등 활동분야가 일부 겹치는 단체들이 있다. 이런 단체들은 함께 공동모연 등 협업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하반기 전법단 전문화 교육에서 포교단체를 참여시켜 기부, 후원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포교를 위해서는 신심과 원력도 중요하지만 재정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각 단체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더불어 서로 돕는 생명살림 되길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7월 17일 관음재일을 맞아 '연꽃 더불어 생명방생'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참석한 300여 대중들은 불법승 구호에 맞춰 연꽃항아리에 미꾸라지를 방생했다. 미꾸라지는 항아리 흙 속을 헤집고 다니며 산소를 공급해 연꽃 생장에 도움을 주고 모기 유충도 없애게 된다. 사진은 법회에서 조계사 스님이 생명살림을 기원하며 정성스럽게 방생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저잣거리서 물들지 말라



정찬주 작가의
스님이야기
② 자주적인 인간

법정 스님을 만나려면 불일암으로 내려가야 했다. 그때 나는 샘터사에서 근무했는데, 스님의 산문집을 편집하면서 불일암을 자주 찾았던 것이다. 회사일로 가는 출장길이었지만, 나는 1박 2일 출가하는 기분으로 서울을 떠나곤 했다. 승용차가 없어서 순천까지는 기차를 탔고 순천에서 송광사까지는 시외버스를 탔다. 또 불일암까지는 걸어서 가는데 땀을 한 줌 흘려야만 했다.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휴가철에는 아내와 두 딸아이를 데리고 불일암을 올라가기도 했다.

입적하신 스님이 그리울 때마다 몇 가지 장면이 먼저 떠오른다. 한 번은 스님께서 국수를 끓이시고 내가 설거지 당번을 했을 때다. 스님께서 삶은 국수를 불일암 우물가로 가져가 찬물에 식히는 순간, 꼬들꼬들해진 국수 몇 가닥이 우물 밖으로 넘쳐흐르는 물에 떨어졌다. 스님께서는 망설이지 않고 '신도가 수행 잘하라고 보내준 정재(淨財, 맑은 재물)인데'라며 주워 드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수행자란 상담이나 하는 카운슬러가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서 보여주는 분이 아닐까 싶었던 것이다.



일러스트 · 정윤경

또 한 번은 관광객이 불일암까지 허둥지둥 올라와 스님을 찾았다. 스님과 마주치자 관광객이 "TV에서 본 모습과 똑같습니다. 스님, 고향이 어디세요"라고 묻자, 스님께서 "고향이요? 화두가 따로 없네. 허허허"하시며 너털웃음을 웃으시던 모습도 잊히지 않는다. 그때 나는 화두가 선어록에만 있지 않고 깨어 있는 수행자에게는 매사가 화두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나는 몇 년 뒤 회사일과 상관없이 스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불일암으로 내려가 하룻밤을 잤다. 불일암 오동나무에 구멍을 파고 사는 호반새가 스님께서 휘파람을 멋들어지게 불자 공중제비를 하는 단옷날 아침이었다. 나는 스님께 삼배를 올렸다. 스님께서는 저잣거리에서 물들지 말라는 뜻으로 무염(無染)이란 법명과 함께 계첩을 주시고, 오계를 받는 공덕이 무엇인지 법문을 해주셨다. 오계는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자 내 행동을 바로잡아줄 신호등과 같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그해 여름에는 스님께서 진달래 꽃물이 든 분홍빛 한지에 휘호를 써 보내주셨다. 내용은 지금까지 스님께서 내려준 법명의 뜻과 함께 나의 좌우명이 되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초기 불경인 〈숫타니파타〉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었다. 나중에 스님께서 서울에 올라오시어 '세 구절 속에 팔만대장경의 깊은 뜻이 다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자주적인 인간의 표상 같은 가르침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다. 당당하게, 걸림 없이, 청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진리의 땅이 되게 하라'는 임제선사의 참사람(無位眞人)이 아닐까 싶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95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16권 출간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바로보인 유가귀감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유교의 뜻

유가귀감은 서산대사가 간추려놓은 구절로서 간결하지만 심오하기 그지없다. 간략한 구절 속에서 유교 사상을 미루어 볼 수 있게 한 서산대사의 박학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신간

바로보인 도가귀감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도교의 뜻

도가귀감은, 일물(一物, 온통인 마음)을 밝혀서 회복함으로써, 나고 죽음을 비롯하여 모든 아픔과 고를 여의어, 뜻과 같이 누려서 살게 하고자 한 도교의 뜻을,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책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부록으로 도덕경의 중대한 대목을 더하고, 도가귀감과 도덕경의 대목대목마다 결문(決文)하여, 깊은 내용을 쉽게 수용하고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기록적 폭우 · 산사태, 사찰 피해 '속출'

산사태에 토사물 뚫고 들어와… 인명 피해도

연일 폭우가 쏟아지며 충청지역의 인명 및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 산중에 위치한 사찰의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충청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90㎜의 물폭탄이 떨어졌다. 특히 청주에는 15~16일 302.2㎜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는 1995년 293㎜의 강우량을 기록한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은 비로 집계됐다.

이에 청주 화장사는 산사태로 구법당이 붕괴되며 삼존불이 훼손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토사가 공양간과 요사채 지붕을 뚫고 들어와 재산피해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과 신도들이 나서 피해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그 와중에도 비가 멈추지 않고 내려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관음사도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었다. 16일 오전 10시경 굉음과 함께 사찰입구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다. 또한 법당 옆길에 산사태가 발생하며 토사가 경내로 흘러내렸다. 당시 관음사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를 입은 천안 자비사.

가 위치한 우암산 곳곳은 추가 피해 우려로 차량이 통제되기도 했다.

천안 쪽도 비 피해에 몸살을 앓았다. 천안 자비사는 산사태로 인해 토사물이 산신각과 공양간을 뚫고 들어왔다. 이 과정서 기도하던 신도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현재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최소 5,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박아름 기자

전법 능력 향상 승가교육 계속된다

조계종 교육원, 하반기 사업 계획 발표

전법사 제도 시행 본격화
내년 승가대 졸업자 대상
관련 법령 하반기 준비 중

질문 · 토론 수업 안착 위한
교과목, 교수법 연찬 시행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전법과 포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승가교육 정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조계종 교육원은 7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사업을 발표했다. 발표한 하반기 교육 사업은 전법과 포교 역량 향상에 맞춰져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법사 제도다. 전법사 제도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비구 · 비구니계를 받는 4급 승가고시 학인들을 대상자로 하는 것으로, 전법포교를 위해 구족계 수계와 더불어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전법사 선발 및 지원에 관한 령'을 제정하고 내년 기본교육기관 졸업자를 첫 대상으로 전법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장 진각 스님은 "전법사 제도는 향후 승가고시와 연계해 지속적인 전법 포교 활동을 점검하면서 자격 관리를 이뤄나갈 계획"이라며 "자격 취득 시 주지 인사 고과 등 인센티브제도 반영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설법과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교육원은 사찰 승가대학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설법과 토론'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신규 편성한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설법과 토론' 교과목의 교안을 마련해 사찰 승가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사찰 승가대학 상주 교수를 대상으로 승가교육 현장에서 질문과 토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기 위한 연찬회를 오는 9월 7~8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한다. 연찬회에서는 다양한 토론 방식과 이에 대한 교수법 관련 전문가 강의와 실습,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염불의 현대적 계승과 불교식 찬불가 진흥'을 위해 모든 기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3시간 특강도 열린다. 최근 불교음악원장으로 위촉된 박범훈(前 중앙대 총장) 원장과 국악합주단이 팀을 이루어 강의와 실습, 공연이 어우러진 찬불가 특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교육원은 이를 토대로 2018년도 승려연수 교육에 염불교육과 더불어 찬불가 교육을 함께 병행하는 것도 추진한다.

포교에 실용적인 기술을 익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교육원은 '서예' 교과목의 외래 강사 초빙 강의료를 지원한다. 진각 스님은 "사찰에서 포교하다보면 신도들이나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휘호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본교육기관에서 서예의 기본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추진한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 영역사업'이 마무리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조계종 교육원은 9월 중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 영역본 완간 봉정법회를 봉행한다.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 영역사업은 〈백교회통〉 〈근대한국불교개혁론〉 〈근대한국불교논설집〉 〈경허집〉 〈조선불교사고〉 〈조선탑파의 연구〉 〈근대한국불교시선〉 〈불자필람〉 〈각해일륜〉 〈인명입정리론회석〉 등 총 10권이 발간되는 사업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인묵 스님, 조계종 어산어장 임명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사진〉이 어산어장(魚山魚丈)에 지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인묵 스님에게 어산어장 임명장을 전달하고, 염불원 활성화와 어산 보존 및 전승을 당부했다.

어산어장은 범패와 범음 등 각종 불교의례의식 분야서 최고수준에 도달한 스님을 의미한다. 어산종장 지정 후 20년 이상 또는 어산 분야에서 30년 이상 수학 및 활동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계행이 청정한 승려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종단 주요 수륙재 및 영산재 등의 집전을 담당한다.

인묵 스님은 삼학 스님을 은사로 1976년 수계(사미계)했다. 회암사 및 자재암 주지,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제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의례위원장, 교육원 염불교육지도위원을 맡고 있다. 인묵 스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예능보유자 일응 스님에게 범패를 배웠다. 이후 어산작법학교 초대학교장을 맡아 후학을 양성하고 불교의례 한글화에도 기여했다.

윤호섭 기자

마곡사 주지후보 원경 스님 추대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신임 주지후보로 현 주지 원경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제6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0일 관음전서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원경 스님을 주지후보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이에 따라 원경 스님은 오는 9월 2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주지소임을 맡게 된다.

원경 스님은 진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88년 봉선사서 운경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1년 범어사 금강계단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13~15대 중앙종회의원과 천안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자비의 빛'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환아 18명에 후원금 전달

국내 3명뿐인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최세림(남 · 14) 환아. 면역 체계의 결함과 혈소판 감소로 인해 하루가 멀다하고 응급실을 찾는다. 그리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자식의 선천성 난치병이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아 아린 가슴만 쓸어내리며, 매일같이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린다.

최세림 환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불교계가 희망과 자비의 빛을 선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7월 19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청소년독서실서 '난치병 어린이 치료를 위한 자비나눔 기금 전달식'을 열고, 최세림 환아에게 후원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최세림 환아는 비스코트 올드리치 증후군을 앓고 있다. 수차례 응급실에 실려가며 잦은 입 · 퇴원을 반복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엄마와 4남매가 함께 지내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는 형편이다.



최세림 환아의 투병 경과를 얘기하던 중 눈물을 쏟은 어머니 조상희 씨에게 자승 스님이 염주를 건네고 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세림이의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 얼른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최세림 환아의 어머니 조상희 씨에게 직접 손목에 감고 있는 염주를 건네기도 했다.

조 씨는 "세림이가 아픈 게 나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하지만 절에 다니며 마음을 추스르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굳게 먹기로 결심했다"면서 "무엇보다 자승 스님께서 염주를 주셨을 때 세림이가 건강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세림 환아는 건강상 이유로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 조 씨를 통해 자승 스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난 4월 23일 개최한 난치병 어린이 지원 콘서트 '더 나눔'을 통해 모연한 기금을 국내 및 라오스 난치병 환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최세림 환아 외에도 17명이 1인 최대 800만원 총 9,4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받았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대불련 총동문회 〈군포교 설법집〉 펴내

군포교지원단 설립 8주년 기념

대불련 총동문회가 설립한 사단법인 대불(이사장 백효흠) 산하 군포교지원단(단장 유선재)은 설립 8주년을 맞아 7월 20일 〈군포교 설법 자료집〉을 펴냈다.

〈군포교 설법 자료집〉은 △불교입문편 △불교교리편 △불자수행편 △불서인용편 △생활불교편 △진로멘토링편 등 6편, 108개 주제로 구성됐다.

자료집은 그동안 대불련 총동문회 군포교 지원단 소속 불자들이 실제 법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활용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또 현재 군 복무중인 청년, 대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진로지도와 관련한 사항까지 담겨져 있다.

대불련 총동문회 측은 "자료집은 현장에서 활용돼온 자료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군포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불자와 단체들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젊은 불자 육성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2009년 7월 군포교지원단을 발족한 이래 현재 전국 20여개 군법당에서 연간 356회에 걸쳐 군 장병에 대한 법회를 이어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회원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 본회 설립동기에 대하여 종단스님 및 문화예술단체 지도자님들께 널리 알리고 회원을 모시고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스님 및 지도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설립동기 : 많은 종교지도자님들께서 몸담고 계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임원과 회원들 간에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었으면 ●법인설립자 및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연합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각종행사 등을 하기 전 회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면 ●회비 및 후원금을 회원들의 현실에 맞게 정했으면 ●행사일정을 행사 15~20일전에 미리 연락해 주었으면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상생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덕망 있는 좋은 분들 만나 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소생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오랜 기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항상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기필코 해결하여 회원님들이 신뢰하고 덕망 있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 종단 및 문화예술 단체등록, 종단행정, 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사암등록,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단체명의 차량등록증 등 모든 행정에 대하여 지원도 해드리고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립니다. (문의 : 사무총장 산수스님 H·P : 010-3300-0408)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

조계종 통일종책 수립 필요성 수면 위로

민추본, 7월 20일 '정책환경 변화대비 통일종책 연구보고회'

"조계종의 공식적 통일종책은 부재하다. 총무원과 종회서 결의한 일관된 통일정책이 필요하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교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9년간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정세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 국면에 따른 조계종의 통일종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는 총무원 및 종회에서 결의된 공식 통일종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논의가 향후 대북사업 관련 종책 수립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는 '정책환경 변화대비 통일종책 연구보고회'를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개최했다.

그동안 불교계뿐 아니라 남북민간교류는 국가 간 정세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됐다. 교류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무산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지난 7월 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 베를린 선언'이라는 대북구상을 내놓으며 평화적 해결 모색에 나설 것을 밝혔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 핵실험이 계속되는 한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민추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3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소장 고유환)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 종단의 통일종책 목표와 방향 수립에 나섰다. 김용현 · 이창희 교수 등 발제자들은 이날 종단 차원의 통일종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남북정세 여파에도 흔들림 없는 일관된 통일 사업을 추진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현 교수는 "2009~2016년 불교계는 '통일종책연구위원회(안)'과 '민추본 발전방안 2.0'을 수립하는 등 실천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두 큰 결실을 맺지

동국대 북한학硏 공동 연구
정책 변화대비 통일종책 검토
종단 종책 수립 '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통일사업 해야"

못했다. 주된 원인은 남북관계의 악화"라면서 "더 이상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통일사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를 극복할만한 통일종책을 내놔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통일종책의 3가지 방향성으로 △남북정세에 따르지 않는 일관성 수립 △평화적 여론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불교통일교육 실시 △통일종책의 공론화 및 제도화를 제시했다.

또한 그동안 통일종책이 수립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론화 및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통일종책이 채택돼야만 불교계의 통일 실천이 힘 있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7월 20일 통일종책 연구보고회를 열고, 종단 차원의 확고한 통일종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는 변화 조짐을 맞았지만, 통일종책은 변화된 정책환경에 만족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선 안 된다"면서 "변화된 정책환경을 불교적 평화의 관점서 대처하고, 일관되게 전개해갈 수 있는 통일종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그동안 조계종의 통일사업이 연구보고서 및 민추본 사업형태로 제시되던 점을 언급하며, 이는 종단의 공식적인 통일종책으로 보기 어렵고 총무원 및 종회 차원의 '분단 극복과 통일 원칙' '장기적 사업 계획 및 로드맵'을 채택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불교 통일사업 5개년 계획(2017~2021) △한반도 분단 극복 100년 불교 통일 방침 △동북아 및 국제적 차원의 불교 통일사업 전개 등을 예시 과제로 제안했다.

토론자들 역시 조계종 통일종책 수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방법에 대해 첨언했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통일종책의 수립에 앞서 대북사업의 모범모델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남북대치라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교류사업을 진행한 종교계 및 민간단체가 있는지 찾아보고, 만약 있다면 그 이유와 방법을 연구 학습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연구결과는 의견수렴 및 수정 · 보완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보고서 형태로 발간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4차산업 시대 안전망, 기본소득제"

이재명 성남시장, 조계종복지재단 미래복지포럼서

"한국사회는 자원과 배분의 극단적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 현재의 현물지원 · 선별복지 형태서 현금지원 · 보편복지의 형태로 발전시켜야한다."

'청년배당' 제도를 통해 한국사회에 사실상 첫 기본소득제 개념을 도입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7월 18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제54회 미래복지포럼 '기본소득, 복지제도의 새로운 대안인가?'서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의 여파로 발생되는 불평등 및 자원과 배분의 왜곡을 막고, 최종생산된 가치를 모든 구성원들이 골고루 나눠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본소득제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발전 낙수효과 일시 · 제한적
보편적 혜택, 사회전반 복지 도모

이 시장은 "특정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것은 매우 일시적, 제한적이다. 중소기업에도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배분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침체되고 자본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라면서 "특히 일자리의 대대적 축소가 우려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분배의 평등을 실현해야만 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의 형태로 이 시장은 '보편복지'를 제시했다. 보편복지란 자격과 조건 없이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이 시장은 "선별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혜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더욱 극렬히 저항한다"면서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한다. 그래야 '세금=뺏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현금지급' 원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을 지급하되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줄 경우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단 것. 복지 대상자에게 경제적 지원과 처분의 자유를 주면서도 제2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기본소득과 관련한 시민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대부분 기본소득제의 부작용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기본소득제가 함께 시행될 경우 이중수혜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 않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이 시장은 "성남시의 '청년배당'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청년배당 혜택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일부가 혜택을 못 받게 되어있다"면서 "이것은 부당한 역차별이다. 정부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바뀌어야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월세 · 전기세 등 최소한 생계비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하지만 복지혜택도 여러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최소 생활비 부담 해소 등 장점이 있는 한편, 피해갈 수 없는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아름 기자

동화사 '지장시왕도' 30년 만에 제자리 찾다

조계종, 1988년 도난된 불화 美 LA카운티박물관서 반환

1988년 도난된 것으로 알려진 동화사 염불암 '지장시왕도'가 3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정현)와 미국 LA카운티박물관(관장 마이클 고반)은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서 '동화사 염불암 지장시왕도 반환식'을 거행하고, 성보의 환지본처를 기념했다.

조계종은 2014년 12월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 실린 동화사 염불암 지장시왕도가 LA카운티박물관에 소장돼 있음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성보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박물관 측은 도난 근거를 확인하고 조계종과 만나 협의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과 마이클 고반 LA카운티박물관장이 기증서 서명 후 교환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후 이사회서 반환을 의결했다. 도난된 지장시왕도는 20여 년 전, LA카운티박물관이 한국미술품을 대규모로 구입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반환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총무부장 지현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사부대중의 성보전승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보는 굴곡진 역사를 거치면서 많이 유출됐다"며 "소중한 성보가 청정도량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도 문화재 반환 요청을 선뜻 받아들인 LA카운티박물관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성보 보존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마이클 고반 박물관장은 "이번 반환은 새로운 가치를 알리고, 조계종과 LA카운티박물관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갈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불교미술전시 등을 열어 조계종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찰음식에 빠진 미스코리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 성공과 강원 지역 템플스테이 참가 독려를 위해 2017불자 대상을 수상한 미스코리아(2002년 眞) 금나나 씨가 나섰다.
금나나 씨는 건강한 사찰음식 조리법을 배우기 위해 7월 13일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을 찾았다. 형민 스님과 함께한 이날 자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강원 지역의 템플스테이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날 진행된 금나나 씨의 사찰음식 체험기를 영상으로 제작,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 성공과 강원 지역 템플스테이 참가 독려를 위해 추후 배포할 예정이다. 금 씨의 사찰음식 체험기는 오는 8월 중 사찰음식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박아름 기자 ·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동양 역학(易學)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FCA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奭廈命理) 여름 강좌 안내


奭廈(석하) 소 재 학 교수
동양미래학자, 미래예측학박사 1호
명리학자(공식전공 사주명리학박사 1호)
국제뇌교육대학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동국대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동국대FCA 풍수지리(+관상)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GFCA) 회장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서울신문 STV 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 biz 충북) 자문위원
한국 동양미래예측학회 회장, 각 기업 투자 경영 자문
국제미래학회 동양미래학 위원장, 대한민국 명강사 대상
국회 미래정책연구회 동양미래학 위원장
MBN 황금알, 채널A 아빠본색, 부동산TV 풍수야 놀자, MBC, SBS 외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논리로 푸는 사주학 석하명리(奭廈命理)
때를 찾는 지혜, 불확실성의 시대, 동양의 미래예측학, 과학역학(易學) 현대 사주명리학 석하명리(奭廈命理)
정확한 성공과 실패의 시기, 자신만의 때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학문, 검증 가능한 작명법, 타고난 선천적 성격적성과 성격체질 변화시기 분석법,
이유 없이 좋아 지고 싫어지는 시기와 콩깍지의 유효기간, 최상의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 찾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는 과정.
기존 사주명리학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해도 정확한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비법들을 무조건 암기하기보다 음양오행, 십간십이지, 사주학 관련 모든 이론의 원리부터 공부합니다. 원리를 알면 공부가 어렵지 않고 재미있습니다.
유투브 '논리로 푸는 사주학' 및 '황금알 속설 검증' 편 참조, 다음카페 '동양미래예측연구소' 참조.
수료시 FCA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 회장 명의 수료증, FCA동문 자격, 소정의 절차를 걸쳐 과정에 따른 자격증 취득.

경력자를 위한 석하명리 5개월 속성마스터과정 8월 9일(수) 19시 개강 특강
※ 8월 9일(수) 19시 개강 및 공개강좌(예약순 30명), 매주 수요일(19시 ~ 21시 30분), 수강료 165만원(VAT별도)
• 경력자, 현업 종사자, 중급자를 위한 5개월 15주(월3~4회) 속성 마스터 과정(8~12월), 학문 마스터 까지 무한 반복수강
• 특전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1급, 2급 자격증(소정의 절차 후), 스마트폰 앱(소비자가 120만원) 무료 설치, 소재학 박사 직강

석하명리 왕초보 과정 주간반 8월 11일(금), 야간반 8월 22일(화) 개강 특강
※ 왕초급 3개월 과정, 11일(금) 10:30, 22일(화) 19:00 개강 및 공개특강(예약순 30명), 수강료 24만원(VAT별도)
주간반 11일부터 매주 금요일 10:30 ~ 12:30, 야간반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19:00 ~ 21:00
• 교수진 : 석하 소재학 박사, 석원 박성희 박사, 린정 김윤연 교수, 심원 남상용 교수, 국원 임영 교수

FCA미래융합아카데미 동국대 최고위과정
•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5기 / 동국대 FCA 풍수지리(+관상) 최고지도자과정 제2기 진행 중

동양 역학의 과학화를 선도하는 FCA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 / 문의 02-3443-4984 (하원정미래학회)
※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9-28(서운로 24), 서일빌딩 4층(한전아트센터 앞 베스트문구 4층)
※ 찾아 오시는 길 : 양재역 1번 출구 직진 서초구청 사거리(KEB하나은행) 우회전 200M, 주차 - 한전 아트센터 유료주차

일 주 문



경허 선어록 강설

설정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스님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경내 황하정루에서 경허선어록을 강설한다.



스리랑카 물품지원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7월 12일 스리랑카 숲 보호 활동가 와나와시 테로 스님에게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무원 스님, 국가보훈평화공헌대상 수상

7월 1일, 참전유공자 보훈 및 남북교류 추진 공로로



천태종 대전 광수사 주지 무원 스님〈사진〉이 2017국가보훈평화공헌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국가보훈평화공헌대상 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유영옥, 국가보훈학회장)는 7월 1일 무원 스님에게 2017국가보훈공헌대상 종교지도자부문 대상을 전달했다.

무원 스님은 1979년 단양 구인사에 출가한 후 천태종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으며 2월 3일 대전 계룡산 광수사 제8대 주지에 취임했다.

무원 스님은 2014년 부산 삼광사 주지 시절 참전유공자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하는 등 보훈활동에 앞장섰다. 또 삼광사에 나눔광장과 힐링광장을 만들어 '나눔 불사'를 전개했다.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를 비롯해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했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에 앞서 2009년 명락사 주지로 재임시 다문화 가정 여성을 돕는 쉼터를 개소하는 등 다문화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법공 스님, 완도사암연합회장에



완도 신흥사 주지 법공 스님〈사진〉이 7월 16일 완도군불교사암연합회장에 취임했다.

신흥사 관음전서 봉행된 취임식에서 법공 스님은 "완도는 섬으로 돼 있어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다. 앞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내고자 한다"며 "지난해 국제해조류박람회를 통해 연합방생법회와 봉축행사, 제등행렬을 진행해 자부심을 느꼈다. 앞으로도 회원사찰과의 협의를 통해 더욱 장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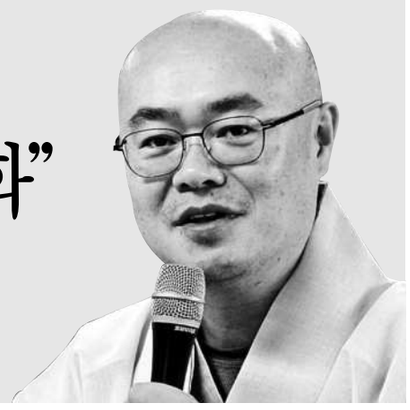
한편 행사에는 백양사 유나 일수 스님, 前회장 정진 스님, 박현식 완도 부군수, 박인철 행정자치위원장, 천양숙 군의원을 비롯해 300여 대중이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산하시설 · 운영사찰 유대 통해 위기능력 강화"

Interview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신임 상임이사 묘장 스님



"불교계에서 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영향력도 증대되는 겁니다. 과거 스님들이 탁발을 통해 매일 세상 사람들을 만났듯, 복지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비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신임 상임이사로 임명된 묘장 스님〈사진〉이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묘장 스님은 불교계 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위기 능력을 강화하고, 운영지원 사찰 및 산하기관과 유대를 견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산하시설이 192개인 만큼 곳곳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 있다. 산하시설은 본 재단에 소속된 만큼 직접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함께 위기에 대응하고, 방향성을 찾겠다. 또한 운영지원 사찰의 소임자가 바뀌는 시기에 재단과 연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하나 되어 나아가겠다."

특히 묘장 스님은 불교복지 인재 양성

"과거 탁발로 세상 사람 만났듯
복지 통해 사람들에 자비 실천"
재단 직영 복지관 운영 확대해
현장 경험 쌓은 인재 양성 주력

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방법은 '직영 복지관' 운영이다. 직영 복지관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인재들을 활용, 재단의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자산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스님은 "직영 복지관과 재단 간의 인적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겠다. 현장 경험을 쌓아 복지 트렌드를 파악하고, 나아가 복지정책 개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묘장 스님은 또한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 상임이사로도 활동 중인 만큼 국제구호 활동 및 NGO단체와 연계에도 나설 것을 내비쳤다. "불교계는 국제구호 활동 시 현지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여러 단체들이 함께하면 경제적 · 인력적인 면에서 분명 효율적"이라면서 "국제구호 사업에 있어서는 불교계 여러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7월 17일 묘장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합심해 재단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묘장 스님은 1991년 직지사에서 법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1년 사미계를, 199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연화사 및 도리사 주지, 직지사 부주지, 총무원 사회국장, 금오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장 등 역임한 바 있다. 현재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상임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박아름 기자

"이제라도 전통불교음악 가치 회복해야"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
7월 17일 첫 재가자로 임명



조계종 불교음악원의 신임원장으로 국악가 박범훈(69 · 사진) 씨가 7월 17일 임명됐다. 이는 불교음악원 설립 이래 첫 재가(在家) 원장으로, 박 원장은 그동안 불교음악에 미친 혁혁한 공을 인정받아 신임 불교음악원장을 맡게 됐다.

박 원장은 중앙대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무사시노 음학대학서 작곡과, 동대학원서 음악연구과를 졸업했다. 이후 동국대서 '불교음악의 역사적 고찰과 실체'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고 불교음악 연구 및 작곡에 전념해왔다. 대표적으로 국악 교성곡 '붓다' '보현행원성' 등 대작품을 비롯해 다수의 찬불가를 작곡했다.

특히 오래전부터 불교음악 발전을 위한 기구 구성을 주창하며 불교음악원 설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임 불교음악원장으로서 박 원장의 목표도 '불교음악의 정체성 확립'과 '연구보존을 통한 발전 도모'에 중점을 둔다. "종교음악에는 각 종교만의 철학과 가치가 담겨야한다. 하지만 한국불교음악은 해방 후 서양교회 음악에 바탕을 둔 '창작 찬불가'가 대거 유입되며 정통성이 흐려졌다.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작곡된 음악들을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전통불교음악의 가치를 회복해 올바로 계승해야한다."

특히 박 원장은 "불교음악원이 그 역할의 중심에 서야한다"면서 "전통불교음악을 제대로 연구 보존함으로써 새로운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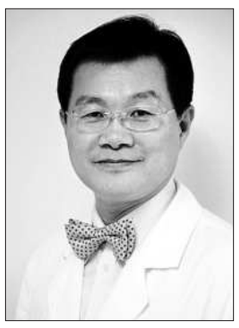
이어 "불교음악은 불교와 분리해 존재할 수 없다. 불교가 번성해야 불교음악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불교음악이 포교의 한 방편으로써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교음악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음악원을 관리 감독한다.

2015년 설립된 불교음악원은 불교 음악을 전문으로 다루는 조계종령 기구로, 불교음악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연구 계승을 위해 구성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동국대 신임 의료원장 이진호 교수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자광)는 7월 12일 제 18대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제8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으로 이진호 교수(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 사진)를 임명했다.

이진호 의료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의과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일산병원에 임용된 후 제3대 동국대일산병원장, 제15대 동국대의료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내과과장, 소화기병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선화여고 은해사서 합동수계식



동곡학원 선화여고(교장 이희명) 학생 300여명과 교직원 40명, 학부모 30명이 7월 20일 은해사에서 열린 합동수계식에 참여했다.

이날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은해사가 2010년 동곡학원 선화여고를 인수한 후 매년 1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학생 및 교직원 모두가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지역명문으로 거듭나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은해사는 동곡학원 선화여고가 더욱 좋은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바른법연구원 제6회 금강경 수련회



금강경 독경 수행모임 바른법연구원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괴산 이화여대 고사리수련관에서 '제6회 금강경 연수원 수련회'를 개최했다.

13일 시작된 수련회는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난제들을 금강경의 지혜로 풀어내는 분임토의와 금강경 독송, 선지식과의 대화, 금강경 세미나 등으로 진행됐다. 15일에는 정봉석 포스코 건설 지사장이 금강경의 지혜를 활용해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2300억원 규모의 폴란드 폐기물발전소 입찰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7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信心·願力이 만든 공휴일 제정·명칭 변경

Fact Check Q&A
'석탄일'서 '부처님오신날'까지

내년부터 '석가탄신일'이 '부처님오신날'로 명칭이 변경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7월 7일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불교계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변경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인사처는 8월 16일까지 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석가탄신일에서 부처님오신날까지의 과정을 'Fact Check Q&A'를 통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부처님오신날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 법적인 정식 명칭은 '석가탄신일(釋迦誕辰日)'이었다. 공휴일로 제정된 것은 1975년 1월 대통령령에 의해서다. 당시 정부 대변인 이원경 문공부 장관은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추가제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제정 이유로는 "1600년 전통을 이어온 불교를 800만 불자로 하여금 경축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당시 조계종 종정 서옹 스님은 1월 15일 '5000만 전 민족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석가탄신일 공휴일 제정을 축하했다.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국가의 명절로 정하여 온 민족이 함께 경축하게 된 것은 1000만 불교도와 5000만 민족의 숙원이 이룩된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우리 국민이 크리스마스로 알고 있는 성탄절의 법적 공식 명칭은 '기독탄신일(基督誕辰日)'이다. 기독탄신일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불교보다 20여 년 이른 1949년이다.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과정은?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을 위한 노력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다. 1963년 1월 조계종은 4월 초파일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문교부에 보내지만, 문교부장관은 "특정 국교가 없는 한국에서 특정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제정할 수 없다"는 다소 생뚱맞은 이유의 답변서를 보냈다. 기독탄신일에 대해서는 "세계적 추세"라고 하는 답했다. 이에 조계종은 즉시 반발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불탄일(佛誕日) 공휴일 제정 추진 범국민 운동'을 전개한다.

추진위는 공휴일 제정 서명 운동을 펼쳤고, 같은 해 5월까지 30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성과를 냈다. 연판장은 건의문과 함께 정부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이후 1960년대는 추진위 차원에서 의견을 모으며, 공휴일 추진을 시작했다.

지지부진하던 추진사업은 1970년대로 넘어서면서 다시 활기를 띤다. 1971년 9월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추진위원회' 창립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 정치·법조계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추진에 나섰다.

당시 신문 기록들을 보면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을 위해 발벗고 나선 유력 재가 인사들을 잘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故 유성범 국회의원(1923~2008)과 故 용태영 변호사(1929~2010)이다.

1972년 3월 유성범 신민당 국회의원은 서일교 총무처장관을 방문해 "지난 총무처가 공휴일 조정을 위해 여론 조사를 할 때 초파일 공휴일 희망자 수가 많았던 것을 감안해 달라"며 "문교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천주교, 기독교 신도수가 319만 명이고 단일 불교 신도수는 490만명에 이른다. 이탈리아에서도 석가·예수 탄일을 모두 공휴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선사 신도였던 용태용 당시 수도변호사회장은 조금 더 도발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1973년 3월 27일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석가탄신일공휴권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 고법에 제기했다.

1963년 조계종 공휴일 제정 추진
번번이 거부… 10여 년 '제자리'
1975년 용태영 변호사 등 노력에
마침내 '석가탄신일' 공휴일 제정

불교계 '부처님오신날' 변경 요구
"석가는 '석가족'을 의미, 안맞아"

용 변호사는 소장에서 "기독탄신일인 12월 25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헌법상 위헌"이라며 "석가탄신일 음력 4월 초파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기독탄신일인 12월 25일의 공휴일 지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용 변호사의 이 같은 소송 제기에 불자들은 재판장에 몰려가서 승소하기를 응원했지만 11차까지 이어진 심리를 통해 소송은 결국 각하 결정이 난다. 그러나, 여론 결집과 다른 소송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후 판사·검사·변호사·법학자 등 법조계 불교신자들의 모임인 대한불교법조인회는 1974년 4월 2일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석가세존탄신일 공휴권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서울 고법 특별부에 제기한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예수 탄신일인 12월 25일은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면서 삼국시대부터 우리 생활과 풍속, 전통, 문화 등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불교의 성일인 4월 초파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이 여론이 결집되고 소송과 청원이 이어지자 정부 역시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1975년 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정하게 된다.



석탄일 공휴일 제정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1963년 동국대 기원학사 앞에 걸린 '부처님오신날' 현수막이 보인다. 故목정배 교수에 의하면 '부처님오신날' 명칭은 자신에 의해 제의됐다고 한다. 사진=한국불교 100년

1963. 1. 조계종, 문교부에 석탄일 공휴일 제정 요구. 문교부 "특정 종교 기념일 휴일 안돼" 답신.

5. 조계종 추진위 결성. 5월까지 30만명 서명 동참.

1968. 3. 봉축준비회의서 '부처님오신날' 명칭 확정.

1971. 9.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추진위원회' 창립. 정치·법조계 인사들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추진

1972. 3. 유성범 신민당 국회의원, 서일교 총무처장관을 방문해 공휴일 제정 요구.

1973. 3. 용태용 수도변호사회장, '석가탄신일공휴권확인' 청구 소송 "석가탄신일 음력 4월초파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기독탄신일인 12월 25일의 공휴일 지정을 취소하라" 주장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재판 참관을 위해 신도들이 타고 온 버스가 늘어서 있다. 사진=한국불교 100년

1974. 4. 대한불교법조인회, '석가세존탄신일 공휴권 확인 등 청구 소송' "불교의 성일인 4월 초파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큰 모순" 주장

1975. 1. 14. 국무회의서 석가탄신일 공휴일 제정.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직후인 1975년 1월 19일 발간한 〈불교신문〉의 전신 〈대한불교〉의 1면 머리 기사. 사진=불교신문

2017. 2. 종단협 '부처님오신날'로 공식 명칭 변경을 관계부처에 요구.

5. 문재인 당시 후보 석가탄신일을 맞아 유튜브를 통해 "내년에는 '부처님오신날'로 불자님들께 인사드리겠다"면서 명칭 변경을 공약으로 제시.

7. 인사혁신처, 부처님오신날 명칭 변경 골자로 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왜 명칭을 '석가탄신일'로 했는가?

다시 이야기를 앞으로 돌려보자. 정부는 1975년 1월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제정하면서 기독탄생일을 기독탄신일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리스도를 음역한 '기독(基督)'에 탄생의 높임 표현으로 '탄신(誕辰)'을 조합한 것으로, 석가탄신일도 이와 같은 이유로 명칭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석가'와 '탄신'을 합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12월 25일 '기독탄신일'로 표기하거나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불교계 달력에도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나 '성탄절'로 표기된다. 반대로 부처님오신날은 현재 불교계의 바람과는 달리 석가탄신일, 석탄일로 불렸다.

왜 '부처님오신날'인가?

우선적으로 '석가탄신일'은 말이 안 맞는다. 석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 전 소속됐던 '석가족'에서 따온 것으로 부처님을 지칭하기에 맞지 않는다. 여기에 한글화 추세를 감안했을 때에도 석가탄신일보다는 부처님오신날이 어감 상 합당한 표현이다.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이 같은 이유로 "1975년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지정 이전부터 불교계서 '부처님오신날'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공식명칭을 변경해달라"고 지난 2월 관련 부처에 요청한 바 있다.

부처님오신날은 언제부터 사용됐나?

〈불교신문〉과 〈한국세시풍속사전〉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이라는 명칭은 1960년대 공식화됐다. 〈한국세시풍속사전〉은 "부처님오신날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조계종이 지나치게 민속화된 불탄일에 대한 불교적 의미를 복원하고 한자어로 되어 있는 불탄일(佛誕日) 또는 석탄일(釋誕日)을 쉽게 풀이하여 사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명칭이 범불교적으로 공인된 시기는 1968년으로 보인다. 〈불교신문〉의 지난 2015년 5월 기사에 따르면 "1968년 3월 봉축준비회의에서 공휴일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한 가지 추가하면, '부처님오신날'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故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1937~2014)로 추정된다. 민족사에서 발간한 〈한국불교 100년〉에는 "목정배 교수 회고에 의하면 1963년 초파일 행사를 맞아 자신의 제의에 의해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이 명명됐다"고 기술돼 있다. 실제 기원학사 사진에는 부처님오신날이라는 봉축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글씨는 김인덕 교수가 쓴 것이라고 전해진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행복바라미, 범국민 동참 운동으로 전개

날마다좋은날 7월 15~16일 행복바라미워크샵 개최

매년 10% 수혜 확대 성과
모금 · 수혜 일치해 호응↑
의견수렴, 새 원력 다져


7월 15일 2017행복바라미워크샵에 참석한 불자들이 범국민동참운동 전개를 서원하고 있다.

행복바라미 캠페인 5주년을 맞아 범국민 동참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불자들이 다시 원력을 모으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7월 15~16일, 천안에 위치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17 행복바라미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4월 5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전국불자 금강경독송정진과 나눔문화 캠페인 활동에 동참한 포교사단 및 교구신도회, 신도단체 임원 700여 명이 참여했다.

2013년 시작한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최근 모금액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6년 모금액 2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7년 7월에도 모금액이 2억원에 달한다. 다양한 사찰에서의 모금과 함께 거리 모금, 까페 바라밀을 활용한 기부 확산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늘어나고 있는 모금액 만큼 수혜 대상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행복바라미는 2016년까지 총 5억 6278만여원을 소외계층 1276명에게 전달했다.

계층별로 보면 2013년 기초수급권자 134명과 차상위계층 28명, 저소득층 47명 등 총 209명을 지원한데 이어 모금액이 소폭 줄어든 2014년에는 오히려 기초수급권자 163명과 차상위계층 28명, 저소득층 68명 등 259명으로 지원폭을 넓혔다.

2015년에는 기초수급권자 229명과 차상위계층 57명, 저소득층 100명 등 총 386명을 지원했으며, 2016년에는 기초수급권자 264명과 차상위계층 43명, 저소득층 115명 등 총 422명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중에는 극빈 저소득층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6년 지원 내역을 보면 극빈저소득 지원 296명, 무의탁 노인 지원 43명, 저소득다문화 지원 28명, 빈곤 노인가장 32명, 무의탁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14명 등으로 배분됐다. 대부분이 생활비였으며, 의료비와 교육비 지원도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성공에는 캠페인 참여자들이 직접 수혜대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날마다좋은날은 연말 모금 이후 지역 모금을 주도한 전국 각 사찰 신도회 및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수혜대상을 선정한다. 날마다좋은날 측은 각 지역의 모금을 지역 소외계층에 사용하기 때문에 호응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5일 진행된 워크샵에서도 이러한 선정과 모금에 대한 의견수렴 자리가 마련됐다.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특강 이후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행복바라미에 동참한 많은 불자들은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회 공동모금으로 자리잡기를 다시금 서원했다. 또 김포강화 포교사단과 제6교구신도회의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이기흥 이사장은 "불교의 가치와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바라미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불교중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범국민적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내 최초 사하촌, 불자마을 변모

낙산 용호리 10일 낙산사서 불자마을 창립법회



양양 낙산사 사하촌에 국내 최초로 불자마을이 탄생했다. 사하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찰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낙산사 인근 용호리 주민들은 7월 10일 낙산사에서 '낙산 불자마을'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호리 주민들은 불자마을로 매월 1회 정기법회를 열고, 낙산사가 실시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마을 주민들의 포교에도 나서기로 했다.

용호리가 불자마을이 된 것은 그동안 낙산사가 물심양면으로 마을 주민들을 도운 결과이다. 낙산사는 특히 2005년 산불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이동근 용호리 이장은 "기업형 주민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 지역이 화합하고, 먼 곳에서 오는 이들이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는 마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는 용호리와 함께 전진리, 주청리, 낙산사 상가지역 주민 등도 참여했다. 도후 스님은 "불자마을 창립을 계기로 지역민과 화합, 소통하고 불교 발전의 초석이 되자"고 설했다.

한편, 낙산사는 불자마을 주민을 위해 정기 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여름수련회 개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산청 겁외사서

생활 속 참선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성철스님 생가터인 산청 겁외사에서 참선 수련회를 개최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40명으로 30세 이하는 무료다. 수련회에서는 해인사 백련암을 찾아 원택 스님을 지도법사로 화두실참이 진행된다. 또 금강굴에서 불필 스님에게 공부를 점검받는 시간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불교인재원은 성철선사상연구원(이사장 원택)과 9월 생활참선 입문코스와 심화코스를 진행한다.

생활참선 입문코스는 9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전법회관 지하1층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불교교리와 중도, 연기, 공의 개념, 간화선 수행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다. 11월에는 산청 겁외사와 해인사 금강굴에서의 점검 시간도 갖게된다.

심화코스는 입문코스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며 9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열린다. 〈신심명〉과 성철스님 〈백일법문〉 강의 및 문경 봉암사 순례와 혜민스님 특강도 진행된다. 불교인재원 심화코스 이수자에게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의 명상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엄상호 이사장은 "일상 생활에서 참선을 통해 마음공부를 하면 많은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여름방학 맞은 청소년 명상 · 체험 여기로

지장사 명상 템플스테이 8월 3일 · 10일 2차 걸쳐 개최

김천 백마산 지장사(주지 정혜)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8월 3일부터 5일,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2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참선명상, 걷기명상, 오감명상, 두뇌개발 집중명상, 숲속명상 등 명상집중 훈련을 비롯해 건강식 반찬 만들기, 오곡밥 짓기, 옛날 팥빙수 만들기, 효소만들기 등 다양한 음식 조리 체험도 진행된다.

또 자연탐방과 연등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 정원은 1차 25명, 2차 20명으로 참가비는 7만원이다. 필기도구 및 운동화 등 준비물은 개인지참이다.

지장사 정혜 스님은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감성지수와 창의력 개발을 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며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054)432-1189

노덕현 기자

"불교의 미래, 희망 키운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9월 2일 제9회 나란다 축제 개최

결선제도 도입해 열기 유지
학생 적응 위한 OX퀴즈 실시
'우리말 독송' 인터넷 생중계도



대표적인 불교계 어린이청소년 축제인 나란다 축제가 참가자 전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한 단계 발전한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7월 19일 간담회를 갖고 '제9회 나란다 축제' 요강을 발표했다.

올해 나란다축제는 9월 2일, 3일, 20일 3일간 서울 동국대 일원을 비롯한 전국 군법당, 사관학교 등지에서 개최되며, 부문별 참가접수는 7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다.

먼저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 결선 진행방식의 변화가 눈에 띈다.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초등생들이 모여 치러지는 결선은 결선점수 합산제도를 도입, 우승기회의 폭을 넓혔다. 결선점수 합산제도는 수상권내 학생들(16~20명)을 1차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다 풀어 최종 우승을 가리는 방식이다.

또한, OX퀴즈 도입 등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교제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초등부 기출문제'로 일원화해 공부에 대한 부담도 대폭 줄였다. 기출문제집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운로드하면 된다.

지난해 첫 도입된 '우리말 독송대회'는 형식과 독송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팀별 참가(5~10인)를 원칙으로 하며, 오후2시부터 4시까지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진행된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300만원의 장학금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이 수여된다.

'붓다야! 놀자'는 오전 10시부터 동국대 경내에 설치된 7곳 장소에서 진행되며, '전통문화체험마당'도 오전10시부터 만해광장에서 펼쳐진다. 나란다 K-댄스대회는 오후 7시 동대문 굿모닝시티 특설무대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사관생도 부문은 9월 20일(수) 오후7시부터 8시까지 해당 학교법당에서 진행되며,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참가한다. 군장병 부문은 9월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개설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와 일반부, 우리말 독송대회, 나란다 K-경연대회는 인터넷 생중계될 예정이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총 장학금 8천여만원이 지급되는 나란다축제 수상자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 등이 함께 시상된다.

노덕현 기자

"어르신 봉사하며, 청소년 인성교육도"

광진노인종합福, 청소년자원봉사학교 개최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7월 26일 제19기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진행한다. 1 · 3세대 통합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자원봉사학교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원봉사자로써의 기본소양 및 자세를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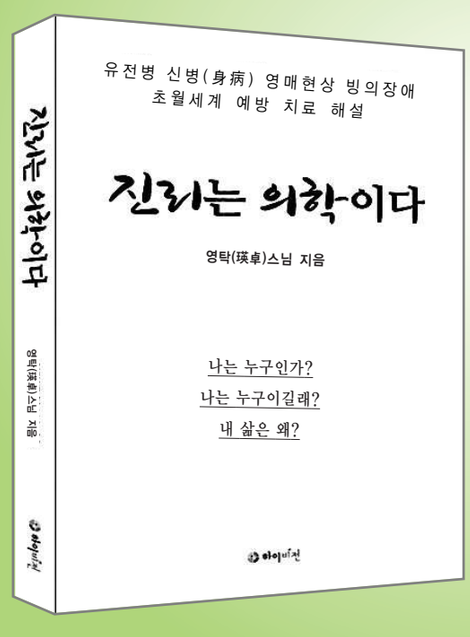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에는 총 15명의 학생이 참석해 자원봉사 소양교육, 영역별 봉사활동, 孝케이크 만들기, 노인생애 체험, 어르신 생신편지 쓰기 등을 체험한다.

이정범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팀장은 "최근 자원봉사의 개념이 학점이나 졸업 및 진학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원봉사학교를 통해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466-6242

노덕현 기자

진리는 의학이다!

천불사 영탁스님이 세계 최초로 중생제도 대원력 서원을 성취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
조상영가 왕생극락 시킬 수 있는 방편 대공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는
삼계사생육도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잠재의식 다겁다생의 업보를 해체 분리
파괴 소멸시켜 해탈하는 초월세계
우주진리법 입니다.

신병(身病), 영매현상, 빙의장애는
완치될 수 있고, 유전병도
예방 치료 됩니다.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값 15,000원 | 신국판 | 261쪽 | 하이비전

■ 문의 : 천불사 053)624-2272, 053)624-2275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生卽苦 지워내면 윤회가 곧 해탈

〈생즉고〉

대한불교진흥원 강좌… 주제: 철학자가 본 십이연기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삶은 곧 고통이다. 그렇기에 불교 핵심 교리인 사성제의 첫 번째도 고제(苦諦)다. 이런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바로 보게 하는 것이 번뇌로부터 괴로움에 이르는 12가지 인과관계를 설명한 십이연기(十二緣起). 이로써 해탈을 얻어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 불교다. 그렇다면 우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할까?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7월 18일 대한불교진흥원 화요열린강좌서 십이연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 교수는 "분별 · 집착으로 인해 삶을 고통으로 여기고, 이는 곧 윤회마저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이 같은 관념을 지워낼 때 윤회도 해탈로 이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리=이지선 수습기자



이진경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수유너머N(nomadist.org)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본명 박태호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에서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철학의 외부〉〈자본을 넘어선 자본〉〈삶을 위한 철학 수업〉등이 있다.

불교의 가르침을 '연기(緣起)'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연기법이 뭔가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관을 얘기하는 건지 상관을 얘기하는 건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연기적 조건'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기대어져 있는 조건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연기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은 기대어 있는 연기적 조건에 따라서 본성을 달리하는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이건 사물을 보는 중요하고도 다양한 사고방식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깨에 무언가 얹는 시늉을 하며) 제가 어깨에 무엇을 올린 것 같나요? 이것은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의 본질은 연주하기 위한 악기죠. 그런데 제가 지금 활을 들고 연주한다면 1분도 안되어 여러분들은 나가버릴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멋지게 연주하려고 애써도 고문기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올리니스트 어깨에 이 바이올린이 딱 올라간다면 아주 훌륭한 악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고문기계하고 악기, 어느 것이 바이올린의 본성일까요? 대부분이 악기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연주할 때는 이 물건의 본성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이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아주 다르게 변하는 거죠.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아도 바이올린에 기대어져 있는 '조건'에 따라서 바이올린의 본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십이연기의 과정

이런 연기법과 결부해서 십이연기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무명(無明) · 행(行) · 식(識) · 명색(名色) · 육처(六處) · 촉(觸) · 수(受) · 애(愛) · 취(取) · 유(有) · 생(生) · 노사(老死)가 있습니다. 생과 노사를 연기법에 의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후 중생의 삶이 고통에 가득 차 있는 걸 보시고 이를 해결할 답안으로 내신 것이 십이연기라고 봅니다.

저는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 십이연기 연결고리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설명, 책 이런 걸 떠나서 제가 한번 왜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을까 따져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무명은 실상을 안다는 개념과 거리가 있음은 틀림없는데 무명과 무지가 다르다는 생각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지라는 건 도대체 뭘까, 왜 무명은 무지가 아닌데 알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 됐을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 모른다는 개념이 없는 상태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무상하게 변한다는 거죠. 제일 흔한 오해가 이 무상을 인생무상과 같이 허탈함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무상의 원래 뜻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인데 여러분은 지금도 무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체를 안으로 들여다보면 지금도, 밤에 자고 있을 때도 세포들이 계속 주위 세포들과 통신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무상한 움직임이죠. 세포도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핵, 미토콘드리아 등이 또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상하다는 말을 얼마나 쉽게 써왔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행(行)이죠. 뇌를 보통 생각기관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운동기관입니다. 운동을 위해 존재하죠. 멍게는 뇌가 없습니다. 안 움직이고 착생생활을 하니까 뇌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멍게는 자웅동체여서 새끼를 혼자 만들어내는데 이 새끼가 올챙이처럼 생겼고 뇌가 있어요. 움직여서 자신이 착생할 곳을 물색해서 딱 머리부터 박고 착생해요. 그 다음에 꼬리를 먹어치우고 뇌를 먹어치워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올챙잇적에는 뇌가 있었는데 성체는 뇌가 없습니다. 이렇듯 움직임을 위해서는 뇌라는 운동기관이 필요하고, 이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정지시켜서 포착하는 게 그 다음인 식입니다.

식(識), '안다'는 것은 무언가를 정지시키는 것이기에 무상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하는 중 한 순간 멈춘 상태를 고정시켜서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들을 멈춤으로써 발생하는 겁니다. 식은 실상이 아니고 실상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기에 오히려 무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활에 꼭 필요한 유용한 무지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토끼 두 마리가 호랑이를 만나서 도망가다가 한 놈이 잡아 먹혔어요. 다음 날 무늬가 다른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살아남은 토끼가 어제와 다른 호랑이라고 인식해서 도망 안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히겠죠. 비슷한 것도 같은 것이라 인식해서 도망가고, 이런 식을 통해 살아남은 동물들의 뇌가 진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호랑이인데 같은 호랑이라고 판단한 거니까 결국 무지지만 유용하고 필연적인 것이죠. 세상은 카오스인데 그 카오스를 견디면서 우린 살 수 없으니까 딱딱 식을 포착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니까요. 이걸 바꾸는 게 행이에요. 행은 행동을 뜻하기도 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의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식은 살겠다는 의지, 행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본성**
> **십이연기 통해 바로 알아야**
> **분별 · 집착으로 생기는 고통**
> **관념 없애야 허무 사라진다**

명색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식이 생기면 식들에 대해서 분류하게 됩니다. 먹을 것, 피해야 할 것 등 이렇게 분류하고 판단하는 거죠. 분류한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은 안팎을 분류하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면역계가 이런 판단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피부가 1차 면역계에 해당되고 입 안의 침, 몸 안 구멍의 체액 등도 다 면역계입니다. 내 몸에 있는 단백질, 효소 등을 기억했다가 다른 형태가 나타나면 공격하는 거죠. 내 몸의 안과 밖을 가르는 미시적인 인식의 체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극의 재료가 되는 것들은 물질적인 것에 가깝고 이것들을 지각하는 작용은 정신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명색과 육처사이에 자아라는 것이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을 형성하는 기관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6가지 감각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세포핵 안에 있는 DNA들도 식을 형성해요. DNA는 아데닌(A), 시토신(C), 구아닌(G), 티민(T) 등 네 가지 염기가 3개씩 어떻게 묶이느냐에 따라 형성되는 게 달라지는데 자기 짝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식 아닐까요? 무명, 행, 식 할 때 식은 감각기관 이전의 식이에요. 부처님이 이런 걸 아시고 말씀하셨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놀랍게도 이때 식은 감각기관 이전에 존재하는 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근의 감각작용을 하는 것들을 촉, 수 이렇게 명명하신건데 이건 현대과학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분별로 생겨난 苦

그러고 나서 애 · 취가 나오는 거죠. 애 · 취는 감정이 작용하면서 대상과의 관계를 굉장히 증폭시키고 강화시킵니다. 다양한 집착이 있음(有)을 만들게 되는 거죠. 사실 무상한 것은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져봤자 사라질 것인데 가지게 되면 이것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망상, 즉 유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유에서 생이 나오는데 세상이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존재하는 것은 결국 생성밖에 없는 거죠.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없던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즉 탄생과 죽음이 공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음도 생성의 일부고, 탄생도 생성의 일부고 이렇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유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고착시켜버렸을 때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무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멸하는 것은 전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있는 것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멸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유와 생을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생이 있고 생겨난 것을 고정시켜버릴 때 '유'라는 허구적인 관념이 발생하는 건데 유를 실체화하면서 생이라는 것들을 다음으로 배열해버리고 그 다음에 노사와 연결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세포의 일부는 계속 죽어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자살스위치를 딱 켜요. 그러면 그 세포는 이제 죽는 거죠. 만약에 일부 세포들이 '난 죽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집착하여 남아있다면 그게 바로 암세포가 됩니다. 암세포는 병균이 아니라 내 몸의 세포가 자살스위치를 안 켜서 생겨나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의 애착, 집착이 결국은 신체 전체를 죽음으로 이끄는 거죠. 사실은 죽음 없이는 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에 죽음조차도 생의 일부로 다룰 수 있을 때에 죽음도 생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유무를 분명하게 구별하게 되면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이 유라고 정의하게 되고 탄생의 반대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늙는다는 것은 고통이고 인생은 '결국 다 죽을 건데'라는 생각에 의해 태어나는 것부터가 고통이 되어버리는 관념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윤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건데 왜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느끼고 끊고 싶어 할까요? 생을 고통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고통의 영원을 뜻하는 것이기에 그런 거겠죠? 사실은 이런 관념 때문에 고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념을 싹 지워버리면 결국 '윤회가 곧 해탈'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따로 깨달을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어린이 청소년 템플스테이 수련생 모집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이열치열이라고 더위를 이기며 자기발전의 시간을 갖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합니다.

참선명상, 걷기명상, 오감명상, 두뇌개발 집중명상, 숲속명상 등 명상집중 훈련으로 수련을 하며, 건강식 반찬 만들기와 오곡밥 짓기, 옛날 팥빙수, 물놀이, 효소담그기, 연등만들기, 염주만들기, 다도예절, 자연탐방 등으로 감성지수와 창의력 개발로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템플스테이를 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일 시 : **1차 8월 3일 ~ 5일, 2차 8월 10일 ~ 12일**
- 장 소 : 백마산 지장사 (KTX김천구미역에서 5분거리)
- 대 상 : 어린이, 청소년
- 인 원 : 1차 – 25명, 2차 – 20명
- 참 가 비 : 7만원
- 준 비 물 : 필기도구, 운동화, 슬리퍼, 구급약, 양말, 수건, 여러벌 옷과 내의
- 접수마감 : **1차 – 7월 25일, 2차 – 8월 5일**

불기 2561년 7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백마산 지장사

주지 정혜 합장

경북 김천시 농소면 입석길 332 백마산
☎ 054-432-1189 jijangsa.net

제97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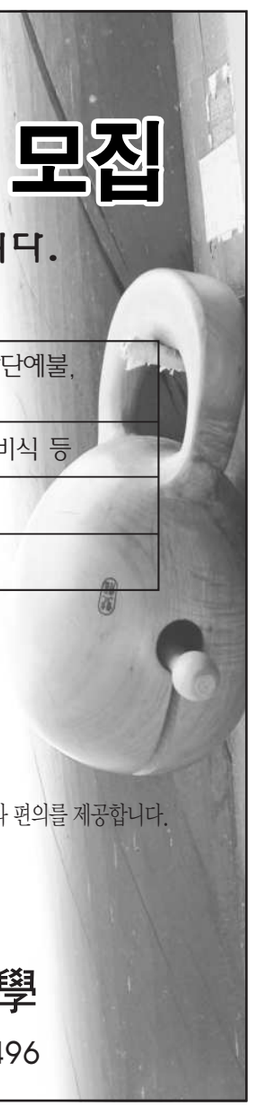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9월 7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업대로 살 것인가, 지혜롭게 살 것인가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⑤ 소와 목동 이야기 ㊥

정신이 탕진되도록 혼 힘을 다해 소를 얻었지만/ 완강하고 힘이 장사라 다루기 어렵다
때로는 가까스로 고원(高原)에 오르고/ 혹은 뭉게구름(煙雲) 깊은 곳에 빠지기도 한다.
–제4 '득우(得牛)', 마침내 소를 붙잡다

동자는 미처 날뛰는 소를 잡기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자칫 소의 힘에 질질 끌려가겠군요. 검은 소를 잡아 길들이기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군요. 아직 부단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곽암선사의 〈십우도송〉의 제4단계는 '득우(마침내 소를 붙잡다)'입니다. 이는 보명선사의 〈목우십송〉의 '초조(初調, 길들기 시작하다)'의 단계와 유사합니다.

"나에게 고삐가 있어 곧장 코를 뚫었고/ 한번 돌아 달아나면 아프게 채찍을 더 하네/ 이전의 졸렬한 습성 고르고 제재키 어려워/ 오히려 목동은 힘을 다해 이끄누나"라는 내용입니다. 마침내 소

십우도의 검은 소는 無明의 나
습관 길들여져 업장 속에 살아
소 이끄는 동자, 반야지혜 상징
업력과 지혜 맞대결 비유한 도상

를 확실하게 붙잡는 장면을 소의 코에 고삐를 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제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 안의 '소'를 길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소'로 착각하고 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십우도〉에 등장하는 소는 무명으로서의 '나', 즉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간단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나는 없다'라는 무아(無我)의 진리를 말합니다.

존재를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그게 아니라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이 몸과 감각, 그리고 생각이 '나'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나'일까요. 사실 '나'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십우도가 제시하는 '나'라는 존재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따라가 봅시다.

업에 휘둘릴 건가, 지혜를 밝힐 건가

곽암선사의 서문에는 "오랫동안 야외에 파묻혀 있던 그 소와 오늘에야 만난다. 수승한 경치에 마음 뺏겨 뒤쫓기 어렵고, 소도 무성한 초원이 그리워 견디기 어렵다. 완강한 마음이 매우 세고 야성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다. 유순함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채찍으로 다스려라"라고 합니다.

세세생생 쌓아온 번뇌 업장(業障)은 쉽게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또 현생에서 더욱 강화시켰으니 습관의 힘이 보통 강한 게 아니군요. 그래서 '고원(高原)'의 높은 경지에 오르기도 했다가 다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연운(煙雲)' 속에서 떨어져 헤어날 줄 모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이미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습관은 바로 나를 무너뜨립니다. 습관적 반복으로 길이 아주 잘 닦여 있어, 조그마한 자극에도 바로 그 길로 직행합니다. 이것을 업의 힘 '업력(業力)'이라 합니다. 업력이 치성할수록 고통은 배가 됩니다.

업력에 휘둘려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깨달음과 계합하여 자유를 얻을 것인가. 깨달음과 계합하지 못하고 검은 소(무명)로 분리되어 있는 한 영겁의 윤회를 면치 못한다는 군요. 인간의 고통은 '근원적 분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아담과 이브도 낙원에서, 분별심을 일으키자마자, 바로 추방되었습니다. '고(苦)'는 범어로 두카(duḥka)인데, 이러한 불완전함에서 오는 고통은 '근원적 분리'에서 비롯됩니다. 본래 하나였던 것이, 무명으로 인해 '나'라는 이원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원적 분리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고통의 강도는 심해집니다. 무명과 업력에 의해 분리되어 날뛰던 것(소)이 자각의 힘으로 드디어 회광반조합니다.

소의 고삐를 틀어잡는 것은 '반야지혜(동자)'입니다. 반야지혜는 다시 근본 자리와 계합하도록 소를 이끕니다. 십우도에 묘사된 소의 모습을 보면, 초반부에는 온통 검은 색의 몸을 하고 있다가 중반부터 소가 점점 하얗게 변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업장까지 다 털어버렸을 때는 소의 꼬리까지 말끔히 하얘집니다. 검은 소가 하얀 소로 변해가는 것은 번뇌업장이 소멸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 단계의 절정에 이르러서는 서는 소와 동자가 모두 사라지고 덩그마니 일원상(一圓相)만 남게 됩니다.

검은 소는 무명을 바탕으로 미쳐 날뛰는 오온(五蘊)입니다. 무명을 '어리석음(癡)'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많은 어리석음 중에서도 가장 큰 어리석음이 '나'라는 착각입니다. 진리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홀연히 일어난 것을 분별하여 스스로 '나'라고 여기는 원초적 미혹입니다. 미혹이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을 말합니다.

지혜를 접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평생을 그리고 세세생생을 이 '나'라는 것에 홀려 갈팡질팡하며 지낼 수밖에 없답니다. 진여를 보지 못하고 '내가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것을 근본무명(根本無明)이라고 합니다.



◀ '득우(得牛 마침내 소를 붙잡다)' 장면, 곽암선사 십우도송, 오산(五山)판본.

'나'라는 미혹 속에는 근본 4번뇌가 있는데, 이는 아치(我癡)·아견(我見)·아만(我慢)·아애(我愛)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아치(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가장 먼저입니다. 유식(唯識) 사상에서는 자아의식과 관련한 이것을 '말라식'이라고 하고, 이를 '말라식의 4번뇌'로 꼽고 있습니다.

'나'라는 아상의 실체

말라식이란 자기로서 의식하는 '자의식의 근원'을 말합니다. 표층에 떠오르지 않는 마음으로 자나 깨나 항상 활동합니다. 아라한과를 증득해야 비로소 소멸한다고 하는 군요.

요코야마 코이치의 〈유식이란 무엇인가〉에 나타난 정의를 요약하자면, 말라식의 실체는 아뢰야식의 견분(見分)을 자기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라식은 유신견(有身見, 살가야견)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라식(제7식)의 나'와 '의식(제6식)의 나'는 어떻게 다를까요? '말라식의 나'는 '①임운(任運 자연스럽게 작용함) ②일류(一流 항상 똑같은 존재방식임) ③항상속(恒相續 항상 계속 작용함)'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의식의 나'는 '①의식적 작용 ②나라고 생각하기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여 그때그때 다르다 ③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갖습니다. 여기서 임운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무의식적 무의도적 생득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의식 넘어 무의식까지 볼 수 있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군요. 수행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임운하는 말라식을 관조하면 평등성지(平等性智)가 됩니다. 항상 내부로 향해 '나'라고 집착하는 말라식이 밖을 향하여 일체가 평등함을 관(觀)하여야만 진정한 자타불이(自他不二)가 가능합니다. 미세하지만 집요한 이 말라식을 소멸시켜 평등성지를 얻지 않는 한 무루선(無漏善)은 없습니다.

무명을 원인으로 하여 갈애가 생기고(無明因愛), 갈애를 원인으로 하여 업(業, 즉 오염된 업)이 생기고(愛因為業), 업(오염된 업)을 원인으로 하여 (갖가지로 오염된 번뇌·삼계의 색경에 속박된) 안식(眼)이 생긴다(業因為眼). 이식(耳)·비식(鼻)·설식(舌)·신식(身)·의식(意)도 또한 이와 같다.
– 〈잡아함경〉 제13권 제334경 '유인유연유박법경(有因有緣有縛法經)'

12연기의 가장 밑바탕에는 무명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갖 잡염과 번뇌가 따라 붙어 허망한 세상이 만들어 집니다. 나만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지도자 아디야 샨티의 저서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의 영문 원제는 〈The end of your world〉입니다. 내가 스토리로 만들어 놓은 나의 인생과 그것의 윤회의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태초의 나의 시작인 무명을 바탕으로 행(行)이 일어나고, 따라서 식(識)·명(名)·색(色·)6입(六入)·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가 진행됩니다.

〈아비달마법온족론〉 '연기품(緣起品)'에는 "어떤 것을 무명을 반연하여 행이 생긴다(無明緣行)고 하는가? 세존께서는 '무명을 인(因)으로 하고 무명을 연(緣)으로 하기 때문에 탐냄(貪)·성냄(瞋)·어리석음(癡)이 일어난다'고 하셨다. 이 탐냄·성냄·어리석음의 성품을 바로 무명연행(無明緣行)이라고 한다. 삿된 소견·삿된 생각·삿된 말·삿된 행위·삿된 생활·삿된 노력·삿된 기억·삿된 선정을 '무명을 반연하여 행이 생긴다(無明緣行)'고 한다"고 합니다. 무명의 마음이 인연하고 속박하여 만들어낸 세상은, 지혜의 마음을 밝히지 않는 한, 바로 진짜라고 착각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만들어 놓고 다시 그것을 보는 양자가 모두 무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채찍과 고삐를 쉼 없이 사용해 곁에서 여의지 말라/ 그대가 한 걸음씩 티끌 속세로 들어감이 두렵다/ 그러나 끌어내 길들이니 순화되어/채찍과 고삐 쓰지 않더라도 스스로 사람을 따르네"
–제5 '목우(牧牛) 소를 길들이다'

곽암선사 십우도송 서문에는 "생각(前思)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뒤에 상념(想念)이 따르니, 깨달음(覺)으로 말미암아 진실함(眞)을 이루고, 미혹(迷)됨으로서 망상(妄)이 된다. 경계(境)로 말미암아 있음(有)이 아니니, 다만 자심(自心)에서 일어남(生)을 본다. 고삐를 굳세게 끌어당기고 헤아리지 마라"라고 합니다. 이제 오온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덩어리 망상으로 떠오르는 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게 됩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세계불교지도자 경전6차 결집 장소에 다시금 집결하다

2600년의 염원이 드디어 성취되다

세계불교 법왕청 과 세계불교도들의 법왕이신 우꾸마라 사야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는
불교지도자 정상회의에 불교 지도자이신 법하를 초청하였습니다

불교국 각 나라 승왕 및 연방승가회 회장, 세계불교지도자 총 결집 정상회의

부처님의 일불 제자로서 대승과 소승(트라와다) 불교가 하나가 되어 오늘의 불교 현실을 바라보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지만 언제나 한구석에서 안주하는 일부 지도자들로부터 탈피하여 지구촌 구석구석 중생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이제 불교의 새로운 역사의 해가 어둠을 뚫고 솟아 올랐습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법왕청 중앙정부의 관리, 운영, 조직에 착수하였으며 미얀마에 법왕궁을 두고 한국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왕궁 중앙정부 설립 또한 불교수호협회 관리하에 불교수호협회 회장께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적 같은 환희심이 가득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루시는 경이로운 기적을 봅니다. 모든 준비는 미얀마 종교성의 후원과 불교수호협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일 시 : 2017년 10월 12일 미얀마 까바에 동굴사원 (6차 결집 장소)
■ 한국에서는 10월 11일 출발합니다.
■ 행사 및 성지순례 220만원
■ 자세한 일정은 문의하시면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가국가
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일본, 대만, 중국, 몽골
■ 주최 : 사단법인세계불교 법왕청 ■ 주관 : 미얀마 세계불교수호협회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참석 신청 일시 : 2017년 8월 15일까지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층) 세계불교 법왕청 사무국 / 문의처 011-229-6061. 010-7487-7090. 010-4467-9600

교계 신문, '포교 · 비판' 정체성 확립해야

김두식 차장, '불교계 신문 실태' 논문 발표

〈한국불교학〉 제82집에 게재
2002년보다 회사 경영 악화
기자는 줄고, 업무 강도 높아
연령 고령화 · 재교육도 축소돼
교계 신문 대형화 · 기금 조성
기자들 처우 개선 우선돼야

불교계 신문 발전을 위해서는 불교 포교와 비판 기능이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해야 하며, 기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직 불교계 기자였던 김두식 iMBC 마케팅사업팀 차장(동국대 신문방송학과 박사 수료)은 한국불교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불교학〉 제82집에 발표한 연구 논문 '불교계 신문의 실태와 발전 방향'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차장은 발표 논문에서 2002년 자신이 조사했던 불교계 신문 기자들의 보도체계, 전문성, 재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을 2016년 다시 조사해 비교 · 분석했다. 약 14년 사이 불교계 언론 환경은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김 차장에 따르면 2002년 조사 당시에는 편집 · 사진기자 등을 제외하고도 75명이 취재 기자로 활동했지만, 2016년 조사에서는 59명으로 인력이 줄었다. 취재 인력도 고령화됐다. 30세 미만 기자가 2002년에는 25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3명에 불과했다. 반면 35세 이상 기자는 2002년에는 19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47명으로 늘었다.

취재 인력이 줄었지만, 업무 강도는 강해졌다. 2002년 당시에는 주간 20~30매(29.3%), 30~40매(25.3%)를 작성하는 기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2016년에 들어서면 40~50매(32.2%), 50매 이상(22%)을 작성하는 기자들이 많아졌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불교계 신문들이 지면을 늘리는 등 외형적 성장과 인터넷 신문의 발달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면서도 "10여 년 사이에 기자들의 기사 작성 정도가 많아졌다는 것은 기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졌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취재 과정에서 미치는 사내 · 외부 영향력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났다. 2002년 조사에서 기자들은 사내 영향력 행사 주체에 대해 '자신의 언론관(41.3%)'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2016년에는 '데스크(33.9%)'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외부 영향력도 마찬가지였다. 2002년 기자들은 '독자(34.7%)'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2016년에는 '없다(30.5%)'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하지만, 10여 년 전에는 12% 였던 '조계종 등 제종단'의 영향력이 현재는 27.1%로 증가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한다.

김 차장은 "2016년에는 더 열악해진 경영 환경으로 소유주인 제종단이나 스님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데스크 등에 대한 압박은 물론 해고 등에 대한 노출이 커지는 등 기자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자들의 재교육 역시 회사나 협회, 기관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당시 재교육을 받았던 기자는 56%에 달했지만, 2016년에는 30.5%로 떨어졌다. 재교육 주최도 개인 비율이 21%에서 38%로 급증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김 차장은 불교계 신문 발전 방안으로 △불교계 신문 대형화 및 기금 조성 △불교계 신문 정체성 확립 △신문 감시 · 견제 기구 설립 및 시민 수용자 운동 △신문 · 방송 매체 등 기자에 대한 재교육 상시화 등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불교계에서도 언론 발전기금과 같은 특수 목적 자금을 형성해 불교 언론인의 상시 재교육과 해외 연수 등 기자 자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는 불교 언론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포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국사 석가탑 해체 · 수리를 기록하다

국립문화재硏,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보고서〉 발간

5년간 수리 과정 담아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된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국보 제21호)의 해체 수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는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의 해체 수리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총 2권으로 구성된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보고서〉에는 불국사 삼층석탑 해체수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권에는 불국사 연혁, 사업현황, 조사연구, 해체 · 조립과 보존처리 과정을 비롯해,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인 파손부재 구조보강, 무기질 재료를 활용한 보수 방법을 자세히 수록했다.

2권에는 수리 전 · 후의 석탑 도면, 보존처리 자료, 수습유물 관련 자료 등을 담았다.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은 경주 불국사 다보탑(국보 제20호)과 함께 불국사를 대표하는 석탑으로, 742년 불국사가 창건될 때 같이 건립되었다. 신라계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1층 탑신석은 무게가 약 8톤으로 국내 석탑 중 가장 크다.

2010년 정기점검을 하다가 탑의 북동측 상층기단 덮개석에서 구조적 균열(길이 1,320㎜, 최대 폭 5㎜)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석탑을 전면 해체수리하기로 하고, 균열 원인에 대한 조사 · 분석에 들어갔다. 이후 2012년에 가설 덧집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체수리를 시작해 지난해 해체 · 조립 작업을 마무리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9월 경주지역에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을 겪으면서도 석탑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도 검증됐다"면서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가 석탑과 같은 석조문화재의 수리 방법론을 제시하는 기술자료로써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보고서는 전국의 주요 도서관, 연구기관, 문화재수리 관련 업체, 관공서 등에 배포하며, 연구소 홈페이지에도 공유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 아동문학 발전위해 전문가들 머리 맞댄다

불교아동문학회, 28일 학술대회

불교 아동문학 발전을 위해 출재가 전문가와 학자들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이창규)는 오는 7월 28일 충남 아산 보문사서 '불교 아동문학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본지 연재 중인 신현득 동화작가가 '아미타경의 동화성 연구'를 주제 발표하며, 법공 스님(보문사) · 유한준 시인 · 남진원 강원아동문학회장, 임신행 동화작가, 곽영석 찬불가제정위 사무총장, 이계섭 음성동요학교장, 오해균 세광음반 대표가 주제별 토론자로 참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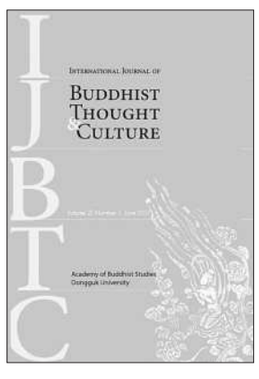
이창규 한국불교아동문학회장은 "평화와 사랑을 염원하는 불교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과 함께 함으로서 더욱 빛을 발한다"면서 "문학회원들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부처님 말씀을 동시와 동화로 연구하며 소통하려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사본 최신 연구 결과 '한눈에'

동국대 불교학술원 〈IJBTC〉 27권 1호 발행

뮌헨대 등 저명학자 논문 수록
불교사본 연구 중요성 상기해



불교사본에 대한 세계 불교학계의 최신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영문 국제저널이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불교학 국제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이하 IJBTC) · 사진〉 27권 1호 6월 30일 발행했다"고 7월 19일 밝혔다. 발간주체가 불교학술원으로 발행 이관된 이후 세 번째 출판이다.

이번에 발행된 〈IJBTC〉에는 '불교사본 연구의 최신 결과(Recent Results of Buddhist Manuscript Research)를 주제로 한 특집논문 4편과 연구논문 4편, 그리고 서평 2편 등이 게재됐다.

이번 저널에 참여한 독일,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집필자들은 해당 국가의 역사, 철학, 불교학의 명문인 괴팅겐대, 뮌헨대, 콜롬비아대, 고마자와대, 국립대만대, 중국 인민대 소속 대표연구자들이다. 국내에서는 연세대 소속 연구자의 서평이 게재됐다.

특집 주제인 '불교사본 연구의 최신 결과'에 대해 불교학술원은 "근대 불교학에서 문헌학은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주목받아 왔다. 문헌학을 토대로 수많은 불교학자들이 불교의 사상과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기 때문"이라며 "불교사본은 사상과 역사의 공백을 채우기도 하고 때론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는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이번 특집은 불교사본 연구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집논문 외에도 대승불교의 공과 해탈론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동아시아 불교 맥락에서 바라본 화엄과 선에 대한 연구, 인지과학이 자연주의적 입장에서 불교를 설명하는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원효의 열반종요에 나타난 무정중생의 불성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논문들이 게재됐다.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은 "이번 호에 실린 모든 논문과 서평들이 불교학의 지평을 넓히고 사회와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불교전문 국제저널인 〈IJBTC〉는 한국불교 국제화와 불교학의 학제적 연구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0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KCI)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2년 창립된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IABTC)가 25권까지 발행을 주관해오다 세계적인 학술지로 도약하고자 동국대 불교학술원으로 발행을 이관했다.

현재, 인도 · 미국 · 태국 · 대만 · 캐나다 · 노르웨이 · 영국 · 덴마크 · 몽골 등 9개국의 해외 학자가 편집위원으로 참가하며 연2회(6월, 12월) 발간된다.

신성민 기자

인문 고전, 원문으로 만나고 싶다면

월정사, 탄허강숙 2학기 강좌 개설

불교와 동양 인문 고전을 전통 강원식 교육으로 접할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오는 9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서울 종로 두산위브 파빌리온 634호에서 '탄허강숙 2학기 강좌'를 진행한다.

강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7~9시까지 열린다. 강사로는 석지현 스님,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가 참여해 〈벽암록〉, 〈노자 도덕경〉, 〈삼국유사〉, 〈서장〉을 각각 강의한다.

강의 접수는 민족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8월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과목당 20만 원. 4개 강좌 모두 수강 시에는 50만 원이다. 강의 인원은 25~30명, 선착순 마감된다. (02)732-2403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학' 제83집 8월7일 원고마감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가 〈한국불교학〉 제83집 원고를 모집한다.

한국불교학회는 (가칭)한국불교학술단체연합회 회의를 통해 제정한 '각주 및 참고문헌 형식 통일안'에 따라 원고 작성을 요청했다. 간행일은 9월30일자이며, 원고 마감은 8월7일까지다.

한국불교학회는 잼스(https://kabs.jams.or.kr/co/main/jmMain.kci)를 통해서도 원고를 접수한다.

신성민 기자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 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 선착순 예약 주문하시는 사찰 10곳에 한해 무선 마이크 및 CD기(65만 상당)를 무료 보시합니다.

추가 설치 및 보시 품목

① 대출력 800 왓트 파워드 믹싱 앰프 (자체 USB탑제)	1대
② 입력 450W 대출력 용 스피커	1조
③ 무선 마이크	1대 (무료보시)
④ 최고급 CD기(5개 연속 사용)	1대 (무료보시)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거짓 깨달음으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깨달음은 참사람의 완성을 의미한다. 자유와 평화 행복인이 되는 것이다. 하여, 깨달은 사람은 생각의 윤회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의혹됨이 없고 걸림이 없으며 속이지도 속지도 않는 사람다운 사람이다. 없으면 없는 대로 꾸미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낮과 밤이 한결같아 숨기거나 감추지 않으며 드러난 진리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를 보여도 열을 보이는 것이요 열을 보여도 하나를 감추지 않는다. 오고 감이 분명하나 집착하지 않고 있고 없음을 헤아리나 분별심에 머물지 않는다. 범부와 성인(聖人)이 둘이 아니나 차별이 없음이요 삶과 죽음이 어우러져 진솔함을 벗어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꾸밈이 없어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요, 희(喜)·노(怒)·애(哀)·락(樂)을 굴릴 줄 알아 아무에게나 착한 벗이다. 상식이 통하는 이웃이요 원칙이 지켜지는 동네 친구이다.

분주히 세력 넓히는 者, 수행승 아냐
꾸밈없이 진솔히 살아야 진정한 비구

눈물이 있어 마음 나누는 형제자매이고 웃음이 있어 가슴을 덮여주는 마음 편한 동무이다. 꾸미지 않는 자연이요, 머묾이 없는 바람이다. 따지며 계산하지 않고 흉보며 멀리하지 않는다. 변명으로 드러내지 않고 디딤돌로 돋보이려 키를 키우지 않는다. 감투와 명예를 멀리하고 조직과 편 가르는 일에도 졸업한지 오래이다.

모으고 챙기며 쌓아두려는 사람은 수행인이 아닌 업덩이 중생이요, 명분과 실리(實利)를 앞세워 조직 관리하는 사람은 수행인이 아닌 머저리의 무리이다. 소위, 자칭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돈과 명예, 감투를 구걸하듯 세력을 넓히는 부끄러운 짓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는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얼굴 두터운 흑암(黑暗)의 무리일터.

깨닫기 이전과 깨달은 이후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꾸미는 법문 내용과 위세를 떨치며 신도 늘리는 계산된 언행으로 수입 키우고 명예 높이는 일일터.

자유는 커녕 돋보이려는 꾸밈과 허세를 생활화 하며 신도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으로 큰 사찰에 대중공양을 앞세우며 구걸하듯 동조세력을 넓히는 것이 깨달은 자의 자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비구는 걸사(乞士)이다. 비구가 몸에 걸치는 가사는 원래 분소의(糞掃衣)에서 출발한다. 출가(出家) 이전의 생활과 견주어 출가 이후의 생활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넘쳐나는 물질적 풍요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깨닫기 이전의 구도자의 청빈한 생활과 깨달은 이후의 흥청망청 넘치는 풍요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괘도를 이탈한 행위 자체에도 회초리를 맞을 일이지만 겨우 실눈을 뜨고 확철대오한 개안종사(開眼宗師) 인양 자신도 남도 속이는 나날의 죄업(罪業)이 죽음 문턱에 이르러 뼈를 녹이는 고통으로 다가올 터이다.

수행승은 진솔하고 순수해야한다. 깨달음을 향해 게으름 없이 꾸준히 노력하고 가난과 검소함이 생활화 되어야한다.

수행승은 진제불교(眞諦佛敎)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가 점검을 소홀이 해서는 안 될 터이다. 목탁불교, 치마불교, 재 문화 불교로 신앙을 거래하는 듯한 부끄러운 풍토에 안주(安住)해서는 안 될 터이다, 그렇다고 세제불교(世諦佛敎)가 격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수행자라면 법(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꾸준한 탁마와 열림을 스승으로 삼아야한다.

거듭 밝히지만 수행승은 수행승다워야 수행승이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할 줄 알고 없으면 없는 대로 꾸밈이 없이 진솔하게 받아들이며 고마워하며 살 일이다.

출가(出家)할 때의 순수했던 초발심(初發心)으로 드러내거나 돋보이려 꾸미지 말고 한 서너 걸음 뒤로 물러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헐떡임에서 제발 자유인으로 살 일이다.

분주하게 조직을 키워가거나 세력을 넓히는 일은 수행승의 자세는 아닐 터이다. 깨달음은 참사람이요 행복과 자유를 완성하는 것이다. 거짓 깨달음으로 업덩이 중생이 되지 말 일이다.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선종사에 특이한 인연을 소재로 한 특이한 화두가 하나 전해진다.

4조 도신 선사와 그의 제자 우두 법융(牛頭法融:594~657) 선사 사이에 있었던 일화에서 생긴 화두다.

특이한 인연이란 보통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하는데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 깨우쳤다는 것이고, 특이한 화두는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새가 꽃을 물어다 주었는데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법융 선사가 우두산 유서사(幽棲寺) 남쪽에 별도의 선실을 짓고 깊은 선정을 닦고 있을 때 도신 선사가 소문을 듣고 유서사를 찾아왔다. 도신 선사가 유서사의 한 스님에게 물었다.

"이 절에 도인이 있는가?" 스님이 답하기를 "출가한 스님이라면 누군들 도인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도신 선사가 누가 도인이냐고 다시 물었다. 이때 다른 한 스님이 말했다.

"이 산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나융(懶融:법융 선사의 별명)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사람을 보아도 일어나지 않고 합장하여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혹 도인이 아닐까요?"

이 말을 듣고 도신 선사가 법융 선사를 찾아갔다.

도신 선사가 좌선하고 있는 법융 선사에게 물었다.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가?"

"마음을 관하고 있소."

"관하는 자는 누구며 마음이란 어떤 물건인가?"

누가 와도 일어나 인사하는 법이 없던 법융 선사가 이때 비로소 일어나 합장하고 도신 선사를 맞이하였다.

법융 선사의 수행처에는 호랑이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이를 본 도신 선사가 손을 흔들어 겁먹은 시늉을 했다. 우두 선사가 겁내지 말라 하면서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도신 선사가 "지금 무엇을 보았는가?" 하고 물자 법융 선사가 대답을 못하였다. 도신 선사가 돌 위에 불(佛)자를 쓰고 그 위에 앉자 법융 선사가 이를 보고 매우 송구해 하였다. 도신 선사가 "아직 그런 것이 남아 있는가?"하고 묻자 법융 선사가 또 대답을 못하였다. 법융 선사는 도신 선사에게 참된 법을 청하였다. 도신 선사가 말했다.

"백 가지 법문이 모두 마음에 있고, 항하의 모래알 같은 공덕이 모두 마음에 근원이 있다. 온갖 번뇌와 업장이 본래 공적하며, 모든 인과(因果)가 죄다 꿈과 같다. 삼계를 벗어날 것도 없고 깨달음을 구할 것도 없다. 다른 법이 없으니 그대는 그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라. 관행(觀行)을 하려 하지도 말고 마음을 정화하려고도 하지 말라. 탐욕과 성냄을 일으키지도 말고 근심 걱정도 하지 말라. 선을 짓지도 말고악을 짓지도 말라. 행(行)·주(住)·좌(坐)·와(臥)에 보고 만나는 모든 일이 모두 부처의 미묘한 작용으로 진정 즐거워함도 근심함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 하는 것이다."

법융 선사가 다시 물었다.

"관행을 하지 말라 하시면 경계가 일어날 때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경계라는 인연은 좋고 나쁨이 없지만 좋고 나쁨이 마음에서 일어나니 마음이 억지로 이름 짓지 않으면 허망한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리오. 다만 마음에 맡기어 자유롭게 하여 더 이상 다스리려 하지 않으면 그것을 변함없는 상주법신(常住法身)이라 한다."

법융 선사는 이 법문을 듣고 깨달은 후 세상으로 나와 법을 펴기 시작했다.

〈경덕전등록〉에 수록된 〈법융전〉에 의하면 유교의 경전과 역사서를 통달한 법융 선사가 어느 날 〈반야경〉을 보다가 진공의 도리를 깨닫고 감탄하여 유도와 세속의 전적이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출가를 결행하였다고 하였다.

처음 삼론종으로 출가했다가 유서사에 들어가 본격적인 선정을 닦았다.

도신 선사가 법융 선사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먼저 홍인 대사에게 법을 전했기 때문에 후대에 와서 법융 선사를 도신 선사의 방계(傍系)로 취급하지만 법융 선사의 선법을 우두종(牛頭宗)이라 하였으며, 그 종지의 특색을 무심합도문(無心合道門)이라 하였다.

우두종의 법맥도 6대에 걸쳐 이어진 것으로 나온다. 법융 선사 당시에는 홍인 선사의 법을 동산종 혹은 '동산법문(東山法門)'이라 하고 법융 선사의 법을 우두종 혹은 '무심법문'이라 하여 최초의 선종의 갈래가 이때부터 생겼다고 보기도 한다.

누구를 위해 보시 하는가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③보시가 주는 공덕

功德勝品第十六

有人等以財物施一福田。心不同故得報有種種。有得三有樂者。有得寂滅樂者。有得利他樂者。思願勝故得報不同。以愛心作福者受報時愚闇。悲心修福者受果時得於智慧。不敗壞菩提心為饒益眾生作福者。當知此福為福中最勝。其餘修福名相似福非第一福。修一味智慧。當知此福為最第一。饒益世間故三寶種不斷。知業知果知歸依佛慈悲。計我行福如行惡者甚可 愧。善丈夫者見人天世間無救。終不為己修福。生死中苦尚不可聞。況復眼見。眾生受身極可患厭。云何為我修福作業悲者所不能作。一 那頃不離悲心為眾生親友。云何為我作福。

번역 | 공덕승품 제16

어떤 사람이 하나의 복전(福田)에 보시함에 마음이 같지 않아 과보 얻음도 가지가지 있으나, 세 가지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적멸의 즐거움을 얻고, 남을 즐겁게 함을 얻고, 생각과 원력의 수승한 과보를 얻되 같지는 않습니다. 애착심으로 복을 짓는 이는 때에 따라 어리석은 과보를 받고, 자비심으로 복을 닦은 이는 때에 따라 지혜의 과보를 받기 때문입니다. 보리심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중생이 이익 되게 복을 짓는 이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복이 복 중에 가장 수승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복을 닦는다고 하지만 이름과 모습만 복과 비슷하지 제일가는 복은 아닙니다. 한 맛의 지혜를 닦되 이 복이 최고의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익 되도록 하기에 삼보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으며 업을 알고, 과를 알고, 부처님의 자비에 귀의할 줄 압니다. 나를 위해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이와 같아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선한 대장부는 사람과 하늘과 세상을 봐도 구제될 것이 없어 끝내 자신을 위해 복을 닦지 않습니다. 생사 가운데 고통도 들을 수 없거늘 하물며 눈으로 보는 것이겠습니까. 중생의 몸 받는 것을 싫어하되 어찌 나를 위해 복을 닦고 업을 지으면서 자비심을 짓지는 않는지요. 한 찰나 간에도 자비심을 떠나지 않아야 중생의 친구라 할 것이니, 어찌 나를 위해 복을 짓겠습니까.

해설 | 이제 불교를 믿는 초심자와 불교 공부를 제법 한 불자의 마음 쓰는 차이를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다. 처음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오로지 자신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는 게 대부분이다.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부터 대학 입학시험 합격을 기원하고, 취직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득남을 바라고 가족 건강을 기원한다. 이런 기도가 잘못이라는 건 아니다. 다만, 기도하고 소원을 이루는 것을 주고받는 대가처럼 여긴다는 점이다. 기도비를 줬으니 스님은 기도를 해주어야 하고, 보시를 하며 부처님께 백팔배를 하거나 천배를 했으니 소원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심자는 사찰에 발걸음을 끊기도 한다.

이제 불교대학도 다니고 경전도 읽게 되면 기도의 방법이 조금 바뀐다. 기도란 탐욕심에 얽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일이 된다. 선한 업을 지어야 선한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도에 얽매여 울고 웃는 일은 점점 줄어든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된다.

그런데, 제바보살은 여기서 더 나아가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 내기를 역설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심에서 성숙한 지혜의 신심으로 거듭나는 길을 간절히 제시한다.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사)한국불교조계종 종단 통일가사 점안법회 봉행

한국불교조계종은 미래불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종단개혁과 혁신으로 불교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한국불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정법수행을 일으켜 세우고 법계일탈이 만연하여 해체된 승가공동체 구현과 대중공의와 종도주권의 실현을 위해 종단의 체질을 최근 새롭게 바꾸고 종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종도들이 다함께 원융회통을 통해 종단 법인설립 이래 최초로 전통 점안의례 통일가사 점안을 봉행하여 한국불교조계종의 승려 의제를 통일하고 법계제도를 새롭게정착 조계종 정체성 확립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전법의 혁신과 종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로 종단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분열과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소외된 종도가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창의적인 종무행정을 공평무사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종도들이 환골탈퇴하는 개혁을 통해 기계를 닮아가는 메마른 사회의 풍토에 깨달음의 영혼을 불어넣고 있는 종풍쇄신 운동을 진작시키고 있습니다.제방의 대덕큰스님과 전국에 계신 종도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 1일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법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FAX : 02)720-8271 H.P : 010-5432-0108(총무원장 운산), 010-4167-3666(사무총장 도광)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불국토 건설 위해 1만3천 천태불자 운집

천태종 삼광사, 7월 15일 '국민화합 행복기원' 대법회 봉행

단양 구인사로 280여대 버스 향해
6월 24일 입재 철야기도 회향 자리
불국토 건설, 대승보살도 궁극 목표
불자들, 신심의 향연 "환희심 넘쳐"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7월 15일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 앞마당에서 '국민화합 행복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1만3000 천태불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280여개의 대형 버스가 단양 구인사를 향해 줄을 이었다. 국민들의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는 법회를 위해서다. 세찬 빗줄기도, 노구(老軀)의 고단함도 부처님을 향한 신심을 막진 못했다. 부처님께 올리는 서원의 간절함이 만든 대이동이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세운)는 7월 15일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 앞마당에서 '국민화합 행복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윤달을 맞아 지난 6월 24일 입재한 3·7일 신중불공 및 참회정진특별철야기도의 회향 자리였다. 기도에 참여한 삼광사 신도 3000여명은 약 한 달 동안 국민의 행복과 화합을 발원했다.

7월 14일 마지막 철야정진기도가 끝난 직후 15일 새벽, 버스를 타고 구인사에 도착한 불자들은 환희심에 가득한 모습이었다. 대법회는 △삼귀의 △ 반야심경 △ 법어봉독 △ 국운융창기원 △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개회사 △ 도용 종정 스님 법문 △ 총무원장 춘광 스님의 치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필희(57) 씨는 "기도하는 동안 개인을 벗어나 도반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마지막 회향 날에는 국민 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저 자신을 보며 환희심이 났다"며 "불국토 건설을 말씀 하시는 주지 스님의 말씀에 정말 불국토를 이룬 듯 행복하고 피곤한지도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차가 움직이는데 작은 사고조차 없었다.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정상갑(80) 씨는 "기도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스님들이 지도해주시고 도와주셨다"며 "정말 신심 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 의장 도원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을 비롯해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참여해 기도를 원만회향한 불자들을 격려했다.

종정 도용 스님은 "청정한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화합하여 하나가 되니 아름답다"며 "남을 배려하고 늘 베푸는 마음이 자비로운 보살 수행이다. 깨달음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 보시바라밀이 제일 바라밀이며 베풀며 정진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설법했다.

이어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오늘 우리는 개인과 가정, 나아가 국가와 인류의 화합을 기원하며, 그 원력이 우주 만생의 평화와 행복으로 회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석을 마련했다"며 "이 장엄한 발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와 겸허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공동의 선을 실현하고 공동의 행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은 "오늘 이 법회는 개인의 완성과 불국토 건설이라는 대승불교의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고 그 공덕으로 우주법계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고 봉행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삼광사는 천태종 복지성금 5,000만원과 장학성금 5,000만원을 총무원에 전달했으며 자비의 쌀 5000kg을 단양군청에 기부했다.

하성미 기자

영호남 청소년들 "지역감정 없는 밝은 사회 일궈요"

맑고향기롭게 부산, 제12회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개최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이 '제12회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을 7월 14~15일 신라대학교 및 삼정 더파크 동물원 일대에서 개최했다.

부산과 호남의 정겨운 사투리가 오가는 속, 청소년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어색했던 첫 만남도 잠시 지역 갈등은 온데간데없이 화합을 꿈꾸는 희망의 웃음만 피어났다.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은 '제12회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을 7월 14~15일 신라대학교 및 삼정 더파크 동물원 일대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여수중앙여고 1학년 여학생 119명과 부산진여고 1학년 여학생 110명 등 총 229명이 참가했다. 14일 방문 첫 모임에서 신라대 백양생활관에 모인 학생들은 간단한 자기소개 후 여러 게임으로 친분을 쌓았다. 이어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출범식은 △인사말 △축사 △환영사 △양교 교장선생님 인사말 및 학생대표 인사말 △기념품 전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 됐다. 다음 날 학생들은 삼정 더파크 동물원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을 이끄는 박수관 회장의 의지로 시작됐다. 정치인과 기성세대가 남긴 지역감정이란 부정적 유산을 후손에게 전하지 말아야한다는 결심에서다. 지난 11회 동안 2,800여명의 영호남 학생들이 소통했으며 프로그램 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다. 여름방학을 전후해 영호남을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동서 화합은 작은 시작에서 일궈진다"며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듯 교류가 계속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민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짧은 일정 속에 좋은 추억으로 인연이 지속되길 바란다"며 "활기찬 이 모습이 곧 한국의 미래"라고 축사했다.

김욱수 부산진여고 교장은 "함께 지낸 시간은 가까워질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하나 되고 벽을 허무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여수중앙여고 이재윤 교감은 "청소년에게는 처음부터 마음의 벽은 존재 하지 않았다"며 "이런 만남이 기성세대에게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시작했던 이 모임이 이렇게 발전해 꾸준히 진행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맑은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성미 기자

몽골 청소년 '도전 골든벨'을 울리다

한나래문화재단, 제6회 도전 골든벨 진행



(사)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은 7월 11~14일 몽골 아르와이헤르에 위치한 제1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6회 도전 골든벨'을 진행했다.〈사진〉

문제는 기본 상식과 한국전통문화 관련된 것이었다. 모든 문제를 통과해 골든벨을 울린 학생에게는 한국방문 기회가 주어졌다. 우승자는 이례적으로 2명이 나왔다. 우승자 2명은 50문제를 끝까지 문제를 풀고 추가 10문제도 모두 맞춰 큰 박수를 받았다. 학생 2명과 지도교사 1명은 올해 12월 혹은 내년 1월 중 한나래문화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방문 기간 동안 이들은 서울 및 부산에 위치한 전통문화 관광지 및 사찰을 탐방하고 템플 스테이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행 경비는 한나래문화재단이 후원한다.

한편 몽골 아르와이헤르 시는 한나래문화재단에게 50년 동안 무상으로 땅을 기증했다. 한나래문화재단은 땅에 공원을 조성하고 명칭을 '한국의 공원'이라 정했다. 한나래문화재단은 앞으로 이 공원에 한국문화원 설립 및 문화 체험 사업 추진을 구상 중이다. 하성미 기자

"금강경, 영가 집착 끊고 고통 해소 시켜"

미타선원 금강경 산림법회 입재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종호)은 7월 16일 백중(우란분절) 금강경 산림법회 입재법회를 경내 극락보전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번 백중을 맞아 미타선원은 특별히 산림법회를 봉행하고 조계종 원로의원 지하 스님,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등 전국 대덕 스님을 초대해 법석을 진행한다. 법회는 매주 일요일이며 회향은 백중인 9월 5일이다.

법문을 맡은 하림 스님은 "영가를 위해 매일 집중적으로 금강경을 들려드리는 것은 집착을 끊고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라며 "신도님들도 일상 가운데 매일 한품씩 읽으며 마음에 새겨 마음에 등불을 켜듯 지혜를 얻는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설법했다.

미타선원은 백중 49일 기도 기간 동안 '조상님과 영가님께 편지쓰기'를 진행한다.

하성미 기자

사하구불교聯, 안전한 여름 위한 캠페인

7월 14일 다대포해수욕장 방문



부산 사하구불교연합회가 안전한 여름을 당부하며 치안 센터를 방문해 격려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혜우)는 7월 14일 다대포해수욕장과 해변공원에서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진〉 이 자리에는 경승 스님 및 연합회 원윈 스님 그리고 신도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인물을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배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 사하구불교연합회는 8월 31일까지 일주일에 2차례 이상 해수욕장을 방문해 선도활동 및 안전 캠페인을 펼친다.

사하구불교연합회장 혜우 스님은 "캠페인을 통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휴가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앞으로 사회 활동에 더욱 앞장서 좋은 사회 만드는 일에 일조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호국성지서 선열의 얼 느낀다

정읍 내장사, 호국성지 탐방 등 인기 높아

정읍 내장사(주지 도완)가 실시하는 다도체험과 호국성지 탐방 프로그램이 지역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장사는 문화재청이 주관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하고 있는 '천년 선사들 숨결 따라 이어온 다도체험과 호국성지 탐방'을 지난 4월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


내장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도체험을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도체험과 전통자연발효차 만들기, 호국성지 탐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정읍지역에서 생산된 자생차를 활용한 발효차 만들기는 3개월간 진행됐으며, 500여 명이 신청해 전통제다법을 익혔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발효차는 내장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이 직접 차 명상프로그램을 지도한다. 1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산사의 전통 다도체험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기획됐다. 이외에 호국성지 탐방도 10월까지 계속된다. 지역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호국성지 탐방은 각급 학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조선왕조실록보존터인 용굴 등 성지를 탐방하면서 호국선열들의 얼을 기리고 호국 문화재 의미를 되새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꽃 둘러싸인 오감만족 문화축제

우리문화연구원, 전주 덕진공원서 연꽃문화제

기습적인 폭우에 이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전북지역에서 무더위를 날리는 연꽃문화제가 개최됐다.

(사)우리문화연구원(이사장 성우)은 7월 15~16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전주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연화장 세계처럼 펼쳐진 연꽃 향연 속에 펼쳐진 문화제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틀간 펼쳐진 연꽃문화제에는 약 3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꽃 노래자랑과 시니어밴드의 공연, 난타공연, 성악 등이 연달아 펼쳐졌고, 투호와 굴렁쇠 굴리기, 불교 OX 퀴즈대회도 각광을 받았다. 체험부스에서는 사경, 풍선아트, 염주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이 진행됐다. 또 전북지역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교합창단이 총 출연하는 연합합창제도 거행됐다.

성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연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불교의 상징"이라며 "시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도 연꽃과 같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문빈정사, 대웅전 기와불사 회향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선)는 7월 19일 기존 허름한 건물에 대한 보수와 함께 대웅전 기와를 새로 조성한 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회향식에는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김성환 동구청장, 이범식 광주불교연합신도회장 등 3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했다.

회향을 맞은 주지 법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30여 년 만에 대웅전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이 자리에 오니 행복감과 안도감을 느낀다. 기와가 떨어지고 비가 새는 대웅전, 붕괴직전까지 간 종루와 종무소였지만 무사히 공사를 마치게 돼 부처님과 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은 법문에서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기에 중생이 하는 일은 다 불사라고 할 수 있다. 조금 일이 늦어지고 잘 안 되더라도 마음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하면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실한 마음 담아 가사공양을…

화엄사, 4개월 동안 신도들과 가사 조성

스님들에게 공양 올릴 가사(袈裟)를 화엄사 신도들이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조성하고 있어 화제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7월 19일부터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에 재적 중인 300여 스님에게 공양할 가사를 조성하고 있다. 오는 11월 19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는 불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통가사의 복원과 신도들이 직접 가사조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화엄사성보박물관은 박춘화 한복명장의 지도아래 매주 수요일 범음료에서 '부처님의 옷을 짓다'라는 주제로 바느질 교실을 열고, 손바느질로 가사를 직접 지어보는 강좌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춘화 명장은 "신도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가사를 인연 있는 스님들이 수하고, 정법을 널리 펴시길 기원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강좌 최연소 참가자 박유림 양(15)은 "평소 바느질을 좋아해서 엄마와 함께 참여하게 됐다. 몸은 조금 힘들지만 공기 좋고 계곡물 맑은 곳에서 신심을 북돋는 일을 해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말했다.


화엄사 스님들에게 공양 올릴 가사를 직접 조성하기 위해 강좌를 수강하는 신도들 모습에서 깊은 신심이 묻어난다.

강좌는 지난달 21일 시작해 11월 15일까지 진행되며, 11월 19일 스님들에게 가사를 올리는 의식인 '화엄사 공승재' 행사를 통해 스님들에게 공양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가사불사에는 조선시대 맥을 이어온 금란가사도 전문가들에 의해 복원 조성될 예정이어서 의미가 깊다.

가사불사 조성이 시작된 19일에는 국내 최고의 의상복식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시아민족조형학회 회원들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한 3사 7증사 스님들에게 올릴 가사 조성에 나섰다. 아시아민족조형학회는 지난 2015년부터 전통가사에 대한 특강과 실기를 통해 조선중기 이후 가사를 복원한 작품을 화엄사 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화엄사성보박물관장 대진 스님은 "이번 가사불사는 화엄사의 모든 스님들에게 예경의 마음을 담아 올리는 것이다. 특히 종정예하와 3사 7증사 스님의 금란가사는 아시아민족조형학회의 최고의 명장들이 옛 복식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민족조형학회 회원들은 9조, 25조, 그리고 첨상가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번 가사불사 중 금란가사를 복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화엄사성보박물관은 가사불사를 기념해 화엄사에서 보관 중인 서산대사, 각성대사의 가사와 더불어 아시아민족조형학회에서 기증한 가사를 중심으로 가사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4개월간 조성된 가사는 11월 19일 화엄사 화엄료에서 개최되는 공승재에서 300여 스님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외국인불자들의 거리 청소 '훈훈'

완주 둔산공원 일대서 50여 근로자들 동참해

전북 완주 국가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불교국가 출신 근로자들이 거리 청소에 나서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완주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좋은이웃(대표 정용기)은 7월 16일 완주군 봉동읍 둔산공원 일대서 공원 및 거리 청소봉사에 나섰다. 이날 봉사에는 불교국가인 네팔,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출신 근로자 50여 명이 동참해 쓰레기를 주우며 거리를 청소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휴식공간인 둔산공원과 근로복지공단 주차장 일대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캔 등을 깨끗이 수거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시간 여에 걸친 청소를 마친 근로자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봉동읍 일대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공원 등을 찾아 청소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완주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불교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

정용기 대표는 "매년 지역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의 후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잔치 한마당과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움을 받고 있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도 선뜻 동의해 매월 정기적으로 거리 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둔산공원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던 김성원 씨(67)는 "더위를 식히려 둔산공원에 매일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이 청소를 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힘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일도 반납하고 거리청소에 나서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칭찬했다.

거리 청소에 동참한 리쁙반타 씨(30)는 "많은 한국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며 "크게 힘든 일이 아닌데도 주민들이 격려해주니 기분이 좋다"고 말하며 활짝 웃어보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금산사 생전예수재 회향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7월 17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정유년 생전예수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지난달 18일 입재해 한 달간 봉행된 생전예수재는 성우 스님을 비롯한 금산사 대중스님들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불자 300여 명이 동참해 삼업을 참회하고 내생에 성불할 것을 다짐하는 의식으로 진행됐다.

성우 스님은 입재법문을 통해 "생전예수재는 진실한 마음으로 생전의 삼업을 참회하고 내생에 무량공덕 인연으로 성불할 것을 다짐하는 엄숙한 불교전통"이라며 "성불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참회와 정진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백련사 창건법회 봉행

광주 남구에 자리 잡은 백련사가 창건법회를 열고, 지역포교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남구 행암동에 위치한 백련사(주지 도요)는 7월 15일 창건법회를 봉행, 지역 불자들을 위한 기도와 법회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사진〉

순천 송광사 말사로 등록된 백련사는 행암동 일대 100여 평 대지에 대웅전과 요사채를 갖추고, 인근 새로 개발되는 효천지구 아파트 단지 포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련사는 기존 원효종의 노스님이 운영하던 사찰을 인수해 새로 조계종 사찰로 개원했다.

개원식에는 송광사 승가대학장 연각 스님을 비롯해 100여 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도요 스님은 "아직 사찰 정비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신도들과 더욱 정진해 지역포교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사찰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년의 혼(魂)을
담은 서각(書刻)불사

소납은 경북 성주 청매암에서 수행 정진하는 정도(正道)스님 입니다.

17년전 해인사 원당암에 주석하셨던 혜암 큰스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천년을 보존하는 목재를 섭씨 60도에서 2년간 염장처리하고 8년간 자연 건조한 목재 200여장을 준비하여 시절 인연을 기다립니다.

반야심경(般若心經)108분의 서체가 필요합니다. 서체와 성별, 국적, 종교도 무관합니다.
감동과 원력이 담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원본은 돌려드리고, 영인본으로 서각하여 108편이 완성되면 박물관 또는 수장고에 기증하여 천년을 보존 하겠습니다.



뜻이 있으신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연 락 처
주 소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4길 36-35 (청매암)
전 화 : 054-932-6917
휴대폰 : 010-3523-1977
청매암 주지 정도 합장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고귀한 님은 만나면 좋고 함께 지내면 언제나 행복하다. 어리석은 자들을 멀리 여의면, 언제나 행복을 얻으리.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재의식, 상용예불
해설 및 소리 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지도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6415-3587
경남 진주 여여불음원 강주 법일 자운 합장

명예박사학위
취득할 분
미국령상담. 학과자유
선택. (철학, 문학,
정치학, 대체의학 등)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
070-8844-2030

관 상 (손금)
● 생일만 알면 조상운, 평생운을 알 수 있다
● 스님, 천기누설 특별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 질병, 묘터, 재판, 이혼, 부도, 낙태유산,조상영가, 얼굴만 봐 도 알 수 있다.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사찰행사
010-3653-5151
무상 합장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수바라, 나비춤(작법),
염불,송주북, 정근북, 법고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010-7579-8200
금륜사 대진 합장

석 하 명 리
논리로 푸는 사주 명리학
속성반 (기초부터 통변까지)
명리 진로적성 상담사 1급 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010-2643-5685
부산경남지역 설운 합장

효 림 불 교
모든 불교 용품
철거 및 법당정리
010-7538-3859
010-3403-1078
대표 임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 테라피
(우주기에너지) 1,2,3단계
인상학, 타로, 파동
성명학 모집합니다
010-6284-6172
문자 부터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 바로 상담가능(책임지도)
– 불교 고승비급 전수
– 일반 사주학과는 다름
동국대 불교대학원 졸업 (석사)
010-3936-2295
정광 합장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대불 탱화,개금,석불,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제작
이조불교재활용 센타대표
010-9177-7842

대승불교염불원
(실전염불 완전정복)
• 강의일시 : 2017. 8. 7
(매주 월요일 오후2시 – 4시)
상담전화 010-5934-1766
경북 청송군 진보면 높은베리길 90 원광사

신통 방편력
땅건물가게공장
속히 매매 성취
(좋은 땅도 봐드립니다)
010-2896-6689
광덕 합장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법당 철거 조성
정성을 다 해드립니다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인연
맺어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이원해드립니다. 연락바랍니다
010-2395-3333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054)286-1182

사찰에서 숙식하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운전 대형면허 소지, 65세)
010-6476-6026

심장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스님은 전화 하십시요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사찰 처사
(운전가능)
모십니다
숙식 필수
(50세 이상, 경기도)
010-5264-8312

주지원함
스님이 없는 가난
한 절을 도와 드립
니다. 무보시로
도와 드립니다.
(법납30세, 50대 비구승)
010-2873-81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0-8721-219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 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3310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禪 대한불교조계종 종도모집
가족같은 작은종단입니다
종단의 확장과 천목과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종도스님을 모십니다.
가입서류: 입종신청서, 타종단승려증,
명함사진4매, 등본1통, 입종후 승려증
임명장, 등록증을 드립니다.
남녀, 스님이 되고자 하는분 상담환영,
종단운영에 관심있는스님 문의환영,

曼盤 구성학 비법강의
많은 실전과 경험의 노하우 입니다.
교재용 책을 드립니다.
영반구성학은 문점순간 보입니다.
초보자반은 영반구성학을 배워서
통변을 못 한다면 구성학과 인연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초보반은 쉽고 빠르게 지도 해 드립니다
전문반은 핵심비법을 전수 해 드립니다
입문반 : 90만원, 전문비법반 : 40만원,
같은 연령이 동일한시간에와도 점사는
모두 다릅니다.
기존의 구성 통변방식이 아닙니다.

선대한불교조계종 도경사
주소 : 부산 사하구 대티로 63번길 75-1
오전10:30~11:30 기도시간 전화 : 부산(051)206-3488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개 가장 쉽고 잘 맞는 성명학 강의 강
성명사주학
2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역학 학원으로 명리, 육효 등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는 역학 전문 학원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고 잘 맞는 성명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본 강의를 통하여 이름 속에 감춰진 길흉화복을 통쾌하게 밝혀 드립니다. 이름만으로도 성격, 직업, 가족관계, 신년운세 등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또한 가장 효과적인 개운의 방법!
청록 김건화의 명쾌한 임상 통변으로 본 강의를 들으면 누구나 이름 속에 담긴 운명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그에 맞춰 대박 나는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수강대학 : 대박 나는 이름을 갖고자 하는 모든 성인 및 작명가로 진출 희망자
■ 개강일자 : 2017년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 개강 당일 무료 수강 가능, 자세한 사항 전화 문의
韓國傳統科學아카데미
KOREA TRADITIONAL SCIENCES ACADEMY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길 22(신설동 102-36) 화니빌딩 403호
TEL : 02)929-4646 / H·P : 010-2328-0007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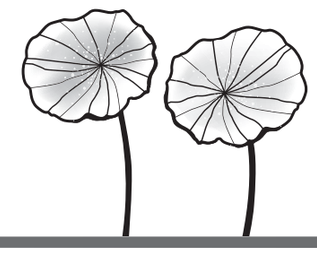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모든 악행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행하라.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 증일아함경 -



서울시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인접
- 토지 137 ㎡ (약41평) 건물 2층 1층요사 2층 법당
- 방4개, 주방, 공양간, 화장실3개 등
- 가액 : 8억 5천만원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양평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 40㎡.슬라브요사채 59㎡ • 토지 1,500㎡
- 뒷편산사찰.전철역 10분. 위치좋음. 급매임
- 양도가액 : 2억 8천만원 (융자 1억 포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 (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경남 의령 사찰 소개합니다.
- 부지 총면적 : 340㎡(103평) • 건물 총면적 : 92㎡(28평)
- 가액 : 2억 3천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 (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중심지 ◎ 위치 : 전남광양
◎ 부지 : 600평 ◎ 면적 : 1,2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30평,차량진입
◎ 요사 : 100평 ◎ 요사 : 40평,경관수려
◎ 양도가 : 협의 ◎ 양도가 : 9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사찰(급)안내
- 제천시내 사찰
- 토지10,000㎡.단청법당.삼성각.요사2채.주차장
- 이동인구많으며 깨끗하고 위치좋음
- 방편상담 최고자리 남향임
- 가액 : 1억5천만(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다용도 주택 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옥천 (다용도 주택)
- 주위편의시설 체육공원, 마트. 관공서, 은행, 전철역,
- 전망 좋음, 대지 257평 건물 40평
- 가액 : 4억 5천 (융자끼고 3억에 입주가능)

010-4234-25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서울시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위치
- 3층 134㎡ (약 40평)
- 방1실 법당 주방 공양간등
- 가액 : 보 5000만 월 150만 시설비 2000만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위치 : 사하구	• 위치 : 서울	• 위치 : 김해
• 대지 : 750평	• 대지 : 120평	• 대지 : 2,0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25평	• 법당 : 3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요사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액 : 25억	• 가액 : 12억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특징 : 대지 약 80평 (종교부지)
- 법당 : 약 26평 (주지실, 삼성각 포함)
- 요사채 : 약 24평 단독종교법인 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010-5626-508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수도권의 위치
- 목조 단청, 전통사찰로써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
-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
- 가액 : 9억

010-5466-3321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사오분거리 부득이한 사정으로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 법당 20평, 관음전 종각 요사채 방10개,공양간,창고,외부화장실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대출 7,500안고 2억 3천 5백만원

010-4628-5699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 173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28평
- 가액 : 1억 8천

010-2376-5411
041-557-7786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차량진입 잘되어있음, 큰도로와 1분거리 근접
- 법당 35평(요사, 종무소, 공양간) 60평
- 임야 4천평, 대지 800평 (수목장 하기 좋은 명당)
- 1,300년된 고목나무 소장하고 있음
- 가액 : 15억(조정가능)

010-4602-9661

사찰 안내 (토굴)
- 위치 : 경북 구미 시내
- 대지75평, 요사채, 법당 40평
- 방3,주방,욕실,화장실2, 창고1, 총평수 248㎡(75), 대문2
- 현재 8년 운영중 스님이 대불사를 하였음
- 스님, 보살, 법사가능
- 가액 : 보증금 1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5858-8604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시 소재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40평(목조,단청,3포7포)
- 요사채:60평,기타:석등
- 산신각:10평(목조, 닷집)
- 가액:10억 5천만원
- 특징:도심인근의 대가람 사찰로 포교와 기도 정진할 도량으로 참 좋습니다.

사찰안내 (포교당)
- 위치 : 창원시 소재
- 부지 : 60평
- 법당:35평(2층, 단청, 칭기와)
- 요사채: 35평(1층 종무소)
- 가액: 3억3천만원
- 특징: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신도 구성이 잘된 포교 도량임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 마천 지리산 둘레길
- 대지 152평, 법당 조립식 약 10평
- 요사채 : 철근콘크리트 25평 2층 팬션형
- 건물 앞 좌우로 물이 흐르는 계곡 경치 좋음
- 기도도량으로 보살님 법사님 환영
- 가액: 2억 1천만원(대출가능)

010-3283-7733

단독 복층 주택 법당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대지 : 192평
- 건물 : 약 45평
- 1층법당,방2,주방,다용도실2,창고 복층 방2, 다용도실 가건물 공양간, 다용도실(신축)
- 가액 : 2억3천5백만원 (대출 6천 포함)

010-2544-484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하천부지 약 100평 (산신각 포함)
- 직접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010-7121-3030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 1동, 칠성각 1동, 산산각1동, 요사체 약40평1동
- 가액 : 3억2천만원(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 부지 : 145평
- 법당 : 요사채,방3개,주방
- 경치 최고 시내 도보 2분
- 가액 : 1억 7천

010-2849-8889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황금동 10분거리
- 법당 약 20평, 주방거실 1, 방2, 세면장, 실내 화장실
- 벽돌조 32평 독채, 건물 개인 등기필
- 남향 교통좋음(2차선 큰길 변)
- 대지 : 공동사용 도지료 1년 35만원
- 가액 : 4천 8백만원

010-7295-125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면적 : 3층 약 40평
- 금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130만원

02)571-9197

일산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 시내대로변 중심가
- 7년째 하던자리
- 확장이전관계로 임대함 3층 40평
- 법당. 방2. 거실. 공양실. 부엌 화장실 2개 단독으로 씀
- 가액 : 보증금 300백, 월40 시설 합1.800백 위치 좋음

010-2847-628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3분거리,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1140평
- 주차장 20대이상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방 7칸), 스님친견실 60평
-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2천만원

010-2498-78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
- 요사채:2채(공양실포함)
- 가액 : 2억7천만원

010-3508-7710

토굴(급)안내
7,500만원 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2-1
- 대지 124평, 건축물 21평, 자연식수
- 도로 전기 한적한 곳 다용도
- 건물수리 완료 검색 또는 현장답사 후 전화주십시요. 귀한물건입니다.

010-8899-8899
010-2641-2641
010-7621-76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로 357번길 73-12
- 평수 : 35평
- 가액 : 2천 5백 (년세 2백만원)

010-3050-29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 한옥 2동 (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262-1005

사찰,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남해군 남면 상가리
- 대지 190여평, 건물 22평, 목조주택
- 산(소나무숲)아래 남향 집
- 전원주택,별장,암자(사찰 사용으로 최적
- 대형 차량진입 가능
- 2016년 건물전체 올수리
- 가액:1억 9천만원

010-3848-2452
010-3831-797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포항 남구 청림동
- 상가 2층, 80평
- 법당, 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시설완비
- 가액: 1억 8천만원

010-2857-2811

울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다운동 767-6(2층)
- 평수 : 30평
- 삼존불 : 아미타불, 관세음, 관음, 지장보살, 소불 60불, 후불탱화, 미타, 관음, 신중, 칠성, 산신
- 보증금 1천만원.월세4십만원 시설비 2천만원
- 현재 법회도량

010-3558-9016

친환경 삼베타올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봉건주의 무너뜨린 고승의 리더십

한국부탄 수교 30주년 기념 특별연재

③ 부탄의 국조 샵둥나왕남걜



샵둥나왕남걜을 형상화한 조각상.



10대 샵둥나왕남걜과 윌리엄리 부탄문화원장.



부탄의 국조 샵둥나왕남걜과 제자들을 그린 대형괘불. 매년 열리는 국가행사인 푸나카축제서는 샵둥의 괘불을 일반에 공개하고, 그의 가르침을 기린다.

부탄왕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부탄이 '티베트불교'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여전히 많은 한국인 가이드와 비전문가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이 왜곡돼왔다. 물론 큰 줄기에서 따져볼 때 '티베트불교'와 '부탄불교'의 뿌리는 같다. 그러나 16세기부터 부탄은 고유한 불교건축·음악·미술·조각 등 티베트불교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또한 부탄은 과거 티베트 군대가 침공한 역사도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하면 티베트불교와 부탄불교의 차이는 바로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차이와 매우 흡사하다. 한반도에 대승북방불교의 문화가 전해지고, 한국불교의 주 수행법인 간화선 역시 중국 송나라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한국불교의 뿌리는 중국불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이뤘고, 나아가 유구한 한국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티베트를 떠난 나왕남걜

북인도·네팔·시킴·라다크 등의 사원에 가면 불단에 여지없이 티베트불교의 수장격인 달라이라마 존자 사진이 모셔져 있어 많은 참배객의 귀감이 된다. 하지만 부탄을 방문해본 사람들이라면 한번 생각해보자. 부탄 전역의 모든 사찰에는 '달라이라마 존자' 사진이 없다. 대신 부탄의 모든 사찰에는 멋진 턱수염을 가진 스님 존상을 모시고 있다. 바로 부탄의 국조인 샵둥나왕남걜(Zhabdrung Ngawang Namgyel) 스님이다.

부탄을 둘러보면서 난해한 발음의 수많은 고유명사를 들었다 하더라도 부탄의 국조인 샵둥나왕남걜을 기억한다면 이미 부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 북인도, 네팔, 시킴, 티베트, 몽골 등 히말라야 지역은 각 지역별 영주들이 다스리는 봉건주의 사회였다. 이 시대는 지역별 영주들의 권력다툼이 한창인 시절이었고, 히말라야의 소왕국 부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별 도토리 키재기식의 고만고만한 권력을 가진 영주들이 다스리던 곳이었다. 16세기에 한 스님이 이곳에 당도하기 전까지는.

1594년 금강승불교의 한 종파인 둑빠까규파의 법왕으로 추앙된 나왕남걜(Ngawang Namgyal)은 티베트 라룽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존경받던 스님이었다. 어느 날 나왕남걜은 꿈을 꾸는데 까마귀 모습을 한 호법신장이 나타나서 어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기를 재촉한다. 나왕남걜은 당시 타 종파에 의해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까마귀로 분한 호법신장의 조언에 따라 라룽지역을 떠나 지금의 부탄의 가사(Gasa)지역에 다다른다. 당시 그의 나이 23세였다. 샵둥(Zhabdrung: 나왕남걜을 높여서 부르는 칭호)은 부탄지역에 오자마자 지역민들의 존경과 흠모를 한 몸에 받게 되었으나 그의 존재를 껄끄러워 하던 티베트에서 부탄지역으로 군대를 보내 스님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대제국이었던 티베트의 군인과 군장비 수가 압도적이었으나 티베트에선 볼 수 없었던 부탄의 천연밀림 속에서 티베트군은 속수무책이었다. 부탄의 역사상 외세의 침략을 받은 적은 티베트에 의한 3회뿐이지만 전부 국경요새에서 막혀버리고 말아 부탄은 단 한 번도 본토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은 나라로 기록된다. 이때부터 샵둥은 부탄 주요 위치에 부탄에만 있는 형태의 요새·성이자 사원인 '종(Dzong)'을 건설하게 된다. 샵둥이 세운 부탄 최초의 종은 1629년 팀푸 근교에 있는 셈토카종(Semtokha Dzong)으로서 현재 부탄 전역에 세워져있는 모든 종들의 예시가 되고 있다.

둑빠까규 법왕 추대된 샵둥
타 종파 위협 피해 부탄으로
티베트군 물리치고 제도 다져
정치·종교 이원화 국가 성립

오늘날 부탄이 있기까지

샵둥이 세운 방어에 특화된 종에도 불구하고 티베트는 지속적으로 부탄을 침공했다. 침공명분은 바로 둑빠까규파의 법왕인 샵둥이 티베트에서 가져온 '랑중까사르파니(Rangjung Kasarpani)'라고 불리는 금강승밀교의 성물 때문인데, 샵둥이 이를 푸나카종에 모셔놓고 있었다. 티베트군은 이 성물을 다시 가져온다는 명분하에 막강한 군대를 조직하여 푸나카 계곡을 넘어 부탄을 침공한다.

수적으로 열세인 샵둥은 푸나카종 내에 있던 부탄군인들을 정문 밖으로 종을 둘러싸 행진하게 하고, 후문으로 들어가 다시 정문 밖으로 나가도록 했다. 실제로는 얼마 안 되는 수비대뿐이었지만 이 행진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푸나카종 내에 엄청난 수의 군인이 있다는 인식을 티베트군에게 심는 효과를 주었다.

샵둥이 두 번째로 사용한 작전은 가짜 성물을 만들어 포추강에 던져버린 것이다. 푸나카종 옆에는 빠른 유속으로 흐르는 포추강과 모추강이 있다. 티베트군은 그 모습을 보고 성물이 영원히 유실됐다고 믿었다. 결국 탈취해야할 성물이 없어지고, 생각보다 많아 보이는 부탄군으로 인해 티베트군은 철수한다. 물론 성물은 샵둥의 소매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이 이야기는 현재 뮤지컬화 되어 매년 열리는 푸나카축제서 오페라 형식으로 행사 대미를 장식한다.

샵둥은 부탄에 자리 잡고 티베트군의 침공을 막아내면서 현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는 '종'이라는 튼튼한 수비요새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불교 계율에 입각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정한 세금제도를 만들어 국가재정을 강하게 했다. 또한 부탄 정치의 밑바탕이 된 '최시(Choesi)' 제도를 적용한다. 최시는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같이 정치와 종교의 수장을 동일 인물로 하지 않고, 이원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샵둥은 둑데씨(Druk Desi)라 불리는 종리를 정치 수장으로, 제켄포(Je Khenpo)라 불리는 국사스님을 종교 수장으로 임명했다.

30년간 샵둥은 부탄지역의 혼란스러운 권력다툼을 자비와 지혜로 감화시키고, 봉건주의의 부탄을 오늘날 국경을 가진 하나의 국가로 탈바꿈시켰다. 각 지역의 색깔을 고려한 올바른 법 제정, 강력한 체제 등을 정비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다.

하지만 1651년 4월 30일 부탄 건국의 아버지 샵둥나왕남걜은 입적했다. 절대적인 존경과 흠모를 받던 샵둥의 입적은 큰 충격이었다. 이에 샵둥의 두 상좌는 입적을 알리지 않고, 긴 명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건국 초기 많은 혼란과 호시탐탐 침공을 노리던 티베트군에게 구실을 줄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렇게 샵둥의 입적은 명상이라는 이름아래 58년간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환생을 통한 샵둥의 전생은 현재 10대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샵둥나왕남걜은 위대한 정치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수행력 깊은 고승이었고, 학자이자 작가, 예술가이기도 하다. 끝없는 자비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시 샵둥을 만난 서양인의 기록에 의하면 "샵둥은 단순히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길 원할 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할 자유를 가지길 바라는 위대한 리더다"고 전한다.

21세기 불확실성이 가득 찬 이 시대에, 국가정책이 대부분 자비보다 경제논리에 의해, 협력보다 경쟁논리가 지배하는 요즈음, 샵둥나왕남걜의 자비와 지혜를 기초로 한 통합주의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귀감이 된다.



윌리엄리 부탄문화원장

참기 힘든 치아통증, 거친 피부

피부·치아 건강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참기힘든 치아 통증, 치아건강 백세인생
거친피부, 노화촉진, 피부건강, 청춘인생

약사여래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원력으로
건강하여지니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아토피, 피부알레르기,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등
치아피부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010-6332-6070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운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봉 천장사 1,000일 지장기도 안내 행

천년도량 천장사에서는 1,000일 지장기도
참회대법회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 입 제 일 : 7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단양 천장사 대웅보전
■ 동 참 비 : 100일 기준 2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532-6151-2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천장사)



천장사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배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트로 5분거리)

주지 오명 합장
충북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 3739-30 단양 천장사
H·P 010-5960-2085

못다 한 부모님 은혜, 세상에 갚다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⑮



필자는 아직도 은혜를 못다 갚아 보내드리지 못한 어머님이 계신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나는 여태 어머니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죗값이 너무 크고 살아계실 때 자식의 도리를 못다 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언젠가 고향 선산에서 벌초를 하고 온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서 아침 밥상을 앞에 놓고 하룻밤 묻어두었던 궁금증을 묻기 시작하셨다.

"그래, 어디 갔다 왔어?"
"서리골(고향)서 벌초하고 집안 어른들 뵙고 왔어요."
"그래, 서리골은 모두 평안하고?"
"네. 일직 아재네, 연서 형님네, 국서네 모두 잘 있어요."
"그래, 할매 할배 산소도 다녀오고?"
'그 일 때문에 갔는데 그럼 다녀오지 안 다녀왔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니?"
"아니, 그런 뻔한 일을 가지고 자꾸 물으니까 그렇지요."
"그럼 궁금한데 묻지 안 물어?"
"됐어요. 인제 그만 하세요."
"뭘 좀 물어보면 저런다니까?"

오래 전 기억이지만 그때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낯이 뜨겁다. 당시만 해도 어머니에 대한 나의 태도는 대체로 공손하지 못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인 어머니가 나에게는 그처럼 달갑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나의 이런 태도는 어린 시절로 올라가면 이해가 된다. 네 살 때 6.25 사변으로 헤어졌다가 아홉 살 때 다시 만난 어머니는 낯설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그러나 그동안 나를 애지중지 키우셨던 할머니와는 정이 들었고 안 보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보고 싶었다. 가끔 할머니와 어머니가 다투는 모습을 봐도 할머니는 당차고 분명한 모습이었으나 어머니는 나약하고 모자란 모습 같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와 어머니는 고부지간이니 며느리인 어머니가 보여주신 모습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나에게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나약하고 못나보였다. 그렇게 함께 살기를 50여 년, 어머니는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행상을 하고 농사를 지으며 억척스럽게 사셨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어색하고 싫었다. 그러다보니 어머니의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건성으로 대하곤 했다. 이러한 행위를 한 뒤에는 늘 후회했고 가슴 아파했다. 어머니가 살아오신 피눈물 나는 삶의 여정을 생각하노라면, 나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보상이라도 하듯 때때로 조선조의 문장가 박인로의 '조홍시가(早紅 歌)'를 읊으면서 어머니에게 지성껏 효도해야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기도 했다. 심지어 어머니 방에 돼지 저금통을 갖다놓고 매일 저금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을 비난했으며, 학생들에게는 효도가 인간 행위의 가장 근본임을 강조하곤 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편안하게 다가가지 못했으며, 늘 죄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 이러한 마음과 행동의 불일치가 깨어지는 기회가 왔다. '아봐타' 프로그램에서 어머니를 불러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머니!"라는 말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 지도자가 좀 더 큰소리로 불러보라고 했고, 점점 더 크게 불렀다. 그렇게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떨리기 시작했고, 끝내는 울음소리로 바뀌면서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다. 내 가슴 저 밑바닥에는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에 와서 어머니를 뵈었을 때 그 자리에는 이전의 낯선 어머니가 아니라 그처럼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어머니가 계셨다. 나는 어머니를 껴안고 죄를 뉘우치며 마음속으로 울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어머니는 앓아누우셨고, 나는 온 정성을 다하여 대소변을 비롯해 몸을 씻겨드렸으며 비쩍 마른 나뭇가지 같은 어머니의 몸을 만지면서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러니 어찌 그립지 않으리오.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만 떠올리면 박인로의 '조홍시가'가 함께 떠오른다.

> 나약해보이기만 한 어머니
> 자식 키우려 온갖 고생해도
> 심리적으로 멀게만 느껴져
>
> 못 갚은 은혜 恨으로 남아
> 그리움을 늘 가슴에 묻고
> 존중의 자세로 세상 대한다

盤中(반중) 早紅(조홍)감이 고아도 보이노다/ 柚子(유자) 안이라도 품엄 즉도 ᄒᆞ다마ᄂᆞᆫ/품어 가 반기리 업슬ᄉᆡ 글노 설워ᄒᆞ노이다.
〈소반에 담긴 일찍 익은 붉은 감이 곱게도 보이는구나/ 유자가 아니라도 품안에 몇 개 집어넣고 싶지만/ 품어 가져간다 해도 반가워할 어머니가 없어 그 때문에 슬프다〉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육적이 여섯 살 때 원술이란 사람을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귤을 대접받고 몇 개를 몰래 품었는데, 집을 나오면서 인사를 하다가 떨어져 들키게 되었다. 이에 원술이 그 까닭을 물으니 집에 있는 어머니께 드리려 했다 하므로 그 가족이 모두 육적의 효심에 감동했다. 육적이 귤을 품어갔듯이 박인로 자신도 친구에게 홍시를 대접받고 품어가고 싶으나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그 서러움을 시조로 남긴 것이다. 이제 필자도 그러한 서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시대는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다면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일 것이다. 부처님은 한량없는 부모에 대한 은혜에 보답해야 함을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으로 말씀하셨다. 부모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으므로 그 은혜를 이렇게 비유한 것이다.

어찌 보답할 것인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는 서 말 여덟 되의 피를 흘리고, 낳아서는 여덟 섬 너 말의 젖을 먹인다. 그래서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업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업고서 수미산을 백천 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부모의 은혜를 보면, 하나는 아이를 잉태하여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둘은 낳으실 때 고통을 받으신 은혜, 셋은 아이를 낳고서 그 고통을 잊으신 은혜, 넷은 입에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을 뱉어서 먹이신 은혜, 다섯은 마른자리에 아이를 뉘고, 자신은 젖은 자리에 누운 은혜, 일곱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신 은혜, 여덟은 먼 길 떠난 자식을 염려해 주신 은혜, 아홉은 자식을 위해 나쁜 일도 마다하지 않은 은혜, 열은 생을 마칠 때까지 자식을 사랑하신 은혜.

〈부모은중경〉에서 보듯이 부처님은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는다'고 말씀하셨다. 자식은 곧 자신의 생명이라고 본 것이다. 필자도 내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부처님의 말씀과 똑같았다.

시대는 바뀌어 가정에서의 부모나 어른이 사회나 국가에서 노인으로 대접받는 복지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의 물질적인 복지는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핵가족이 되면서 자녀들은 그들의 자식들을 위해 독립해서 살다보니 나이든 노부모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고, 나이만 들고 생산성이 없는 부모들은 자칫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밝고 건강하려면 뿌리부터 건강해야 한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바로 사회 질서가 잡히고 안정적이 되어가는 지름길이다. 인도에서는 사람을 만날 때 두 손을 합장하며 '나마스테'라고 인사한다. 이것은 '내 안의 최고가 당신 안의 최고에 고개를 숙인다'는 의미가 담긴 깊은 존중의 표현이다. 이처럼 우리가 나이든 사람들을 만나 인사할 때 마음속으로 '나는 깊은 존중심을 가지고 당신에게 머리를 숙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나는 홀로 남았다. 가신 어머니를 위해 내가 할 일은 세상의 어머니를, 부모를 위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어머니는 편안히 가시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나이 든 어른들을 만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부모나 사회로부터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무언가를 주는' 마음이 무의식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익숙해져야겠다. 지금까지 못다 한 부모님의 은혜를, 늦었지만 세상을 위해 갚아나가야겠다.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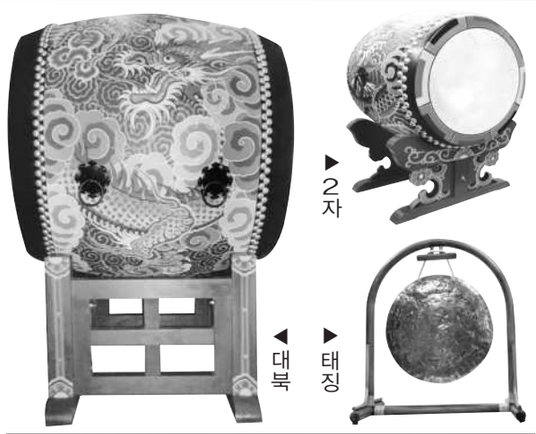
회향선원의 회향
회향선원(회향복지원)에서
평생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입주하시고 평생 거주가 가능하며
3년째 퇴실을 원하시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 1층 : 12평 1억 (3人 까지 거주 가능)
• 2층 : 9평 5천 (2人까지 거주 가능)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 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90번길 31-15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탈종공고
• 사찰명 : 무상사
• 주 지 : 대산 (노홍철)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247-3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9일

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중흥교원 총무원장 법하



대행 스님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오늘에 그대로 지금 계십니다!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어

질문 이번에 선원에서 거사님들 500여 분이 동참하여 공심의 불기둥으로 나와 세상을 밝히는 법형제 수련회를 한마음으로 원만히 회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수련회 전부터 장마철이어서 며칠째 비가 내렸고,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은 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장소로 출발 전 고불식을 할 때, 촛불재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으니 비가 오지 않게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안에는 확신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부처님께 전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믿지 못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큰스님도 부처님도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든 진짜로 믿고 진실하게 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여러분이 강당에 들어갔으면 강당에 부처님이 계신 겁니다. 또 법당에 들어갔으면 법당에 계신 겁니다. 변소간에 들어가면 변소간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법당에 들어가면 모가 나지 않게, 그 법당의 부처님이 내 몸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 법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생명이 둘이 아니게 둥글려서 일배를 올리더라도 정성스럽게, 일배를 올리든지 칠배를 올리든지 팔배를 올리든지 백팔배를 올리든지 그거는 자기가 여유 있는 대로죠. 누가 덜해라, 더해라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우리들의 법이기에 반드시 생활 속에서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하고 부처님의 활용이 그대로 우리의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여러분도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부처일 뿐만 아니라 자기 속껍데기를 벗기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이름도 또한 가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둘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몸뚱이 속에 생명체들이 있고 그 생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몸 하나가 그 생명체들의 집합체로서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을 조복받아야 하느니라." 한 것입니다. 이 몸뚱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못났든 잘났든 그 몸뚱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또 불교가 있고 부처님이 계십니다.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 성인들이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되느니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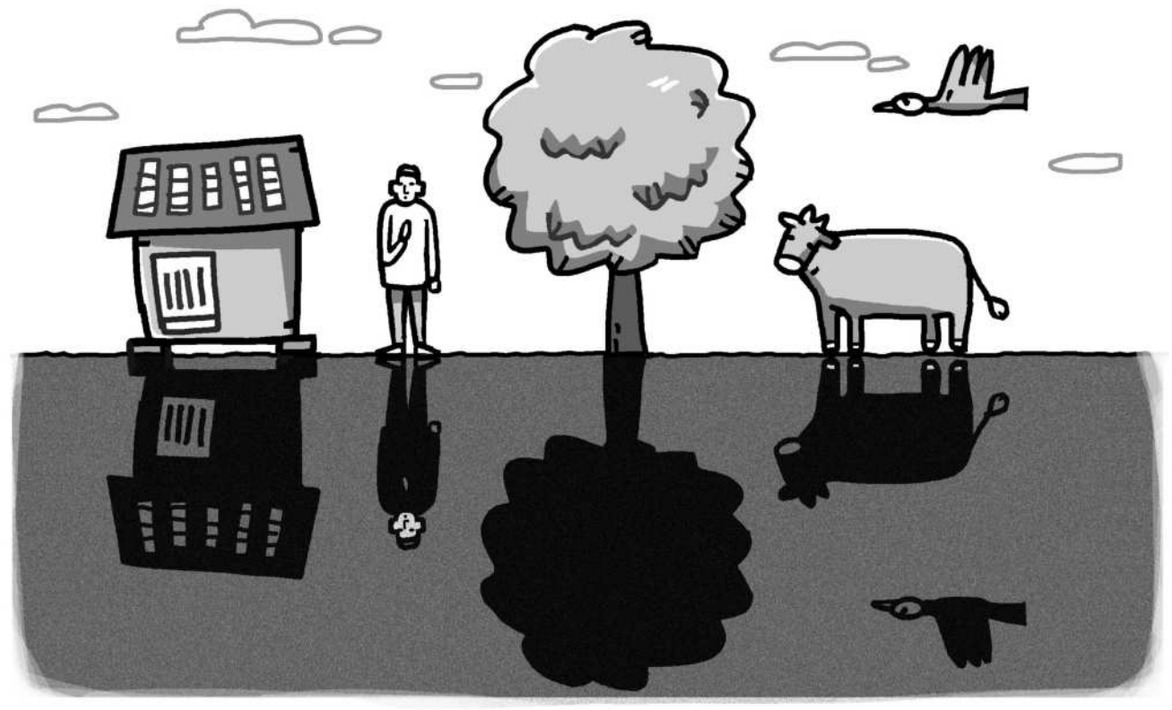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나로부터 부처님이 계신 거니까 나부터 발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나의 근본 말입니다. 저 나무들을 보세요. 뿌리 없이 사는 거 못 보셨죠? 자기에게 자기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뿌리와 싹이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한 몸, 한 개체가 바로 개별적인 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즉 말하자면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 사는 생명체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가는 주처를 모르고 살아요. 주인공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 주인공이란 것도 이름입니다. 불성이라는 것도 이름이고요. 자부처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이 아니면 부를 수가 없고 상대가 모르니까 그것도 방편 중의 진짜 방편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하신 그 뜻을 아셔야 합니다. 삼천 년 전에만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풀 한 포기만 있어도, 물 한 방울만 있어도 부처님은 거기 계신 겁니다. 부처님 법이 쇠퇴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네 마음들이 쇠퇴해지는 거지 부처님 법이 쇠퇴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 없어진대도 부처님 법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근본이 바로 불성이고 불바퀴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삼천 년 전에 계신 오늘이나 또 삼천 년 후 오늘이나 항상 계신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부처님도 계신 거지,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부처님 법이 어디 있으며 부처님을 믿는 것도 생활도 뭐, 모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부터 아시면 그 부처님의 뜻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분들은 가시는 것도 오시는 것도 없습니다. 오신 것이 없기 때문에 가신 것도 없고, 그냥 과거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니까 영원한 오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오늘에 그대로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자체 깊은 속을 안다면, 부처님의 그 마음 깊은 속도 같이 둘 아니게 알아서 부처님이 계신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적이란 게 있는 겁니까?

질문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기도를 하고 또 불교에서도 관세음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라는 그 자체가 그걸 많이 해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 아닌지요. 그럼 욕망이란 건 기적을 찾는 건데 그 기적이란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답변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이 없다는 이유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하면 그대로…. 이거 보십시오. 어느 사람이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화가여서 그림도 아주 잘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넷이나 두고 두 다리를 자르게 됐습니다. 뼛속으로 썩어 들어가서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잘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애기를 업고 그냥 울면서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있다면 네가 그 두 다리를 자르지 않게 할 것이고 네가 없다면 두 다리를 자르게 할 것이다. 너는 즉시 아침에 가서 다시 한 번 진찰을 해 달라고 그래라. 그런다면 알 바가 있을 게다. 네가 있으니깐 그것도 있는 것이지 기적은 없다. 바로 네가 하는 것이지 기적이라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다, 이게." 그랬더니 가서 정말 진찰을 해 달라고 울고불고 그래서 다시 해 보니까 발목 아래로 내려가 있더라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것이. 그게 모두 기적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라는 얘기지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깐 30%는 의사의 손을 빌려야 하지만 70%는 여러분이 바로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한두 건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할 수 있는 재료가 있다는 거지 아니, 기적은 무슨 기적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이, 또 만물의 영장이 또 자신, 신이 있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주의 전체의 근본과 바로 직결이 돼 있는 여러분의 직결 장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언어가 붙지 않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언어가 붙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다 놓고 빌지 말라 이 소립니다. 나를 잘되게 해 달라, 뭐 산신한테다 놔야 되고 부처님한테다 놔야 되고 칠성한테다 놔야 되고 신중당에다 놔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고, 거기 한 군데를 안 놔서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이렇게 간약한 여러분의 약한 마음에 의해서 그 우환과 가환은 끊일 날이 없이 거기에 아마 대두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자체 불(佛). 그러나 여러분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인과가 되고 업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중생들이 한데 모여 있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니라." 이런 겁니다.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과 지금 해 나가는 그 마음이 바로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여기에서 그 많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를, 의식이 일어나는 거를 거기에 맡기고 지켜보세요. 모든 걸 거기 맡겨 놓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실험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터득을 하고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여여하게, 정말이지 광대무변하게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여됩니다.

여러분이 만물의 영장이며 '자신(自神)'이며 우주와 직결돼 있는 바로 처소며 가설이 돼 있는 근본인데 어찌 그것이 기적이라고

☞ A18면으로 계속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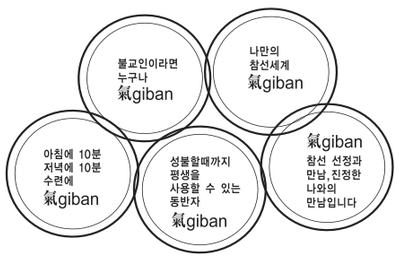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매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을 조복받아야 하느니라

☞ A17면에서 계속

하겠느냐 이겁니다, 모두 여러분이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타의에서 구하지 마시라고 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꽃은 가꾸고 잡초는 뽑아야 하는지

질문 며칠 전에 집에서 화단을 전지하다 보니까 잡초가 무성해진 것을 보고 죄다 뽑아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현듯 '화초나 잡초가 다 같은 불성인데 어느 것은 기르고 어느 것은 뽑아 죽이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 분명히 둘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꽃은 가꾸고 잡초는 뽑아 버려야 하는지요.

답변 그거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기르는 것도 없고 뽑아 버리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차를 타고 내렸을 뿐이지, 즉 말하자면 타는 거는 화초를 기르는 것이요, 내리는 것은 잡초를 뽑아 버리는 게 됩니다. 내리는 것도 법 타는 것도 법이듯이 기르는 것도 법 뽑아 버리는 것도 법입니다. 그런데 그 뽑아 버린 것이 그냥 뽑아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차에 올라타듯이 다시 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심으로 그냥 그 잡초를 뽑아 버렸을 땐 벌써 내 마음과 더불어 아름다움이 거기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으로 화해서 그 잡초는 다시금 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물이 수증기나 빗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잡초든지 꽃이든지 나무든지 다 먹여 살리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보일 때 잡초지 또 한 번 돌아서 아름다움을 꽃피우고 또 나올 때는 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잡초도 잡초대로 그냥 있지 않고, 우리 인간도 인간대로 그냥 있지 않고, 모습도 모습대로 그냥 있지 않고 모두가 화해서 변경이 되고 또 한 찰나 돌아가면서 바뀌지고, 이렇게 세상 만물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안 보였다가 다시 돌아올 때, 예를 들어서 용광로에다가 모든 거를 집어넣어서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오면 그거 가지고서 또 생산처에 나와서 또 다른 걸로 변경이 돼서 다 나가고 또 그것이 헐어지면 용광로로 또 들어가서 다시 생산이 됨으로써 다른 물건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잡초를 뽑아 버린 게 아닙니다.

유위법, 무위법 둘 아니게 쓰려면

질문 저는 이 마음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심자입니다. 법회 때 큰스님 법문 비디오를 보다 "유위법과 무위법을 둘 아니게 쓸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유위법과 무위법이 어떤 뜻인지요. 그리고 그것을 둘 아니게 쓰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나는 언제나 모든 것을 둘로 보지 말라, 따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일러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깊이 알고 보면 마음의 과학이야말로 깊고 아름답고 선(善)한 참과학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법은 무위(無爲)의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과학은 유위법(有爲法)을 다루어 이치를 밝힙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마음법은 보이지 않는 원리,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치까지도 밝혀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을 완전한 상태로 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위행과 무위행이 두루 갖추어져서 우리의 삶은 어떤 일에든 자유롭고 드넓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중생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진짜 공부를 해 나가실 수 있다면 미래의 정신세계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서 그냥 일반적인 과학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산다면 우리는 끝끝내 우리 자신을 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우리 자신이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는, 우리들의 목표인 열반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학 시대에, 작게는 우리 자신을 자유인으로 이끌면서 가정을, 사회를, 나라를 위해 크나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곧 자기 자신, 즉 주인공을 찾는 공부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로부터 모든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만이 나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회의 문제도, 국가, 인류의 문제도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모두에게 마음 안에서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밖에서 찾는다면 그 길은 갈수록 좁아집니다. 밖에서만 찾는다면 분별하고, 다투고, 불행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안으로 깊이 들면 들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진실해지고, 무거워지고, 자비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위 모든 사람들도 행복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광대하고 묘한지, 느껴 보지 못한 분들은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즉 자기가 죽은 자리에서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텅 비었고, 텅 비었으나 거기에서 미묘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텅 빈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 너를 초월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헤아릴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크나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觀)하라는 겁니다. 한군데서 들고 나는 것이니,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바깥으로만 끄달리고 방황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비유하지요. "용광로에 다 낡아서 못쓰게 된 헌쇠를 넣는다면 다시 새로운 갖가지 도구로 재생되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그와 같이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니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는 지금 세상에 앞장설 수 있는 인등이며 마음의 향기로운 향이며, 밥 한 그릇을 놓고도 모두를 먹이고도 한 그릇이 되남을 수 있는 그런 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위세계 유위세계가 같이 계합해서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따로 없이 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영원한 그 뿌리, 주인공이니 그렇게만 믿고 실천행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원에서 신행회를 자유 조직으로서 조직한 지가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이 공부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려면, 신행회에 가입하셔서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과 같이 서로 토론을 해 가면서 회장님이나 법사스님한테 물어 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빠를 겁니다. 그리고 또 공부해 나가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회원들끼리 서로 도와 가면서 화목하게 보충해 나갈 수 있는 신행의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 세계의 주인이 되려면

질문 앞으로 저희들 앞에 펼쳐질 미래의 세계를 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답니다.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실세계 모든 제품,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게 된다는데, 이 마음공부를 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공부해 나가야 저희와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미래 세계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많은 중생들이 더불어 사는 내 몸이 흑성이듯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바로 우리의 집이자 흑성입니다. 이 만법의 기틀과 기본을 모른다면, 우리는 마음을 낼 수가 없어서, 항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도 해 보지 못해서, 집도 망가지고 또 저 흑성의 집도 망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 몸이 망가지듯 말입니다. 내 몸뚱이 속의 중생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주지 않는다면 내 몸인들 견뎌나겠습니까?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옷을 벗고 싶을 때 벗어야죠. 그러나 옷은 벗지만 그 마음의 근본은 영원하죠.

우리가 미래에서 본다면 현재가 과거인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이자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 자체가 공(空)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공부들을 하셔야 되겠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디를 막론해 놓고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인해서 전파가 두루 하고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보다 더 빨리, 빛보다 더 빨리 전파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는 대로 이것이 우주 법계에 두루 입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몸뚱이가 이렇게 있지만 또 정신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정신세계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면 도저히 정신세계의 나를 맛보지 못합니다. 나와 같이 있으면서도 같이 있지 않고, 같이 있지 않으면서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리가 심오하고 그 뜻이 너무나 엄청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엄청나다는 걸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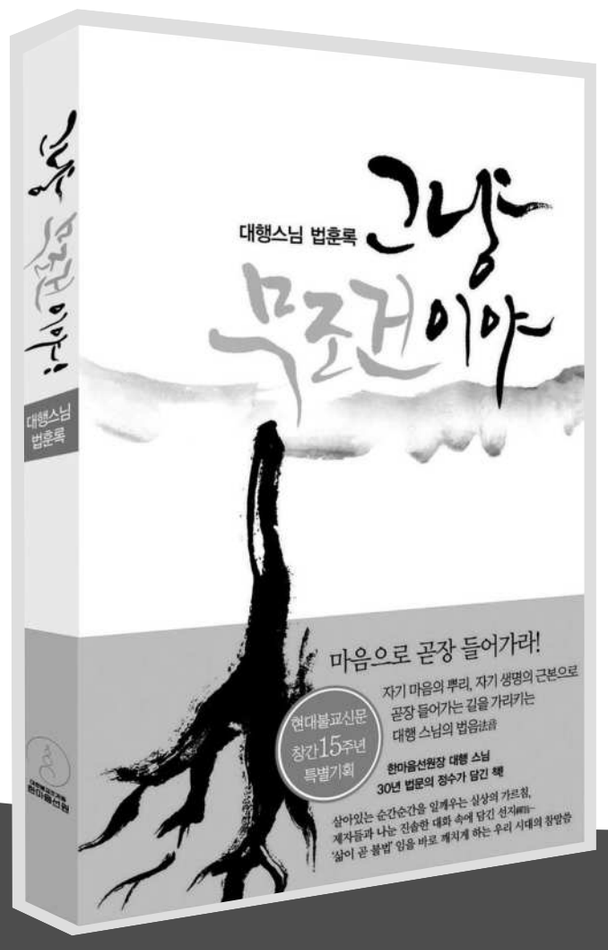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저버리고 항상 이론으로만 "마음, 그거." 하는데 그렇게 이해만 해서 마음을 증득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만 해 가지고 "내가 알았다. 나는 그만하면 됐어.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그 자기의 아만과 아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물속에 뛰어들어서 물 깊이를 알며 어떻게 땅속에 들어가서 햇빛이 들어오는 걸 알겠습니까? 그리고 허공에 불바퀴가 돌아가는데에 어찌 걸리지 않고 앞뒤 없는 불바퀴를 넘나들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밝혀서 정신세계로 치달아야 하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바쁜 시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알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대로 실상임을 깨닫는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의 세계도 여기에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도리가 전부 법계에 정보가 돼서 정신세계의 미래도 개척을 해 나가면서 현실에서도 개척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도리가 됩니다. 우리의 이 몸뚱이만 내가 아닙니다. 이 몸뚱이 속에는 또 얼마나 많은 중생이 살고 있습니까. 그 중생 속에서 부처가 있음으로써 그 부처는, 원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 원자 속에 또 입자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중생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진짜 공부를 해 나가실 수 있다면 미래의 정신세계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높고 낮은 게 없이 모두가 벗이고 모두가 한마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우뚝하게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마음과 마음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둘러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처럼 기술이 요요합니까, 남의 나라처럼 마음이 그렇게 깨어서 삽니까? 정신세계로 진출해서 갑니까? 물질을 좇는 데만 여념이 없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분수에 맞춰서 살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세계는 언제 돌아다보겠습니까. 미래의 세계에서 본다면 우리 지금 현실세계가 과거가 되고, 과거의 세계에서 본다면 정신세계가 미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세계와 정신세계가 둘이 아니요 또는 과거와 현실이 둘이 아닌 까닭에 우리가 마음으로써 항상 그렇게 다스려 가면서 모든 거를 놓는다면, 크면 큰 대로 다스리고 작으면 작은 대로 다스려서 놓는다면 화목이 오지 않을 수 없고 조화를 이루어서 끝 간 데 없이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과학으로 이탈 없이 가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신세계, 무심 도리의 도를 알 수 있게 해야 하죠. 무심 도리를 배워야만 물질세계에 바로 내놓을 수 있는 영력(靈力)이 생겨서 과학적인 문제를 첨단으로, 정신세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 여러분이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주인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생산처가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불자 세상보기 |

문학의 힘



맹난자
수필가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허크는 노예를 密告 않으며
"난 지옥에 가겠다" 말한다

"지옥으로 가도 상관없으니
노예 짐을 배신하지 않겠다"
오에 겐자부로를 흔든 구절

겐자부로의 성찰, 나도 울려
독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
나에게 허크가 깃들길 바란다

자연은 여름으로 충만한데 나는 그 푸르름 속에 엎드려 지낸다. 독서도 눈이 허락하는 대로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서 기쁜 것은 책에서 문학의 힘을 느낄 때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

일본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읽는 인간〉을 펼쳐들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노 작가의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그가 아홉 살 때 만난 첫 책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었는데 "정녕 제 인생은 그 책으로 인해 향방이 정해졌음을,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른 지금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점에서 나는 처음엔 놀라웠고 그다음은 반가웠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백인 소년 허크와 도망친 흑인 노예 짐이 수색대를 피해 뗏목을 타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항해의 난관을 겪는 이야기다. 고난을 함께 하는 동안 허클베리는 종종 도움을 받은 짐에게 깊은 우정을 느낀다. 노예해방을 이룬 마을에 도달하면 짐은 그곳에서 자유로운 신분이었지만 아직 노예해방이 이뤄지지 않은 주에 들어가면 여전히 그는 노예였다. 허크는 짐의 주인인 노부인에게 보낼 편지를 쓴다.

"이 마을에 당신의 재산인 짐이 있다. 현상금을 주면 당신의 재산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허크는 교회에서 남의 재산을 훔치는 일에 가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배웠기 때문인데 그는 곧바로 편지를 찢어버리며 이렇게 다짐한다.

"난 이 생각을 버렸고 결코 반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편지는 두 번 다시 쓰지 않겠어. 그래 좋다.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노 작가는 "지옥으로 가도 좋으니 짐을 배신하지 않겠다. 제가 영향을 받은 것은 이 한 줄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선생님은 "얘들아 여태까지의 국가방침은 사라졌다. 이제 일본은 패했고 엉망진창이 되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방침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자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허크의 말을 나의 방침으로 삼자. 지금껏 이걸 원칙으로 살아온 듯합니다."

"All right, then, I'll go to hell.(그래 좋다.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나는 갑자기 목안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오래 전 엘미러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마크 트웨인의 동상이 떠올랐다. 거친 세월의 흔적이 담긴 듯한 주름진 얼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작은 키에 그러나 호방한 기개가 느껴지는 모습으로 주머니에 양손을 찌른 채, 먼 곳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손질했다는 팔각정 서재 안에서 나는 고달프기만 했던 그의 일생을 떠올리며 기념 책자와 엽서를 사들고 가슴에 안았다. 열두 살에 부친을 잃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던 어린 소년. 그는 뱃길 안내인으로 일하는 동안 키잡이들이 쓰는 전문 용어인 수심 두 길(12피트 깊이) '마크 트웨인'을 필명으로 삼았다. 12살 이후, 학력이 전무 했던 그의 이름이 대학 캠퍼스에 새겨지고 예일대와 미주리대 그리고 옥스퍼드대에서는 그에게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런 마크 트웨인이 오에 겐자부로에게, 오에 겐자부로는 오늘 아침 또 나에게 웅변보다 더 큰 울림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다.

독서는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변모시킨다. 문학의 힘이다. 장애인 아들을 보듬고 평생을 애쓰는 아버지 오에 겐자부로. 그는 반전(反戰) 평화와 휴머니즘적 가치를 위해 큰 목소리를 내며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생에서 유달리 슬픔이 많았던 두 작가의 대비심(大悲心)의 연원을 짚어 본다. '눈물이 없는 자의 영혼에는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는 인디언들의 경구가 마침 생각난다. '그래 좋아! 난 지옥엘 가겠어.' 이런 소년이 내 안에서도 오래 머물기를 바란다.



사유의 숲을 거닐며
송마나 작가

수국, 내 마음의 佛頭花

지인들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려는데 한 분이 수국 한 송이를 식탁에 올려놓으셨다. 우리는 생기를 잃어 축 늘어진 수국을 왜 가져오셨는지 의아했다. 지인은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음료수가 들었던 빈 병을 꺼내 식탁 위에 놓인 물을 채운 후 시든 꽃을 꽂았다. 이윽고 푸르스름했던 수국이 쌀 튀밥이 튀어지듯 탐스럽고 선명하게 활짝 피어올랐다. 싱싱한 수국 한 송이가 놓인 식탁은 이내 화려한 성찬이 되었다.

식사 후 근처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벽에 걸린 그림 속의 여인이 수국을 한아름 안고 우리를 지긋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가. 소매 없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보랏빛 수국 다발을 안고 앉아있는 여인은 우아했지만 왠지 처연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국(水菊)은 물국화로 불두화(佛頭花)를 꼭 닮았다. 수국은 국화처럼 절개나 충절 그리고 인고의 향기를 지니면서도 물이 없으면 바로 시든다. 이래서 수국은 장마철에 피어나는 것일까. 주룩주룩 내리는 빗속에서 꽃을 만개하다가 장마가 그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그만 시들어 버린다. 그러나 말라버린 수국을 물속에 담가두면 금방 살아난다. 사람이 생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수국도 물을 떠

숲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 '수국'
어떤 역경에도 청정함을 지켜내
수국이 함빡 꽃봉우리 피어내길

나서는 살 수 없나 보다.

수국은 스스로 꽃의 빛깔을 다양하게 바꾼다. 처음 꽃을 피울 때는 연두색이 슬쩍 깃든 흰색 그리고 분홍색, 하늘색, 자홍색 순서로 변한다. 어쩜 이리도 인생의 여정을 닮았는지. 갓 피어난 새싹과 같은 순진무구한 어린 아기, 아동기를 벗어나 청년기로 들어서면서 성적 호기심으로 볼이 빨개진 사춘기, 강건한 신체와 웅지의 뜻을 늠름하게 펼치는 새파란 장년기, 해가 기우는 저녁노을처럼 검붉게 물든 노년기,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수국의 꽃잎은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을 꽃잎이라고 여기지만 이것은 꽃잎이 아니라 꽃받침이 커져서 꽃잎처럼 행세한 것이다. 꽃받침 안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작은 꽃이 달려있고 거기에 꽃잎과 꽃술이 숨어있다. 남달리 탐스럽고 화려한 꽃이 이렇게도 겸손하고 은인자중할 줄이야.

줄기를 베고 또 베어도 더 많은 새순이 피어나는 꽃. 산불이 나서 숲을 온통 태워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꽃. 수국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인 생명수만 마시면 청정하게 살아나는 내 마음의 불두화(佛頭花)이다.

장마철이다.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져 수국이 함빡 꽃잎 터트리기를 합장한다.

社說

포교단체 모연 인식 확산해야

모든 일은 인력, 조직, 재정의 3박자가 맞아야 잘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불교 포교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 포교원이 시도하고 있는 포교단체의 재정 건전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최근 불자 감소로 인해 일선 사찰에서는 신도가 감소해 분담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런 상황에서 포교의 종단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문제는 앞서 말한 3박자 중 재정이란 한 틀이 대부분의 포교단체에서 무너져 있단 점이다. 회원 회비나 종단 보조금 지원에 비해 기부나 후원금이 너무나도 미약한 현실이다. 재정 자료를 제출한 단체 중 대부분이 기부, 후원이 10% 미만이었다.

물론 포교단체는 포교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기부나 후원을 전문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바뀌었고, 지속적인 포교를 위해서는 기부나 후원 모집도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불교계에서는 지금까지 기부나 후원을 복지 차원에서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웃종교계와 같이 포교 차원에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기부나 후원이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선업을 짓게 하는 또 다른 자비행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모금이 아닌 모연(募緣)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기부와 후원을 활성화 한다면 불교 포교의 또 다른 장이 열릴 것이다.

이를 위해 포교단체들의 신뢰성 제고와 불자 인식 개선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최근 신행혁신을 기치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종단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현장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길 기원한다.

南北 불교교류 다시 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 '신 베를린 선언'이라는 대북 구성을 내놓으며, 평화적 해결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실험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평화적 해결 방안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사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는 대북 교류가 전무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로 인해 활발하게 활동했던 불교계 통일 단체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교류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무산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근 10년 간 불교계 통일 단체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를 들고 나온 만큼 이에 맞는 아젠다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7월 20일 개최한 '정책 환경 변화 대비 통일 종책 연구 보고회'에서 나온 지적들은 고민해볼만 하다. 특히 이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계종의 공식적 통일종책은 부재하다. 총무원과 종회서 결의한 일관된 통일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종책의 3가지 방향성으로 △남북정세에 따르지 않는 일관성 수립 △평화적 여론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불교통일교육 실시 △통일종책의 공론화 및 제도화를 제시했다. 이 같은 연구 보고서들은 단순히 연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종책과 실천사업으로 꽃을 피워야 한다.

통일 시대의 불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총무원 및 종회에서 결의된 공식 통일 종책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이 흔들림없는 통일 종책만이 남북 불교교류 활성화와 통일 시대 불교를 열 수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기도&수행 道助品

도톰

도톰(道助)은?

수행하는 이들에게
말법시대의 탁기를 제거하고
몸의 氣순환을 도와
더 큰 수행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제품 이름입니다.

어머니 원력 이은 40년 茶 인생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차 속에는 하심과 공생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했다. 수십년 동안 차인의 길을 걸은 김 이사장의 모습이 편안해 보인다.

테마人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궁중다례를 시연하는 김의정 이사장의 모습.

한국 다례 종가 '명원'
日 "한국엔 다도 없나?"
명원 김미희 여사 발원
전국 다니며 고증·복원
조선왕실 궁중다례 전승

한국 차문화 보급 나서
1995년 명원문화재단 창립
새계차박람회 열며 홍보
차 접목한 청소년 교육도
"명원 의미가 공생의 삶"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는 말이 있다. 부모님을 떠올리면 항상 아련한 이유는 바로 생전에 못다 한 효도 때문일 것이다. 특히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쏟는 어머니란 존재는 더 가슴에 애달프게 와 닿는다.

우리나라에 '다례'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명원 김미희 여사. 그녀에게 몸이 약한 어린 딸은 아픈 손가락이었다. 집 바깥으로도 나가기 힘들어 어머니의 곁에서 다례를 배우기 시작한 딸은 어머니가 남긴 차(茶)에 대한 사랑을 조용히 잇고 있다. 그녀에게 다례는 바로 어머니에 대한 효도였다. 바로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76)의 이야기다.

명원 김미희 여사의 차 사랑

명원 김미희 여사를 아는 이들은 김의정 이사장이 어머니와 닮았다고 말한다. 특히 차에 대한 열정이 그렇다. 김 이사장은 어머니 김미희 여사에 이어 2대째 우리 고유의 차 문화를 전승 중이다.

무형문화재 궁중다례의식 보유자인 김 이사장의 하루는 차로부터 시작되고 차로 끝난다. 매순간 차를 대하는 자세는 진지하다. 옷매무새를 정갈하게 다듬고 자세를 갖춰 귀한 손님처럼 차를 맞이한다. 현재 김 이사장은 철저한 역사고증을 바탕으로 일본식 차문화를 배제한 우리 고유의 차문화를 보급하고 있다. 명원문화재단이 '한국 다례 종가' 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이유다.

그 시작은 김 이사장의 어머니 명원 김미희 여사부터 시작됐다. 명원문화재단의 '명원' 이름 역시 어머니의 호에서 따왔다.

"어머님께서 1952년 헬싱키올림픽 선수단을 후원한 아버님을 따라 유럽에 가셨어요. 당시 덴마크 왕실 초청 오찬 등에서 차문화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셨습니다. 마지막에 들른 일본에서 깊은 인상을 받으셨지요. 일본에서는 차가 생활화 되어 있고, 정치, 사업 등 중요한 사안이 모두 다회에서 논의되거든요. 어머님이 다회에 참석했는데, '한국에도 이런 차문화가 있느냐' 는 한 일본인의 질문에 문제의식이 생기셨어요."

일본은 조선 도공이 만든 막사발을 국보 1호로 지정해 애지중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한국은 차문화에 관심이 없던 상황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먹고살기 바빠 차문화가 발달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본보다 오랜 차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일본에서의 그 일이 어머니에게 큰 자극이 됐고, 어머니는 귀국 직후 남도 차밭부터 찾아다니며 본격적으로 전통 다례 복원을 시작하셨죠. 전국 방방곡곡으로 우리 다례법을 찾아 다녔지만 다인으로 이름을 알린 스님들조차 일본식 다례법을 따르는 상황이었어요."

명원 김미희 여사는 이런 와중 궁중다례를 복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954년 9월 순종의 황후인 순정효 황후가 성북구 정릉의 인수재에 머물고 있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왕실 복원을 거부한 상황에서 명원 김미희 여사는 이들을 몰래 도왔고 황후를 모신 김명길 상궁에게서 왕실 다례를 전수받게 됐다.

"곁에서 지켜본 어머니의 모습은 참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차를 알아주지 않았고, 차에 관한 어떤 것도 정립돼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도공을 찾고, 수십 개의 가마를 만들고, 특히 한국식 다기 제조에 무척 애를 많이 쓰셨어요. 사재를 털어 다기 제작에서 학자들의 차 연구, 각종 세미나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다도 복원에 관한 모든 것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1975년 남편 성곡 김성곤 거사 입적 후 김미희 여사의 행보는 대흥사 일지암 복원까지 미쳤다. 1976년 시작된 일지암 복원은 초의선사를 통해 한국차의 근원을 바로 세우는 불사였다. 김미희 여사는 공사비 지원은 물론 수시로 해남에 내려가 일지암 설계 원형을 제공하고 꼼꼼히 불사를 챙겼다. 하지만 1980년 일지암 낙성식 봉행 이듬해, 김미희 여사는 61세의 나이로 세연을 다하게 된다.

김 이사장은 모친의 유지를 계승해 대흥사에 초의 스님 동다송비를 세우고, 국민대에 제2 일지암을, 순천만 정원박람회 안에 제3 일지암을 복원시켰다.

어머니 원력, 그대로 이어져

김 이사장은 자연스럽게 어머니 곁에서 차를 접하고 배웠다. 생전 어머니 김미희 여사는 김 이사장이 당신의 뜻을 이어받았으면 했다. 고생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강권하지는 못했지만 김 이사장이 어머니의 뜻을 알고 그 길을 자처하게 됐다. 김 이사장이 명원문화재단을 이끌며 전통 다례의 맥을 잇고 차 문화 발전에 힘쓰는 이유다.

하지만 김의정 이사장은 아버지 성곡 김성곤 거사가 창업한 쌍용그룹 일가란 배경으로 저평가돼 온 측면이 적지 않다.

"어머니가 전통다례를 복원할 때도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예절이 필요하냐며 비난을 하던 이들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돈이 있어 한 것이라고 말들이 많았지요. 문화는 돈이 없으면 안 되지만 돈 만으로도 안되는 겁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온 이유도 어머니의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정신을 잇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B5 문화 화폭 속으로 떠나는 休… 폭염도 '거뜬'

B6 기획연재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2016명원세계차박람회에 참석한 외국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김의정 이사장. 명원세계차박람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 참여하는 한국대표 차박람회다.


2010년 일본서 궁중다례를 시연하는 김의정 이사장.

“신도회관 건립, 의궤 환수 가장 큰 보람”

여성 최초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신도회관 발원 · 화주 나서
조선왕실의궤 환수도 기여
日차인 만나 직접 설득
사재 아끼지 않는 보살행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B1면에서 계속

김 이사장이 어머니에게서 이어받은 것은 차에 대한 사랑 뿐만이 아니었다. 바로 불심도 함께 이어받았다. 명원 김미희 여사는 불심이 돈독했다. 김 이사장의 어린 시절 집은 찾아오는 이는 누구든 따뜻하게 맞아주는 자비도량이었다. 정관계의 내로라는 이들부터 굶주린 이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각자의 사연을 갖고 찾아왔다.

명원 김미희 여사는 이들에게 조용히 자비보시를 베풀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내주고, 학비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불교계가 내홍으로 힘들었던 1955년 전국신도회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물심양면 불교 재건에 힘썼으며, 여성재가불자모임 마야부인회, 정재계 불자 여성 모임 관음클럽을 창립해 대사회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7년간 여성 최초로 중앙신도회장을 지내며 신도회관 건립과 조선왕실의궤 환수 등 굵직한 일을 맡아 나서게 된 것도 어머니의 원력을 그대로 이어 받았기 때문이다.

“여성으로서 중앙신도회장이 된 것도 사실 어머니 덕분이지요. 그래서 신도들의 숙원이었던 회관 건립을 임기 내 목표로 냈어요. 내고 나서 사실 걱정은 됐지만, 부처님 가피로 무사히 건립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다례와 궁중의 예절은 김 이사장이 일본에서 조선왕실의궤 환수운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 중앙신도회장이던 2006년 조선왕실의궤 환수위 공동대표로 조선왕실의궤 환수 입장을 밝혔을 때 주변에선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일본 국회의원들이 궁내청이 소장한 문화재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렸다. 하지만 혜문 스님을 비롯한 문화재 전문가들의 활동에 김 이사장의 지원이 더해지며 반환 운동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당시 김 이사장은 사재를 털어 직접 차로 인연을 맺은 일본 차인들과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설득했고, 선물 하나를 준비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다구를 싸는 보자기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만들 수 없는 한국 만의 독특한 보자기가 있어요. 이처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전달하며 우리의 안목, 정성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례를 하며 쌓인 안목이 큰 도움이 됐지요.”

차문화 세계에 알릴 2017명원세계차박람회

명원문화재단이 올해로 22년째 개최하고 있는 명원세계차박람회는 우리 차문화의 자부심을 알리는 대외적인 행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되살리는 기회다. 1995년 재단 설립 이후 차문화를 알리기 위해 호텔에서 열던 행사가 이제는 코엑스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박람회로 규모가 커졌다.

이 또한 명원 김미희 여사의 발자취를 따라서이다. 김미희 여사는 궁중다례를 기초로 생활다례를 정립하고 다기의 현대화에도 앞장섰다. 차와 다구, 복식과 다실건축, 조경 등 종합적인 차문화 발전을 견인했고, 한국 최초로 차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차시연회도 열었다.

김 이사장은 “한국 다례 복원은 단순히 예절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도 함께 해 나가는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 차문화는 널리 알려진 것에 비해 우리에게는 차 문화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이를 체계화해 세계에 알려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박람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차와 인성교육’을 주제로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명원세계차박람회에는 세계다례 시연을 비롯해 명차품평대회 등도 열린다. 특히 세계 인성교육 전문가들이 강연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김 이사장은 일본 식민지 시절 우리의 문화가 말살되면서 사라져 버린 다례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차는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일상에서 즐겨온 전통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모시는데 차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례는 차와 예절이라는 뜻입니다. 조상에게 차를 올리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차 같은 고급문화는 조선사람에게 맞지 않다면서 말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차례가 아닌 주례(酒禮)가 돼 버렸습니다.”

차문화 발전을 위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범국민추진위원회 회장을 맡아 전국을 뛰어다니며 차문화진흥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기도 했다.

현재 김 이사장은 다례를 기본으로 한 청소년 인성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명원 세계 차 박람회와 함께 개최하고 있는 ‘국제청소년 차 문화대전’은 국내 유일의 대통령상이 주어지는 차 관련 행사다.

“건강 유지와 정신을 맑게 하는 차를 청소년 시절부터 접하고 다례를 통해 예절을 배운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인성교육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열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인성교육진흥법 도입에도 기여한 김 이사장은 “차에는 두손으로 차를 올리는 공경심, 배려심, 정성 등이 담겨 있다”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차를 통한 예절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아이들의 정서와 건강 인성교육에 다례(茶禮)만한 것이 없다. 서양에서는 차는 늘 식사와 함께 한다. 이는 단순한 식음이 아닌 매너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사람들이 속정이 깊지만 거칠고 무례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국제적인 매너가 부족해서 일때가 많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할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이를 익혀나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차에 대한 철학을 묻자 김 이사장은 어머니의 호이자 재단의 이름인 ‘명원(茗園)으로 대신 답했다.

“〈다경〉(茶經)에는 1년에 세 번의 찻잎을 채취할 수 있는데 초여름 맨 처음 싹이 나올 때를 가(嘉)라 하고 이어 설(設), 그 다음을 명(茗)이라고 합니다. 명은 첫 번째가 아닌 세 번째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평생을 정진하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원(園)은 자연입니다. 명원이란 말 속에는 자연에 대한 하심,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란 뜻이 있습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의정 이사장은…

1941년 쌍용그룹 창업주인 故김성곤 회장(1913~1975)과 명원 김미희 여사(1920~81)의 차녀로 대구에서 출생했다.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 1995년 명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명원차문화대상도 시행하는 등 차문화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1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로 지정됐다. 2005년에는 조계종 사상 첫 여성 중앙신도회장을 맡았으며, 2009년 재임해 2임기를 지냈으며, 현재 조계사 신도회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사단법인 자생회 이사, 국민대 이사, 예술의전당 이사, 궁중복식연구원 이사, 한일 여성친선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지혜광명으로 일념 돌리면 본래 깨달음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⑮ 정토종 제10조 행책 대사

>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얕보지 말라. 일념을 지혜광명으로 돌리면 곧 본래의 깨달음과 같다(莫輕未悟 一念回光 便同本得)
>
> -〈행책대사 정토경어〉



행책 대사 진영을 본따 만든 그래픽

깨달음의 비결은 '일념회광'에

예로부터 도를 찾고 깨달음과 열반, 부처를 찾는 구도자들은 진정한 대장부가 아니라면 스스로의 근기와 수행력에 좌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승의 가르침은 '본래 부처'를 가린 분별 · 망상 · 집착만 제거하면 본래의 성품, 깨달음(覺 · 붓다)을 회복해 진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진 구도자들은 오랜 역경과 슬럼프를 극복하고 자성불을 회복하여 스스로도 해탈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깨달음의 행을 원만하게 구족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조사스님들은 구도자들에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무한한 불성의 힘을 꺼내 쓰라고 조언을 하신 것이다.

행책(行策) 대사가 〈정토경어(淨土警語)〉를 통해 밝힌 것처럼, 예로부터 조사 · 대덕이 개오(開悟)한 비결은 바로 '일념회광(一念回光)'에 있다. 여기서 '회(回)'는 고개를 돌린다는 뜻이고, '광(光)'은 자성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지혜광명을 말한다.

'일심불란' 돼야 자성의 지혜 · 공덕 현전

그렇다면 자성의 지혜광명을 어떻게 돌리라는 것일까? 그 답은 '이념(二念)'이면 돌릴 수 없기에 오로지 '일념(一念)'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일념은 곧 일심불란(一心不亂)이다. 이 일념을 닦으려면 다른 생각과 뒤섞지 않으면 된다. 한편으로 염불하면서 한편으로 망념과 뒤섞으면 공부가 진보할 수 없다. 수행자가 망상에 휘둘리지 않고 순일하게 염불하게 되면, 이 일념이 곧 '아미타불'이고 '나무아미타불'이다. 자나 깨나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한다면 진정으로 자성이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와 공덕이 현전할 수 있다.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염불인들이 오랫동안 공부해도 한 덩어리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열심히 염불을 하면서도 일어나는 온갖 잡다한 망념에 관여하고, 그 망념에 대해 걱정하며, 그 망념을 상기하고, 그 망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망념에 상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공부의 비결이다. 망념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된다. '나무아미타불' 이 한마디 부처님 명호를 단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염하고 또렷하게 들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일념회광(一念回光)이다. 근대 중국 정토종의 대덕인 하련거 거사는 〈정어(淨語)〉에서 "망념에 상관하지 않는 것을 제1념(第一念)이라"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제2념, 제3념에 떨어지지 말고 제1념을 사용하여 일념회광을 닦으라"고 하였다. 염불인이 생활하는 가운데 사람을 상대하고 일을 처리하며 사물을 접하는데 제1념을 사용한다면,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는 동시에 제대로 염불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리라.

5년 장좌불와로 선(禪)의 종지 깨쳐

이와 같이 염불행자들에게 실질적인 수행지침이 되는 〈정토경어〉를 남긴 행책 대사는 훗날 정토종 제10대 조사로 추존되었으며, '윤회의 흐름을 끊다'란 뜻을 지닌 절류대사(截流大師, 1626-1682)로도 불린다. 명나라 희종(熹宗) 천계(天啟) 6년(1626)에 태어나 청나라 초에 활동한 대사는 중국 강소성(江蘇省) 선흥(宜興) 사람으로 속성은 장(蔣)씨이며 휘(諱)가 행책(行策)이며, 그의 부친은 전창(全昌)이라는 분이다. 부친은 유교의 선비로서 일찍부터 유불선에 달통한 감산( )山, 1546-1623) 대사와 교류해 왔다. 그런데 감산 대사께서 세상을 떠나 등신불이 되셨는데(남화선사에 육조 대사와 나란히 모셔져 있음), 3년 후 꿈에 대사께서 주장자를 짚고 방에 들어와 은연히 앉으심을 보고 임신이 되어 낳은 분이 행책 스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름이 몽감(夢)이었다.

행책 스님이 성년이 될 즈음 부모님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자, 세간을 떠나 도를 닦겠다는 발심을 하게 된다. 드디어 23세에 무림(武林, 지금의 절강浙江 항주杭州) 이안사(理安寺)에 출가하여 약암문공(若庵問公) 선사 문하에서 공부하는 법을 배웠다. 거기서 무려 5년간 옆구리를 바닥에 닿지 않으며 눕지 않고 애써 정진하여 마침내 깊은 진리의 근원(法源)을 깨달았다.

법화삼매 닦아 천태종 정수 통달

청나라 순치(順治) 8년에 문공 선사가 입적한 후, 행책 스님은 주로 보은사(報恩寺)에 머물다가 우연히 식암 영(息庵瑛) 선사를 만나 정토법문을 듣고 염불을 열심히 하게 된다. 그리고는 또 다시 전당(錢塘)에 있는 초석(樵石) 법사를 뵙고 천태(天台) 교리를 열람해 보고는, 함께 정실(淨室)에 들어가서 법화삼매(法華三昧)를 닦았다. 행책 스님은 이 법화삼매를 수행하면서 숙세의 지혜가 갑자기 돈발되어 천태교의의 정수를 철저히 통달하게 된다.

강희(康熙) 2년(1663)에 이르러 행책 스님은 항주 법화산 서쪽 시냇가에 연부암(蓮 庵)이라는 암자를 하나 지어 그곳에서 전적으로 염불수행에 매진해 득력했다. 그곳에서 7년 간 주석한 스님은 그 후 강소성 오산(虞山, 지금의 상숙常熟 땅) 보

천태교의 통달, 정토결사
불칠법회 전통 만든 당사자
염리심 가져 왕생 쉬워

인원(普仁院)에 가 염불을 창도하고 정토결사(蓮社)를 만들자 수행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다. 아울러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염불정진 하는 불칠(佛七, 7일 참선정진은 '선칠'이라 한다)법회를 열면서 대중이 함께 모여 정진하는 큰 염불도량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불칠법회의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정토종의 시원인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의 경우 한 번에 무려 2천여 불자들이 모여 7일간의 '나무아미타불' 염불정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불칠' 법회로 7일 용맹정진도량 세워

행책 스님은 정업(淨業)을 닦는 수행자가 오랫동안 염불해도 윤회를 벗어난 청정한 세계인 정토에 왕생하는 자가 드문 이유를 통찰하고, 제자들의 근기와 성향에 맞는 방편을 선택하여 간절한 노파심으로 약방문을 제시하듯 지도하였다. 대사가 파악한 바로는, 사람들이 왕생하지 못하는 원인은 모두 탐욕과 애정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그 굴레에 메여있기 때문이었다. 왕생극락이 비록 아미타부처님의 '본원의 힘(本願力)'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염불행자가 현생에 대한 집착이 강할 경우는 왕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행책 스님은 염불행자들이 왕생극락에 대한 진실한 서원을 발하는 동시에 사바세계의 삶을 싫어하는 염리심(厭離心)을 갖고 삼계를 벗어나려는 출리심(出離心)을 가져야 한다고 간절히 당부했던 것이다.

대사의 광명 보고 2인이 지옥에서 환생

그토록 활발하게 정토법문을 열어보였던 행책 스님은 당신의 정토업(淨土業)을 성취하시자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보인원에 주석한 지 30년 때 되는 강희(康熙) 21년(1682) 7월 19일 세수 57, 승랍 35세를 일기로 생사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난 것이다.

〈정토성현록(淨土聖賢錄)〉에는 스님의 왕생과 관련한 기이한 일화 두 건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 손한(孫翰)이란 사람이 병으로 앓다가 죽었는데, 하루를 지나 다시 깨어나서 하는 말이 "명부(冥府)에 가서 심판을 받던 중 갑자기 밝은 광명이 천지를 밝게 비추니 염라왕이 엎드려 절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방금 이 광명은 청나라 행책 대사께서 왕생극락 하시면서 비추신 광명인데, 너희들이 다행히 그 빛을 받은 인연으로 많은 죄업이 소멸되어 다시 환생시켜 주니 나가서 많은 공덕을 짓도록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날, 남관 밖에 살고 있는 오씨(吳氏)의 아들도 역시 깨어나서 손씨와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 후 두 사람은 크게 발심하여 염불수행을 철저히 행한 것은 물론이다.

대신심 있어야 염불삼매 · 왕생 가능

당시에는 큰 화제가 된 이러한 기록을 요즘 사람들이 보면 진위여부를 따지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일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선종에서 화두를 타파하기 위해 스승과 공안(公案)에 대한 대신심(大信心)을 강조하듯이, 정토종에서도 '믿음'이 왕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대혜선사어록〉에 '신득급(信得及)'을 강조했듯이, 어떤 수행방편이든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信)이 있어야만 체험하여 증득(得)할 수 있고, 수행의 과지(果地)에 도달(及)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임종시 윤회 벗어나는 생사해탈법

오늘날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만년에 질병이 몸에 달라붙고, 임종시에 매우 큰 고통이 따를 것이며, 어떤 분들은 치매로 몇 년 끌다가 운명하는 때에 혼미하고 정신이 맑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큰일(大事)로 정토에 왕생함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진실한 믿음, 간절한 염불로 시시각각 마음에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다면, 눈빛이 땅에 떨어지는(眼光落地) 크나큰 고통의 순간에도 여여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염하여 육도윤회의 고통스런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기연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염불이 아닌 참선과 위빠사나를 통해 견성성불하거나 아라한이 된다면 그 또한 생사해탈의 큰 길이겠지만, 그 확률은 과연 60억 분의 몇이나 될까? 냉철한 판단으로 생사해탈의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지름길이 담긴 제불보살과 조사스님들의 특별법문(정토법문)에 귀기울여 보시길 간절히 발원한다. 나무아미타불!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7.19~2017.7.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2017년 개정판)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2	불화의비밀	자현	조계종출판사	7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3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8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4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9	꽃도꽃피우기위해애를쓴다	정목	수오서재
5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10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저자가 말하는 〈조선 선비들의 불교 이야기〉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억불숭유(抑佛崇儒)를 표방한 시대였다. 원활하고 튼튼한 통치 구축을 위한 조치로, 승려 출가를 제한하고 승려들을 환속 시켜 그 수를 줄였다. 또 다른 한편으론 사원 경제의 기초인 토지를 환수 하는 등, 불교계의 영향력을 물리적으로 약화시켰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불교가 더 이상 발전될 수 없는 시대적 토양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불교계의 노력이 특별히 돋보인 시기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척박한 토양에서도 수행의 높은 경지를 드러낸 승려들은 투철한 수행을 통해 명징한 수행력을 구현했다. 이뿐 아니라 환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구국의 단심을 불태운 승병들이 출현한 것도 조선시대 스님들이 보인 결단력이다. 아무튼 조선은 유불의 이념적인 갈등에 따라 일시적인 화합이 도모되기도 하고 갈등이 심화된 시기이지만 선비와 승려들의 인간적인 교유는 간단없이 이어졌다. 이들은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시를 지어 서로 화답했으며 스님들의 시축 말미에 서문을 써주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선비와 깊이 교유한 승려들은 때로는 자신의 수행처에서 생산된 산채 나물이나 짚신, 먹, 종이, 차뿐 아니라 절에서 만든 음식을 보내 훈훈한 정을 교류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물론 이런 유불의 교유는 예나 지금이나 이어지는 일이거니와 굳이 유불 교유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아마도 동진 때 인물, 혜원과 육수정, 도연명이 일군 유불의 교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후일 '호계삼소(虎溪三笑)'로 통칭된 이들의 아름다운 유불의 교유는 실로 속기나 꾸밈, 유불리(有不利)를 따지지 않던 대인들의 통유를 실천한 점에서 후인의 귀감이 됐다. 조선 전기 인물, 삼탄 이승소(1422~1484)와 일암전 장로의 교유서도 이런 유형은 드러난다.

바로 일암전 스님은 백년의 번뇌를 떨쳐 버리고 깊이 일미선에 들었던 수행자였다. 몸이 한가해 늙음도 찾아오지 않았을 수행자, 일암전 스님은 현관을 다 뚫어 버린 승려인 반면 자신은 아직도 미몽에 졸고 있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는 탄식은 관직의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속인이 품은 열등의식일 것이다. 대부분 조선 전기 유학자들은 불교 교리에도 밝았고 승려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조선 중기에 이르러 이들의 교유에도 변화를 보인다. 승려들은 이름 있는 유학자들에게 자신의 시축에 발문을 받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때론 시축을 들고 현달한 선비를 찾았으니, 선비들은 불교를 배척하는 상소문을 올린 전력을 가진 자들이었다. 특히 문정왕후의 비호 아래 불교 재건을 도모한 불교계의 움직임은 유생들의 큰 반발을 일으켰다. 금계 황준량(1517~1563)도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관료 입장서 불교를 비판한 시각만은 분명했지만, 그와 교유한 승려들에게는 유연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으니 이는 조선 중기에 유불 교유의 흐름일 것이다.

백담 구봉령(1526~1586)같은 인물은 차를 즐기고 이해한 인물로, 한때 병을 치료하기 위해 평해 온천을 찾았을 때 만난 경진 스님과의 깊은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간 유학자도 있었다. 결국 정치, 종교, 이념을 초월한 유불 교유는 조선 전기, 중기, 후기에도 관통되는 아름다움이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지면 마음에 맞는 벗을 찾아가 차와 시를 나누고, 산사를 찾아 담소를 나누는 것은 인지상정이며, 서로 호연지기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 것도 조선 시대 유불 교유의 단면이다.

이 글의 시작은 억불 시대에도 유불의 인간적 교유가 어떻게 이어졌을까하는 의문서 비롯되었다. 재작년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를 시작하며 원론적인 자료를 섭렵하는 과정서 초의와 추사의 오랜 교유의 흔적을 발견하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낀 것도 큰 보람이었다. 유불 교유사에 또렷한 자취를 남긴 이들의 문집에서 자료를 찾고 연재글을 완성하는 동안, 따뜻한 인간애로 맺어진 우정은 실로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큰 수확이다.

〈박동춘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조선의 선비, 불교를 만나다〉

박동춘 지음 | 이른아침 펴냄 | 1만 8천원



억불시대, 갓 쓰고 절집 간 유생들 이야기

주지하다시피 조선은 숭유억불의 나라였다. 하지만 조선 불교는 나름의 방식으로 확장되고 깊어져 당시 사회를 떠받치거나 혹은 주도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유교와 불교를 책임진 두 핵심 집단, 곧 유학자와 승려들 사이의 끊임없는 교류 때문이었다. 숭유억불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수많은 선비들은 갓을 쓴 채 사찰에 드나들고, 승려들과 어울려 차를 마시고, 밤새워 시와 학문 토론을 멈추지 않았다. 탈속과 해탈을 꿈꾼 유학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증거다. 반대로 불가의 승려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유불의 긴장과 화해가 조선 왕조 500년을 지탱하는 하나의 기둥인 셈이었다. 무엇이 이질적인 이념을 좇던 이 두 집단을 하나로 묶은 것일까? 이 책에서 저자는 선비의 몸으로 부처님을 만나고자 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 답을 찾아 나선다.

조선시대 유교와 불교는 어떤 관계?

조선이 건국된 후, 유불의 교유는 정치적인 이유서, 표면적으론 대척을 하는 듯 하지만, 실제 학문의 지혜를 갈고 닦던 사람들의 인간미 넘치는 교류가 끊어져 버린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념적 갈등으로 겉으로 드러난 마찰이 컸던 시대일 뿐이다. 당시 새 시대를 열던 조선 유학자들은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정치적 이상으로 삼았다. 성리학은 이들의 이상적 목표를 담아낼 원천과도 같았다. 따라서 유불의 갈등은 불가피한 시대적 운명이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유불의 교유는 계속됐고, 유교는 불교를 통해 새로운 정신과 기운을 끊임없이 공급받았다. 해탈과 달관을 위주로 하는 불교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유교와 유생들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하나의 원천인 셈이다.

억불시대 스님들, 깨달음 경지 시어로

숭유억불의 시대적 상황에서 불교는 점차 정치, 사회적으로 힘을 잃어갔다. 하지만 불가의 구성원, 즉 수행승들의 수행 의지마저 벼랑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산간으로 밀려난 수행승들은 속세와의 인연서 놓여나 오히려 조선 불교만의 참선과 수행 전통을 완성했고, 수

유학자와 승려들 끊임없이 교유
밤새워 차 마시며 시와 학문 토론
스님들 국가위기 때 구원투수 역할
儒佛의 긴장과 화해로 조선 지탱

행의 여가에는 시를 짓고 차를 즐기며 유학자 못지않은 학문과 철학의 깊이를 확보했다. 스님들이 정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대에 비해 미약해졌다 하더라도 수행에 대한 이들의 의지는 더욱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고, 백척간두서 수행력을 탁마한 승려들은 그 깨달음의 경지를 시어로 풀어내기도 하였다.

시와 차로 맺어진 유불의 인연

서로 다른 이념과 철학을 추종한 유가와 불가의 인연은 주로 시와 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의 수행승들은 자신의 시축 말미에 제발(題跋)을 받고자, 당대의 이름 높은 선비를 찾아 나섰으니 이는 조선시대 유불 교유의 독특한 양상이다. 물론 조선 전기, 중기, 후기마다 다른 특징을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억불 시대에서도 이들의 교유는 지속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 외에 유불의 교유를 가능케 하고 지속시킨 중요한 매개 중의 하나가 차였다. 다산과 초의, 초의와 추사의 인연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차라는 음료를 통해 인간적으로 가까워졌고, 또 인간적으로 가까워지자 정신적으로도 일종의 동지가 될 수 있었다. 비록 추구하는 이상은 서로 달랐지만 아끼고 존중하는 미덕이 싹텄고, 배려와 상호이해의 바탕이 마련됐다. 자칫 외눈박이로 전락할 수 있던 조선의 유교와 불교는 이런 교유와 상호 이해를 통해 발전과 화해를 모색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이런 유교와 불교의 상호 교유를 선두서 추진한 유생과 스님들의 이야기다. 이들의 삶을 통해 조선시대 유교와 불교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한편으로 두 사상과 철학의 접점을 통해 진정한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천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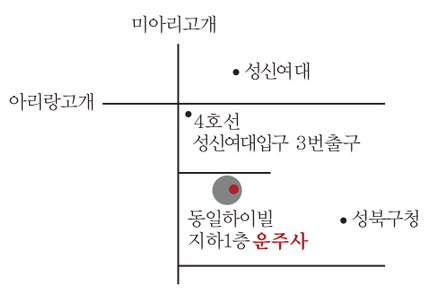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박동춘 소장**은 응송 박영희 스님에게 〈다도전게(茶道傳偈)〉를 받음으로써 조선 후기 초의선사에 의해 정립된 우리 전통차의 적통인 '초의차'의 이론과 제다법을 이어 받았다. 저자는 '초의차'를 잇는 한편 초의선사뿐 아니라 한국차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일을 병행하면서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성과를 모아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응송 박영희 스님으로부터 무공(無空)이란 법호를 받았고, 사단법인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에서 '초 의차'를 계승하는 '동춘차'를 만들며 한국 다도의 맥을 보존 전수하고 있다.

현재는 성균관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 등에 출강한다. 제2회 화봉학술문화상을 수상했고, 제22회 행원학술 특별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초의선사의 차 문화 연구〉(일지사), 〈맑은차 저멸을 깨우네〉(동아시아), 〈우리시대 동 다송〉(북성재), 〈추사와 초의〉(이른아침), 〈박동춘의 한국차 문화사〉(동아시아) 등이 있다.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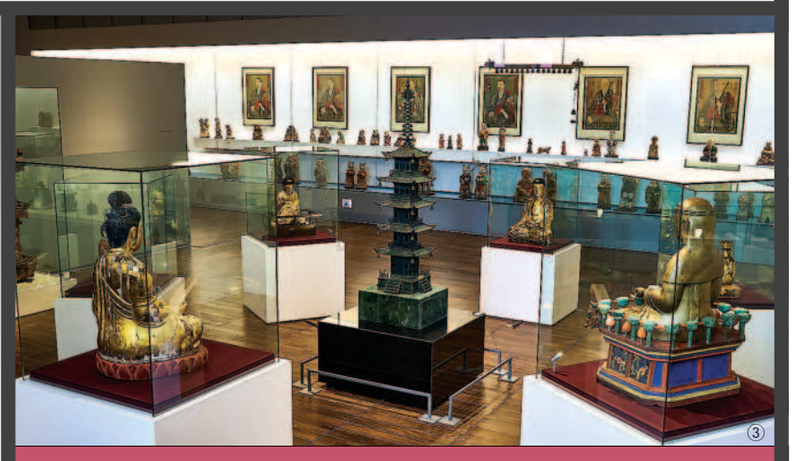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화폭 속으로 떠나는 休… 폭염도 '거뜬'



①


②


③

1. 이호신 화백의 '천리포 해송과 낭새섬'. 푸른 절경에 보기만 해도 무더위가 싹 가시는 듯 하다.
2. 고성익 作, 옛이야기, 85x47x90cm, 느티나무, 한옥고재
3. 불교 소장품이 대거 전시된 제주 본태박물관 내부 전경.

여름 휴가철 가볼만한 전시


'Point of Point' 이태수 作

이호신 화백 초대전 '누리에 솔바람' 8월 20일까지… 화집도 함께 발간

천리포수목원서 만나는 우리 소나무

'생활산수화'란 장르를 개척해 자연생태와 삶의 본질을 화폭에 담기로 유명한 이호신 화백이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 밀러가든 갤러리서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화백이 20여 년간 작업한 한국의 소나무들을 한데 모은 자리로, 태안 천리포수목원의 해송을 비롯해 전국의 명송 및 솔숲을 형상화한 소나무 그림 30여점이 소개된다. 이 중에는 옛 시와 현대시를 아우르는 소나무 주제의 시서화(詩書畵)도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구길본 천리포수목원장은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를 잇는 이 시대 최고의 진경산수화가인 이호신 화백의 작품을 천리포수목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수목원 방문객 모두가 소나무의 참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연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는 8월 20일까지. 화집도 함께 발간된다.

이호신 화백(1957~)은 개인전 19회를 개최하고 저서 15권을 발간한 바 있다. 그의 작품은 대영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이화여대박물관, 박수근미술관, 한양대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다. 지난 6월 열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식'에서는 25년간 우리 환경 및 국토사랑, 국립공원의 중요성을 작품으로 알린 공적을 인정받아 '문화포장'을 수상한 바 있다. (041)672-9982

제주 본태박물관, 불교 소장품 展 웅장한 규모 제5관서 상설전시로

한여름 제주서 불교미술 매력에 빠지다

제주 본태박물관(관장 김선희)은 개관 5주년을 기념해 불교 관련 소장품을 한 자리에 망라한 '삶의 정서가 깃든 불교미술의 매력'을 제5전시관서 연다. 이번 전시에는 일제강점기 및 한국전쟁 속에서도 보존된 많은 불교유물들이 전시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태박물관의 제5전시관은 200평 규모, 높이 6m에 달하는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본태박물관의 트레이드마크인 '소반타워'와 같이 높은 벽면을 활용한 입체적 전시 구성에 적합하게 설계 됐다.

본태박물관은 "건축물 구조의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이번 전시도 압도적으로 높은 공간을 활용, 불교 유물의 장엄함을 선보일 것"이라면서 "앞으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전시, 문화예술 아카데미, 세미나 등을 열며 제주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설전으로 열리는 소장품 기획전 '삶의 정서가 깃든 불교미술의 매력'은 7월부터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064)792-8108

파편서 오는 '오해'를, 전체의 '이해'로

겹쳐진 수십 개의 스틸 슬라이스가 마치 물결처럼 흐르며 역동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듯하다. 차갑고 차가운 느낌의 스틸 작품을 통해 사람 인연의 시작과 끝, 이해와 오해, 고독한 중얼거림 등 일상을 시적인 요소로 풀어낸다. 스틸 슬라이스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태수(36) 작가 작품들의 특성이다.

이태수 개인전 'Vanishing Point' 삼청동 스페이스선+ 8월 1일까지

서울 삼청동 스페이스선+는 이태수 개인전 '스틸에 불어넣은 아련한 온기_Vanishing Point'를 8월 1일까지 연다. 그동안 주요 도시에 설치한 공공조형 작품을 비롯해 스틸 작품을 주로 선보인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완성도 높은 스틸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높이 1.8m에 이르는 대형 작품을 포함해 10여점의 신작이 전시된다. 작가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수십 개의 슬라이스로 만들고, 슬라이스를 다시 공간이 흐르는 형태로 용접하는 과정을 거치며 일상에서 채집한 기억과 감정들을 풀어낸다.

작품의 한 파편만 바라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오해의 조각일 수 있지만, 구조적 집약을 통해 응집과 확산을 동시에 내포하는 이미지로 나타난다. 덩어리를 이루는 면을 따라 흐르는 외형의 선들은 소실점으로 이어지는 블랙홀 같은 이미지로, 시작과 동시에 끝을 이어주는 통로이기도 하다. 작가는 작품의 입체감을 소멸시키면서 외부로부터 내부까지 빨아들이는 공간을 통해 소실된 텅 빈 공간을 부각시킨다.

이 작가는 "작품 'point to point' 속에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형태로서의 덩어리가 아닌, 밖에서 안으로 흐르는 내적 의미를 조망하는 역할로서 시각을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02)732-0732

고성익 초대전 '그 시절, 그 향기' 안성 청학대미술관서 8월 30일까지

해맑은 동자승 모습서 시대를 보다

협동조합 아트플랫폼 주인공은 고성익 조각가의 초대전 '그 시절, 그 향기'를 8월 30일까지 경기 안성 청학대 미술관에서 연다. 고 작가는 서양화를 전공했으나 최근에는 목조각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자승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 목조각 작품들이 소개된다.

고 작가의 작품 속 천진난만한 동자승들의 모습은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그대로 드러낸다. 작가는 귀엽고 밝은 동자승들의 표정을 통해 자기중심적이면서 일그러진 현실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종호 청학대미술관 디렉터는 고 작가의 작품에 대해 "특유의 해학적 표현 기법과 지난한 노동의 숨결이 보이는 단단한 마무리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하는 신비함을 들게 한다. 대부분 느티나무 · 참나무 · 소나무 · 한옥고재로 이뤄진 재질서 볼 수 있듯 단단한 질료에서 오는 완성미는 작품을 돋보이게 할 뿐 아니라 특유의 목향은 작품의 감상을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시인이기도 한 고 작가는 영남대 서양화과를 졸업, 전국 조각 공모전 및 경연대회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한다.

서양화에서 목조각으로 전향 후 오랫동안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 독특한 기법과 해학으로 완성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010)2771-0002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❶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❷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❸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❹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수제 햄머 Hammer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S800 유광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스푼


스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푸른 물살 가르며 연화장 세계로…

저 절로 가는 길
⑮ 연화사 가는 길

그 섬에 가고 싶다. 가봤자 아무런 연고지도 없으면서 막연히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사람이 더러 있다. 저녁 무렵 창가에 서서 빌딩 너머로 기우는 해를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혹여 섬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에 잠겨있지나 않은지 의심해봐야 한다.

단지 그곳에 섬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여름 나는 미륵도와 연화도로 떠났다. 그런데 혼자 가야 어울림직한 여행에 사람들을 선동한 건 어떤 연유였을까? 나는 도반들을 데리고 심야버스로 통영을 향해 내달렸다. 그 섬에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하고,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타야 하는 먼 여정이었다.

첫 번째 섬인 미륵도, 그 섬에서 어쩐지 나는 섬을 실감할 수 없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대신 아치트로스 공법의 통영대교를 건넜기 때문일까. 용화사에서 새벽예불을 마친 나는 케이블카라도 타고 미륵산에 오르려던 생각을 접었다. 배 시간이 촉박했다.

두 번째 섬인 연화도로 가려고 통영 여객선터미널에서 이른 11시에 떠나는 고속카훼리호를 탔다. 사람과 차가 드나드는 배의 철문이 둔중하게 닫히는 순간 수로를 건너는 다리 역할도 하는 중세 유럽의 성문이 떠올랐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자 바다가 단번에 양쪽으로 쪼개져서 흩날린다. 한산도와 여수의 앞글자를 각각 하나씩 떼 내어 이름 붙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다. 나와 도반은 먼 바다를 보고자 3층 갑판 위로 올라갔으나 얼굴을 쳐들기도 어렵게 바람이 셌다. 선실이 있는 2층은 욕지도와 연화도 가는 손님들로 북적댔다. 우리 중 몇 명은 다시 3층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갑판과 선실에 따로 흩어져야 했다. 그렇지만 어디 있든 쪽빛 바다가 넘실대니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느낌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섬에 가고자 하는 마음에는 인류의 오랜 소망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 미국의 희곡작가 에드워드 올비의 '바다 풍경'은 인류의 시원이 바다라는 주장을 밑바탕에 깔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바닷가 휴양지에 바다도마뱀이 올라온다. 주인공은 도마뱀에게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본다. 주인공의 자각은 바다가 어머니의 자궁 속 양수와 같다는 공간적 동시성으로 이어진다. 어머니는 바다이다.

오늘의 우리는 어떠한가. 늘 결핍에 시달리기에 늘 어머니가 필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결핍은, 법정 스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모자라서가 아니라 만족을 모르는 데서 생겼기 때문이다. 바다를 보면 어머니가 가까이 있다는 느낌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섬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건 그 어머니의 자궁을 찾아 깊숙이 들어가고 싶어서이다. 그래선지 배로 한 시간 걸리는 연화도까지의 24km가 다소 먼 느낌이었다.

연화도 선착장에는 우리 외에 몇 사람만 내렸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볼거리가 많기로 소문난 욕지도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탓이었다. 몇 척의 통통배와 가두리 양식장임을 표시하는 부표, 단층 슬라브 건물에 들어선 식당과 구멍가게,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박스 등 작은 섬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 우리 눈에 보였다. 부두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한 노인과 산비탈에 우두커니 서 있는 흑염소 몇 마리 때문에 더욱 고요해 보이는 섬이었다. 여의도보다 넓은 섬이면서 200명만 산다니 그럴 만도 하다.

선착장 앞 안내판이 가리키는 대로 왁자지껄 도반들과 함께 마을을 가로질러 육각정 앞에 이르니 산길이 열렸다.

앞이 툭 터진 오르막길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니 두부 모판 같은 양식장과 ㄷ자 모양의 선착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우리나라 섬 어디서도 있기에 마치 제삼자 같아 보이는 풍경이었다.

그러나 연화도(蓮花島), 연꽃섬이란 이름이 공연히 생긴 건 아니었다. 선착장에서 출발해 불과 30분 만에 도착한 연화봉 212.2m 정상의 거대한 아미타불로부터 연화도가 지닌 불교적 키워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발아래로 해안절벽에 세워진 보덕암이 내려다보이고 그 주변에 해수관음상과 두 기의 석불, 오층석탑이 가지런히 배치돼 있다. 보덕암은 2004년, 산 너머 연화사는 1998년에 지었으니 그 유래가 짧다. 누군가 섬 전체를 불국토로 조성한 흔적이 역력하다.

모두 쌍계사 조실인 고산 스님의 원력이다. 스님이 이 작은 섬에 사찰과 암자를 들이고 불상과 탑을 세운 까닭은 무엇일까?

조선조 연산군은 폭군으로 악명이 높지만 불교 탄압도 그에 못지않았다. 삼각산에서 수도하던 한 사내가 세 비구니와 함께 연화도로 도망쳐온 건 그때였다. 사내가 스님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세 비구니와 함께했고 섬사람들이 연화도인이라 불렀다고 하니 사내는 아무튼 섬에서도 구도자적 태도를 견지했던 모양이다. 도망자 연화도인은 이 섬에서 남은 생을 보냈다가 어느 날 입적했다. 세 명의 비구니와 섬사람들은 도인의 유언을 기려 시신을 수장했는데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연꽃이 피어올랐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연화도인이 입적한 지 70여 년 뒤 사명대사가 연화도에 찾아든다. 사명대사의 여동생인 임채운, 사명대사가 출가하기 전 약혼녀였던 황현옥, 사명대사를 짝사랑했던 심설정도 따라왔다. 섬사람들은 이들을 연화도인의 후신으로 믿었다.

이 모두가 구전이므로 사실보다는 설화에 가깝다. 그런데도 1974년 발간한 전남 순천의 승주향토지에 연화도인과 사명대사를 비롯한 그 밖의 사람들 이야기가 실명으로 기록돼 있다니 이거야말로 난데없다. 순천이라면 통영 연화도하고는 한참 떨어진 거리 아닌가. 사명대사의 세 여인이 임진왜란을 예측하고 이순신 장군을 만나 거북선 건조법, 해상지리법, 천풍기상법을 전수했다는 이야기를 뭐라 이해해야 할지도 난감하다.

그렇지만 이처럼 믿기 어려운 기록에도 불구하고 불교 탄압의 역사가 이 먼 남쪽 섬에도 깃들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연화도만이 아니다. 욕지도, 두미도와 세존도, 미륵도…… 통영 앞바다의 여러 섬에 농후한 불교적 색채는 새 삶을 개척하려 섬에 온 유민들이 뭍에서 이룰 수 없었던 불국토, 그 꿈의 조각들 아닐까.

연화봉 정상에서 만나는 비경은 뭐니 뭐니 해도 용머리 바위이다. 아니나 다를까, 도반들이 눈길이 모두 거기에 쏠려 있다. 열도처럼 늘어선 섬들이 용의 머리와 등뼈처럼 꿈틀대면서 바다로 나아가는 기세이다. 용이 바다에 입수하는 자세이므로 우리가 선 곳은 용의 등어리에 해당한다고 상상해선지 얼굴들이 하나같이 즐거워 보였다.

용머리 비경은 내리막길에서 잠시 모습을 감췄다가 보덕암에서 다시 등장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때부터 어쩐지 내 눈엔 용머리 바위가 올비의 도마뱀처럼 보였다. 꼬리를 물에 담근 채 바다 도마뱀이 막 뭍으로 올라오는 자세였다. 파충류 특유의 서늘한 온도가 내게로 다가드는 느낌이더니 그 갈라진 혓바닥이 내 귀를 간지럽혔다. 도마뱀이 내게 무슨 말인가 전했지만 안타깝게도 내 귀는 도마뱀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위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보덕암에서 되돌아 나와 두 갈래 길에서 도반들과 합류했다. 연화사로 가는 길과 벼랑길을 끼고 용머리 쪽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주저 없이 저 절로 갔다. 연화도에 유람 온 사람들은 대개 연화봉에 올라 용머리 앞에 있는 출렁다리를 건너서는 동두마을까지 다녀오는 게 순서다.

섬의 크기에 비해 그리 작지 않은 절이었다. 연화사를 지은 고산스님의 꿈이 컸다는 방증이다. 본래 섬사람들이 다 매달려도 이루지 못할 크기의 불사였는지 연화도는 지금도 불사를 진행 중이다. 보덕암에 와서 철야정진하는 외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소식이니 그나마 다행이랄 수 있었다.

연화도 사람들은 가난한 편이다. 몇 년 전 연화도에서 하루 묵었던 나는 그걸 알고 있다.

"어족이 고갈돼 지금은 고기잡이배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작년이 저 세상 같다니까요."

어느 밤중, 연화도의 포장마차에서 내가 들은 탄식이었다.

종교는 때때로 현실의 크기와 반비례한다. 삶이 힘들수록 기대와 희망은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연화도에 와서 불국토를 꿈꾸다 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섬은 풍요로워질 것이니, 고산스님의 불사를 꼭 나쁘게만 평가할 일도 아니다.

연화도는 오후 5시가 막배이다. 그러나 서울까지 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최소한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하는 배를 타야 한다. 연화도에 도착해서 그때까지의 유람시간은 3시간 30분.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섬에 와서 얻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욕지도를 다녀온 배가 기적소리를 내며 다가온다. 착한 양처럼 우리는 배표를 끊고 선착장에 줄을 서고 있었다. 배에 오르기 전 나는 잠시 보덕암에서 들었던 도마뱀의 말소리를 떠올렸다. 터무니없는 착각이라 해도 그 말소리에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결핍의 비밀이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통영 여객선터미널서 고속카훼리호가 남긴 흰 포말을 보면 우리의 삶도 이처럼 덧없음이 느껴진다.



연화사 아미타불 모습.

통영 앞바다 불국토 명칭
보덕암과 연화사 등 존재
고단한 삶의 희망 상징



고산 스님이 창건한 연화사.

• 걷는길 : 육각정 – 연화봉 정상 – 보덕암 – 연화사 – 선착장 • 거리와 시간 : 3km 정도, 2시간 예상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찾지 않으면 찾을 것이다

고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치유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치유입니다.

답이 없다는 것이 답입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겁니다.

내려놓으면 평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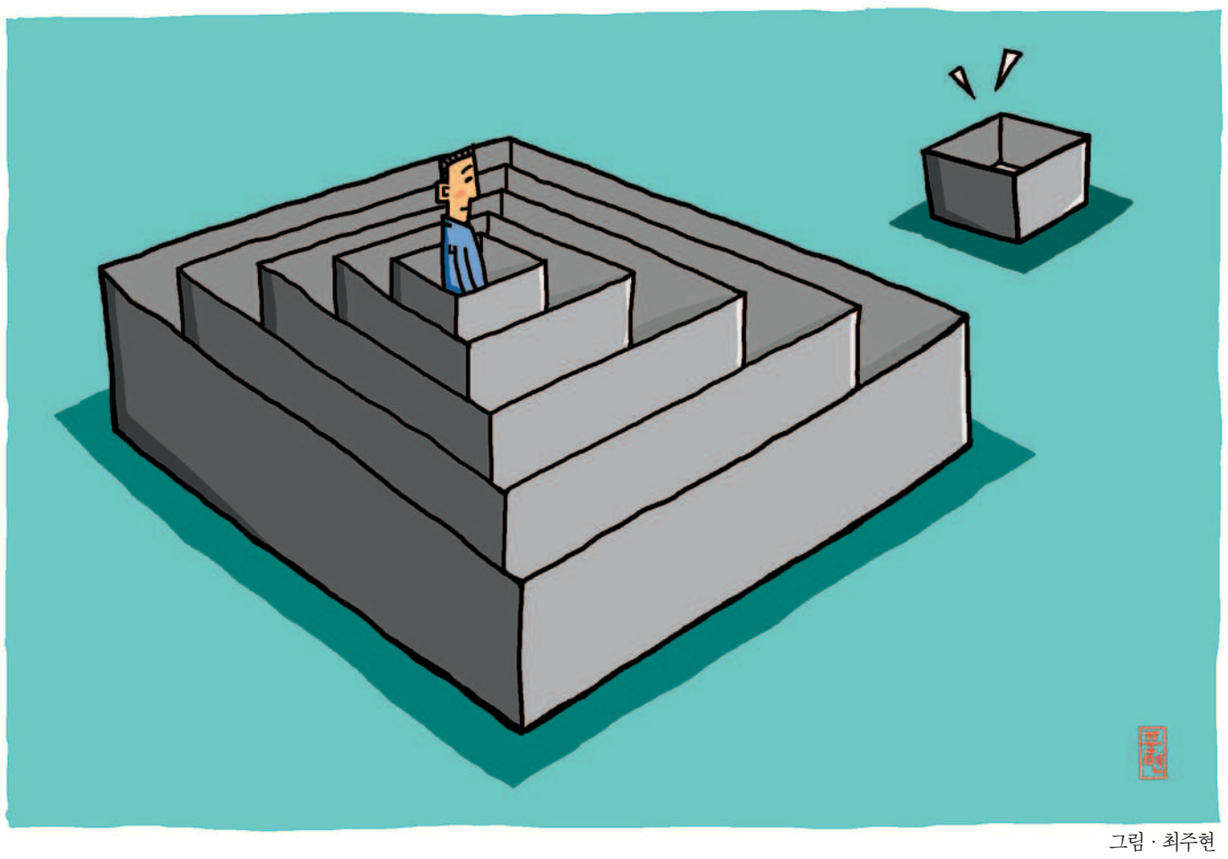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도연 스님의 '青春 사이다'

② 지금 바로 여기에서 행복하기

나만 불행한가… 알아차림으로 행복 찾자

이 세상에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럴 리 없다. 행복은 우리들이 가진 최대의 권리이자 포기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욕구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매 순간 행복하기를 바란다. 마치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를 잃게 된다.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우리들 주변에는 행복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즐겁게, 여유롭게, 또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기 쉽다.

특히 SNS와 인터넷의 발달은 나와 남을 비교하는 세태를 부추기게 됐다. SNS를 통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금방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남들이 SNS와 인터넷에 올리는 '좋은 모습'만 보고,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족에 빠지게 된다.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마인드는 우리 모두를 불행으로 이끈다.

나 혼자 있든, 사람들과 함께 있든 언제나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있으면 여유롭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함께 있기 때문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낮아진 자존감과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없음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해서 괴로워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의견의 충돌과 불편한 감정 때문에 괴롭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있든 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나는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봉사를 통해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언제나 행복한'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됐다. 행복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명상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과 주변의 변화에 대해 관찰한다. 시시각각 느껴지는 감각과 변화하는 현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긍정적인 느낌이라고 너무 탐욕스럽게 집착하지 말고,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고 해서 대번에 지레짐작하며 꺼리지 않는다. 긍정과 부정에 대해 선입견과 습관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그 자체의 있는 그대로 모습과 성질을 면밀히 관찰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저 사람은 이래서 좋아"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하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억과 감정으로 서둘러 가치를 판단해 버린다. 하지만, 이 세상에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 우리 인간의 신체는 성인기준으로 약 6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1초에 약 50만개의 세포가 새로 생기고 동시에 없어진다. 가장 잘 변하지 않는다는 뼈 조직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약 7년이 지나면 모두 새로운 조직으로 바뀌어 처음과 전혀 다른 새로운 뼈가 된다. 마음이 바뀌는 것에 비하면 몸의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다. 날씨처럼 늘 바뀌면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마음의 변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SNS 및 인터넷 사용 확대되며
타인 '행복한 생활' 접촉 많아져
상대적 박탈 · 불만족 빠지게 돼

감각 깨우기 · 알아차림 등으로
'괴롭지 않은 상태' 맞을 수 있어

늘 변화하는 자기 자신과 계속 달라지는 다른 사람의 관계는 어떠할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의 마음과 몸의 상태는 예측할 수 없는 관계의 변화를 만든다. 어제는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이 되고 보니 그냥 짜증이 나고 불편해서 만나기 싫어지기도 한다. 반대로, 나에게 심한 욕을 하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에 대해서 처음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미워했다가도 시간에 지남에 따라 싫은 감정이 희석되며 용서를 하게 된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서 깨어있는 정신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게 되면 관계를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다. 늘 변화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의 존재와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로인해 사이는 더 좋아지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된다.

이렇듯 '지금 바로 여기에서 깨어 있는 삶'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 하지만 삶에서 수시로 깨어있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지금 바로 여기 깨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감각 깨우기'다. 간단한 2가지 방법으로 쉽게 감각을 깨울 수 있다. 바로 '숨쉬기'와 '힘 빼기'다. 늘 쉬는 숨을 그냥 지켜보면 된다. 숨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구나' '숨이 이렇게 머물고 있구나' '숨이 나가고 있구나' 하면서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원활해지고 감각이 살아난다.

그리고 힘을 빼는 것은 긴장감을 완화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 온 몸에서 힘을 뺀다고 생각하면 힘이 빠진다. 실제도 몸을 축 늘어뜨리면 더욱 효과적이다. 특히 잠자리에서 번뇌와 망상이 많고 머리가 아파서 잠이 잘 안온다면 더욱이 힘을 빼야 한다. 몸에 긴장감과 피로감이 쌓이기 때문이다. 손끝 발끝 머리에 힘을 빼면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녹아나며 스르르 잠이 든다. 잠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몸을 툭하고 공중에 털어놓듯 힘을 빼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뭐꼬 알아차림'이 있다. 매 순간 순간 상황에서 '이뭐꼬(이것은 무엇인고?)'라고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뭐꼬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매 순간 내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되어서 편안해지면서 괴로움이 사라진다. 괴롭지 않은 상태는 곧 행복이다.

마지막으로 '받아들이기와 감사하기'이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느낌이든 다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좋든 싫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많은 물을 품고 있는 바다는 그 이름의 유래가 독특하다. '바다'라는 말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이다. 바다 같은 마음으로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잘 안 받아 들여질 때가 있다. '내가 왜 받아들여야해?' 하는 의구심과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그때는 '감사하기'를 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순간순간이 행복해진다.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그림 족자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18나한) 달마도 족자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그 림 만 : 70㎝ × 폭 44㎝ | ■ 판매가 : 각 70,000원
■ 족자포함 : 120㎝ × 폭 54㎝ | ■ 판매가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16나한도



달마도

●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현불샵 ☎ 02)2004-8213, 010-6701-7709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